
목 차

	들어가며	04
<hr/>		
I.	범죄취약환경 진단 도구 CPTI	06
	1. 범죄취약환경 진단을 하는 이유	08
	2. CPTI 개념과 활용 방법	11
	3. CPTI 설문지 및 응답 구조	14
	4. CPTI를 통한 진단 및 결과 해석	19
<hr/>		
II.	CPTI를 활용한 범죄취약환경 진단과 결과	26
	1. 진단 개요	28
	2. CPTI 유형 분포 및 지역별 특성	31
	3. CPTI 항목별 특성	39
<hr/>		
III.	CPTI 기반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 방향	82
	1. 진단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84
	2. CPTI 기반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 방향	88
<hr/>		
	맺음말	92
	참고문헌	94
	부록	95

들어가며

셉테드, 즉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이하 '셉테드')는 범죄를 사후에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발생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셉테드의 출발점은 환경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1990년 후반 한국에 셉테드가 도입되고 약 30년의 시간이 지나는 과정에서 셉테드는 대체로 물리적 환경의 시설 설치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 정작 그 공간에 누가 거주하며 어떤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지역 커뮤니티는 어떠한지 등 물리적·사회적 상황과 환경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환경을 면밀히 진단하고, 성격을 분석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셉테드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보다 정교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개념을 차용한 CPTI(Crime Prevention environment Type Indicator)를 진단 도구로 도입하였다. CPTI는 인구 구성, 용도, 위해 환경, 활동 특수성이라는 네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지표를 정하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후 결과분석을 통해 지역 특수성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정성·정량적 판단이 가능하다.

CPTI 유형 파악 및 조사결과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분석·해석되었다. 첫째, 전국 229개 시군구의 CPTI 유형 분포를 살펴 지역 간 범죄

예방 환경 특성의 차이와 경향을 파악하였다. 둘째, 설문 문항별 응답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민이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공간의 안전성과 취약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확인하였다. 셋째,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지역과 농산어촌지역 구분으로, 해당 지역에 집중되는 CPTI 유형 특성과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 방향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단순한 조사값에 대한 통계가 아니라, 공간환경에 대한 체감 정보와 지역별 문제 인식이 어떻게 유형화되고, 정책과 설계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도라 할 것이다.

이 책은 정책을 기획하는 공무원, 공간을 설계하는 전문가, 지역의 안전을 고민하는 시민 모두에게 실용적인 안내서가 될 것이다. 지역별 진단 사례, 설문 기반의 분석 구조, 유형별 전략 체계를 통해 누구나 자신의 지역에 맞는 셉테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제는 단순히 ‘어디에 CCTV를 설치할 것인가’를 논할 때가 아니다. ‘이 지역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어떻게 해야 안전한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가’를 함께 묻고 고민해야 한다. CPTI를 활용한 범죄취약환경 진단과 결과는 그 고민에 응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I.



범죄취약환경 진단 도구 CPTI

-
1. 범죄취약환경 진단을 하는 이유
 2. CPTI 개념과 활용 방법
 3. CPTI 설문지 및 응답 구조
 4. CPTI를 통한 진단 및 결과 해석

1. 범죄취약환경 진단을 하는 이유

도시의 안전은 CCTV나 조명보다, 그 공간이 가진 고유한 맥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서 시작된다. CPTI는 지역의 인구·용도·환경·활동 특성을 수치로 진단하여 공간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이를 통해 우리는 획일적 셉테드가 아닌,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전략을 찾는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단순히 CCTV를 설치하거나 조명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지역의 범죄예방과 더 나은 환경 설계는 무엇보다도 그 공간이 지닌 고유한 특성과 사회적 맥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동안 셉테드는 물리적 시설을 중심으로 5대 기본원칙¹⁾에 입각해 설계해 왔고, 이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의 기능, 주민 구성, 시간대별 활동 특성 등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노후 주거지와 대학가 주변은 모두 범죄취약지로 분류될 수 있지만, 각각의 공간이 안고 있는 위험요소와 주민의 생활 양상은 전혀 다르다. 노후 주거지는 주로 고령층이 거주하며 주간 활동이 많고, 외부인에 대한 경계가 높다. 반면 대학가는 젊은 층의 야간 이동이 활발하고, 유동 인구가 많아 우발적 범죄나 생활 불안이 잦은 편이다. 이 두 공간에 같은 방식으로 CCTV를 설치하거나 가로등을 밝힌다고 해서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공간환경의 진단은 물리적 구조만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과 인식이 어떻게 결합 되어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과정이어야 한다.

도시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지역을 구성하는 요소적 특성과 주민의 공동체 인식은 범죄 발생과 안전에 대한 인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Cozens(2008)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물리적 특성과 더불어 사회적 맥락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²⁾ 또한 Saville와 Cleveland(2007)는 지역 고유의 맥락(local

1) 자연적 감시 강화, 접근 통제, 영역성 강화, 활동성 증대(활용성 증대), 유지관리

2) Cozens, P. M. (2008).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in Western Australia: Planning for sustainable urban fu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lanning*, 3(3), 272-292.

context)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³⁾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생활양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셉테드 기법은 오히려 공간의 소외나 사회적 낙인을 강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⁴⁾ 정책적 측면에서도 이러한 비판은 타당하다. 법무부의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이나 경찰청 및 지역 경찰서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셉테드 사업에서도 지역 맞춤형 설계의 부족, 현장 진단의 미흡, 사후관리의 한계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 되어왔다. 이에 최근 법무부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셉테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현장조사, 주민설문, 교육, 디자인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요구를 반영하는 사례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CPTI를 활용한 공간 진단 범위는 개별 정책사업보다 포괄적이지만, 동일한 맥락에서 지역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및 설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기여한다. 예산과 인력의 제약 속에서 단일한 가이드라인이 다양한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이 모두 저하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별 특성과 공간 사용 행태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유형화할 수 있는 진단 도구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그 대안으로서 본 단행본에서는 CPTI(Crime Prevention Type Indicator)를 제안하였다. CPTI는 지역을 구성하는 인구, 용도, 환경, 활동 특수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공간을 진단하고, 지역별 유형을 분류하는 체계를 제공한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조건만이 아니라 공간의 사용 방식과 사회적 특성까지 아우르는 분석틀로서 각 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셉테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실천적 기반이 될 수 있다.

특히 CPTI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범죄취약환경 진단 부족이나 전략 설정의 일관성 부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구조적 도구로 활용 가능하다. 연간 수십 곳의 지자체에서 범죄예방 사업이 추진되지만, 진단 절차 없이 유사한 방식으로 사업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진단’ → ‘유형화’ → ‘전략 도출’의 체계적 흐름이 작동하도록 돕는다. 나아가 각 유형별 공간 특성을 바

3) Saville, G., & Cleveland, G. (2007). 2nd Generation CPTED: An Antidote to the Social Y2K Virus of Urban Design. 17th International CPTED Association Conference Proceedings.

4) Minton, A. (2009). Ground Control: Fear and happiness in the twenty-first-century city. Penguin.; Im, S., & Lee, S. (2017).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A Critical Review of the Korean Application. Journal of Urban Design, 22(5), 604-624.

탕으로 가이드라인 개발, 교육·설계 매뉴얼, 지역별 셉테드 전략지도 구축 등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정책 수립과 평가 체계 간 연계를 강화하는 플랫폼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결국, CPTI는 단순한 분류도구를 넘어 데이터 기반의 지역 맞춤형 셉테드 설계 체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2. CPTI 개념과 활용 방법

CPTI는 특정 지역의 인구, 용도, 환경, 활동 특수성을 진단해 16가지 유형으로 분석하는 프레임이다. 4개 영역(인구·용도·환경·특수성)과 8개 속성값(A/S, R/C, P/N, T/E)을 갖는다.

CPTI(Crime Prevention Type Indicator)는 지역의 범죄 취약성과 공간 특성을 진단하고 유형화하기 위해 개발된 분석 프레임워크다. 이 지표는 공간환경을 네 가지 핵심 영역, ‘핵심 타깃 인구’, ‘주요 용도’, ‘범죄취약 환경 요인’, ‘특수성’으로 나누고, 각 영역에 두 가지 특성값을 설정하여 총 16 가지 범죄예방 환경 유형으로 공간을 분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인구 구성, 용도, 범죄 유발 요인, 활동 패턴 등 공간을 구성하는 복합적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구조다.

네 가지 핵심 영역의 첫 번째 ‘핵심 타깃 인구’는 해당 지역의 주요 거주 또는 이용 인구가 모든 연령층에 고르게 분포하는지, 혹은 특정 연령대가 밀집되어 있는지에 따라 A(All)와 S(Special)로 구분된다. 고령층 중심 지역은 주간 방범 강화, 외부인 감시, 응급 대응체계 등이 중요하며, 청년층 밀집 지역은 야간 활동 밀도에 따른 이동 경로 확보와 CCTV, 가로등 등의 야간 대응 요소가 핵심이다. 이 항목은 시간대별 범죄 취약성을 구분하고, 연령 특화형 셉테드 전략 수립의 기준이 된다.

두 번째 영역인 ‘주요 용도’는 해당 지역이 주거 기능 중심인지, 아니면 상업·업무·공업 등 복합 용도가 혼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R(Residencial)과 C(Commercial)로 구분된다. 주거 중심 지역은 거주자 위주의 정주 환경의 안정성이 중요하고, 외부 유입이 적은 만큼 내부 감시체계와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감시가 효과적이다. 반면 혼합 용도지역은 외부 유동 인구가 많고, 낮과 밤의 기능이 다르기때문에, 공공 감시의 연속성과 공간 경계 관리, 시선 유도 설계가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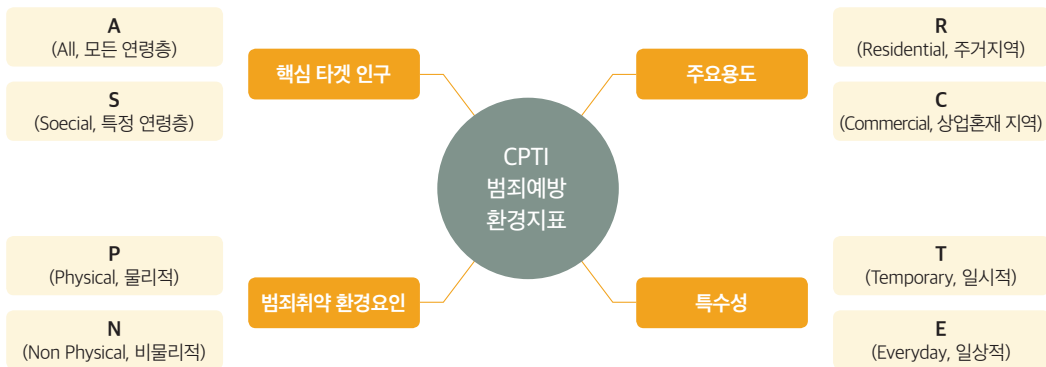
세 번째 영역 ‘범죄 유발 환경 요인’은 범죄 취약 요인이 물리적 요인(사각지대, 조도 저하, 폐건물 등)에 있는지, 또는 비물리적 요인(공동

체 약화, 고립감, 갈등 구조 등)에 있는지에 따라 P(Physical)과 N(Non Physical)구분한다. 물리적 요인이 주된 경우에는 공간 구조 개선이나 시설물 정비 중심의 접근이 효과적이며, 비물리적 요인이 중심인 경우에는 주민 간 교류 활성화, 커뮤니티 회복, 사회적 연대 강화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 중심 전략이 요구된다.

네 번째 영역인 '특수성'은 해당 지역에서의 활동이 일시적·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일상적이고 지속적인지에 따라 T(Temporary)와 E(Everyday)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행사장, 전통시장, 학사 일정 중심의 대학가 등은 특정 시간대 또는 계절에 활동이 집중되며, 이 경우 시간대별 대응 계획과 임시 시설이 중요하다. 반면 상시 활동이 이뤄지는 지역은 지속 가능한 방법 체계와 일상화된 감시 전략이 요구된다. 이 기준은 방법 시설 운영 시간, 순찰 주기, 주민 참여 활동의 밀도 등을 조율하는 기준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구성된 CPTI는 단순한 공간 분류를 넘어, 정책 수립과 설계 전략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실질적 진단 도구로 기능하게 된다. 각 영역은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영향을 미치므로 복합적 분석과 유형화 결과에 따라 보다 정밀한 지역 맞춤형 셉테드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나아가 CPTI는 사업 대상지의 공간 특성과 주민 인식 수준을 함께 반영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과 효율적인 예산 배분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 장기적인 범죄예방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 간 형평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림 1-1] 범죄예방환경 유형 지표 (CPTI) 영역 및 특성



[그림 1-2] 범죄예방환경 유형 지표 (CPTI) 영역 및 특성별 진단 내용

특성	모든 인구층	특성 인구층	주거지역	상업 혼재지역
인구 구성	모든 연령층 거주	아동, 학생, 여성, 고령자 多	no	no
생활 특성	지역 내 교류, 편의시설 多	1인 가, 대학생, 외국인 多	보행 안전, 공원/녹지 안전	유흥시설 밀집, 야간 인구 多
용도 구성	no	no	저층 주거, 아파트, 상점 多	상업/업무, 공장, 특수 시설 有
입지 특성	no	no	주거지역 안전하다고 느낌	상업/업무지역 안전하다고 느낌
위해 요인	no	no	no	no
기존 시설	no	no	no	no
니즈파악	범죄예방 환경조성 필요	범죄예방 환경조성 필요	범죄예방 환경조성 필요	범죄예방 환경조성 필요
지역 수용성	no	no	no	no
이벤트성	no	no	no	no
상시성	no	no	no	no
특성	물리적 요인	비물리적 요인	일시적 요인	일상적 요인
인구 구성	no	no	no	no
생활 특성	no	no	no	no
용도 구성	no	no	no	no
입지 특성	no	no	no	no
위해 요인	빈집, 노후주택, 막다른 골목 多	주민 교류 부족, 약물/노숙자, 다툼	no	no
기존 시설	가로등 부족, CCTV 부족, 치안시설 부족	자율방범 부족, 경찰활동 부족, 홍보 부족	no	no
니즈파악	시설 개선 및 치안 시설 필요	자율방범 활성화 및 경찰활동 강화 필요	행사 안전 프로그램 필요	일상적 범죄예방 활동 지원 필요
지역 수용성	no	no	행사 적극 참여, 시설 多	일상적 범죄예방 관심, 공공기관 관심
이벤트성	no	no	휴가철, 축제 등 방문객 多	no
상시성	no	no	no	장기 거주 희망, 변화 적음

3. CPTI 설문지 및 응답 구조

CPTI는 지역의 범죄예방 환경을 정량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설계된 72문항의 구조화된 설문체계다. 주민 인식과 요구도를 함께 측정하며 도출된 결과는 지역의 범죄예방 유형화 및 지역특성 분석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CPTI는 지역별 범죄예방 환경 유형을 도출하기 위한 정량적 진단의 일환으로,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진단 영역(인구, 용도, 환경, 특수성)에 대한 주민 인식도를 측정한다. 각 영역은 두 가지 대비되는 속성값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이를 실질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영역별로 3개의 하위 범주를 설정하였다. 이는 해당 속성의 공간 특성 및 주민 수요를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렇게 설정된 설문 구조에서 각 영역의 특성 및 하위 범주별로 각각 3개 문항을 만들어, 4개 범주 × 3개 문항 = 총 72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 내용은 해당 범주가 대표하는 속성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 인식과 생활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⁵⁾

[표 1-1] 범죄예방 환경 유형(CPTI) 설문 문항(안)

구분	코드	질문
핵심 타겟 인구 A (모든 인구층)	인구 구성	1-1 우리 지역은 모든 연령층이 고루고루 거주하고 있다.
		1-2 우리지역은 남녀 인구 비율이 비슷하다.
		1-3 우리 지역은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의 비율이 높다.
	생활 특성	1-4 우리 지역은 지역 내에서 다양한 연령층이 마을 반상회나 행사 참여 등을 통해 교류하고 있다.
		1-5 우리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지역 내에서 생활하고 있다.
		1-6 우리 지역은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 약국,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이 많다.

5) 설문 항목은 연구진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초안을 구성하였으며, 이후 2025년 2월 11일부터 2월 18일까지 21인의 관련 전문가에게 이메일을 통해 배포하여 설문 문항의 적절성, 보안 필요 사항, 그리고 범죄예방 환경 유형 지표(CPTI)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였다. 수렴된 의견은 문항의 명확성, 항목 간 균형, 진단 지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반영되었으며, 최종 설문지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구분		코드	질문
핵심 타겟 인구	A (모든 인구층)	니즈 파악	1-7 우리 지역은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을 충분히 고려한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1-8 우리 지역은 다양한 연령층이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1-9 우리 지역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범죄예방에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S (특정 인구층)	인구 구성	2-1 우리 지역은 아동 및 초, 중, 고등학생이 많다.
			2-2 우리 지역은 여성이 많다.
			2-3 우리 지역은 고령자가 많다.
		생활 특성	2-4 우리 지역은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한다.
			2-5 우리 지역은 대학생이나 청년이 많이 생활한다.
			2-6 우리 지역은 외국인 거주자나 근로자가 많다.
니즈 파악		2-7 우리 지역은 아동과 청소년 중심의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2-8 우리 지역은 고령자 중심의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2-9 우리 지역은 여성이나 1인 가구 중심의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주요 용도	용도 구성	3-1 우리 지역은 대부분이 저층 주거지역이다.	
		3-2 우리 지역은 대부분이 아파트이다.	
		3-3 우리 지역은 주거지역 주변에 시장과 마트, 상점이 많다.	
	R (주거 지역)	입지 특성	3-4 우리 지역 보행자가 다니기 안전하게 조성, 관리되고 있다.
			3-5 우리 지역은 주거 지역 내 공원이나 녹지가 안전하게 조성, 관리되어 있다.
			3-6 우리 지역은 주거 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니즈 파악	3-7 우리 지역은 원룸, 다세대주택 등 주거지 중심의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3-8 우리 지역은 아파트 주거지 중심의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3-9 우리 지역은 주거지 인근 시장, 상점 중심의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용도 구성	4-1 우리 지역은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많다.	
		4-2 우리 지역은 공장 및 제조시설이 많다.	
		4-3 우리 지역은 군부대, 유원지 같은 특수시설이 있다.	
	C (상업 혼재 지역)	입지 특성	4-4 우리 지역은 술집, 노래방 등 유흥시설이 밀집한 구역이 있다.
			4-5 우리 지역은 야간이나 심야시간대에 사람이 많다.
			4-6 우리 지역은 상업, 업무 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니즈 파악		4-7 우리 지역은 상업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4-8 우리 지역은 공장 및 제조시설 중심의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4-9 우리 지역은 야간이나 심야시간대에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구분		코드	질문
범죄 취약 환경 요인	P (물리적)	위해 요인	5-1 우리 지역은 빈집이나 외부 침입이 쉬운 노후 주택이 많다.
			5-2 우리 지역은 빈 점포 또는 방치되어 있는 땅이 많다.
			5-3 우리 지역은 막다른 골목이나 후미진 곳이 많다.
		기존 시설	5-4 우리 지역은 가로등이 부족하거나 조명이 어두운 차도와 보행로가 많다.
			5-5 우리 지역은 공공 CCTV가 별로 없다.
			5-6 우리 지역은 자율방범대, 파출소, 치안센터, 지구대와 같은 치안시설이 적다.
	니즈 파악	5-7 우리 지역은 가로등을 추가하고 어두운 조명은 밝은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5-8 우리 지역은 빈집 또는 주거 등의 건물에 침입 범죄를 예방하는 시설이 필요하다.	
		5-9 우리 지역은 자율방범대, 파출소, 치안센터, 지구대와 같은 치안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N (비 물리적)	위해 요인	6-1 우리 지역은 주민들이 자주 모이거나 교류하지 않는다.
			6-2 우리 지역은 약물이나 술 취한 행인이나 노숙자들을 빈번하게 볼 수 있다.
			6-3 우리 지역은 사람들 간의 다툼이 발생하는 편이다.
기존 활용		6-4 우리 지역은 자율방범대, 주민순찰대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방법 활동이 적다.	
		6-5 우리 지역에는 경찰의 순찰이나 범죄예방 등의 경찰 활동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6-6 우리 지역은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활동 지원이 부족하다.	
니즈 파악		6-7 우리 지역은 자율방범대 등 주민 자율의 범죄 예방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	
		6-8 우리 지역은 경찰의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을 더 자주할 필요가 있다.	
		6-9 우리 지역은 주민들이 안전을 주제로 자주 모이고 교류할 수 있는 행사나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다.	
특수성	이벤트성	7-1 우리 지역은 휴가철 등 계절에 따라 방문하는 사람이 많다.	
		7-2 우리 지역은 지역 축제 등 이벤트에 따라 방문하는 사람이 많다.	
		7-3 우리 지역은 특정 시기에 잠시 거주 또는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지역 수용성	7-4 지역 주민들은 한시적 지역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7-5 우리 지역은 한시적 지역 행사에 필요한 시설이나 공간들이 많은 편이다.	
		7-6 우리 지역은 한시적 지역 행사나 이벤트 때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니즈 파악	7-7 우리 지역은 한시적인 지역 행사의 범죄예방(범죄안전)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7-8 우리 지역은 계절별로 방문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 범죄예방(범죄안전)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7-9 우리 지역은 각종 행사나 계절별로 운영되는 범죄예방(범죄안전)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	
E (일상적)	상시성	8-1 우리 지역은 떠나지 않고 이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거나 거주하고 싶은 주민이 많은 편이다.	
		8-2 우리 지역은 휴가철이나 이벤트에 따른 관광객이 많이 몰리지 않는 지역이다.	
		8-3 우리 지역은 신개발 등 급격한 물리적 변화가 적은 지역이다.	

구분	코드	질문	
특수성 E (일상적)	8-4	우리 지역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범죄예방(범죄안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역 수용성	8-5	우리 지역은 범죄예방을 위해 파출소 또는 지역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의 지원과 관심이 있는 편이다.
	8-6	우리 지역은 사람이 붐비지 않는 시기에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8-7	우리 지역은 일상적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율방범대 사무소 등 시설 및 공간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	
	니즈 파악	8-8	우리 지역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범죄예방 활동을 더욱 지원하여야 한다.
	8-9	우리 지역은 일상적 주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상시적 범죄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한편 설문에 대한 응답은 7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각 응답은 해당 범주의 특성값(A/S, R/C, P/N, T/E)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를 수치화하여 유형화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의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전략적 방향성을 판단하게 된다. 특히 각 영역의 하위 범주 중 1번과 2번 문항은 지역에 대한 주민의 직접적인 인식을 묻는 질문이며, 3번 문항은 앞선 인식을 바탕으로 요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CPTI를 통한 조사가 단순한 인식 조사에 그치지 않고, 요구도에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전략 수립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1-3] CPTI 항목에 대한 조사 내용(지역에 대한 인식)



[표 1-2] 범죄예방 환경 유형(CPTI) 설문지 구조 예시(하위범주 1,2)

지역에 대한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1-1	우리 지역은 모든 연령층이 고루고루 거주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1-2	우리지역은 남녀 인구 비율이 비슷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1-3	우리 지역은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의 비율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1-4	우리 지역은 지역 내에서 다양한 연령층이 마을 반상회나 행사 참여 등을 통해 교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1-5	우리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지역 내에서 생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1-6	우리 지역은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 약국,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표 1-3] 범죄예방 환경 유형(CPTI) 설문지 구조(하위범주3; 가중치 조사)

우리 지역 범죄예방 환경 조성 방향	중요도
우리 지역은 모든 연령층을 두루 고려하는 범죄예방 환경이 필요하다	___%
우리 지역은 특정 연령층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범죄예방 환경이 필요하다	___%
합계	100%

4. CPTI를 통한 진단 및 결과 해석

CPTI 분석의 핵심은 설문 결과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구조화하고, 이를 지역의 범죄예방 환경유형으로 체계화하는 데 있다. 응답 자료는 단순한 인식조사가 아니라, 각 지역의 사회적·물리적 환경을 수치화하여 셉테드 전략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로 기능한다. 이를 위해 CPTI는 각 문항의 점수를 영역별 특성값(A/S, R/C, P/N, T/E)에 따라 정규화하고, 상대 점수를 산출하여 지역별 특성을 객관적으로 비교한다. 이렇게 도출된 상대 점수는 네 가지 진단 영역의 조합을 통해 총 16개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영역에서 점수가 더 높은 값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대표한다.

먼저 ‘인구’ 영역은 지역을 구성하는 주민의 세대적·계층적 특성을 반영한다. 이 중 A(All, 모든 연령층)는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지역에서 모든 연령대를 함께 고려한다. 조명과 비상벨 등 방범 시설물의 인식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신체 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다. 최근에는 AI 기술을 도입한 복합 모듈 시스템(CCTV·비상벨·조명·경광등)도 확산되고 있다. S(Special, 특정 계층)는 어린이, 청소년, 노인, 여성이나 외국인, 1인 가구 등 사회적 특수 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전략을 필요로 한다. 청소년 활동공간 확보, 노인 및 여성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들거나, 어린이 보호구역 설정 등의 전략이 적용될 수 있다.

‘용도’ 영역은 도시공간의 기능적 성격에 따라 구분된다. R(Residential, 주거지역)은 주거지 중심의 방범 전략으로, 자연감시 강화와 공동현관 보안, 방범창 설치 등 주택에 대한 물리적 침입 방지 대책이 핵심이다. C(Commercial, 상업혼재지역) 유형은 상업과 주거가 혼재된 지역에서 영역성을 명확히 하여 생활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거공간 진

입부의 색상·조명·구조를 차별화하고, 상가 골목이나 노점 밀집지에는 방법 인프라를 집중 배치하며, 시간대별 인구 밀도를 분석해 탄력적 순찰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환경’ 영역은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 등 비물리적 요인을 포함한다. P(Physical, 물리적 요인)는 물리적 환경의 취약 요소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둔다. 시야 확보형 설계, 범죄 유발 구조물 제거, 조명·CCTV·비상벨 등 공간환경 개선과 방범시설의 체계적 배치가 주요 전략이다. N(Non physical, 비물리적 요인)은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유대감 강화를 중심으로 한다. 주민 참여형 커뮤니티 프로그램(마을회의, 이웃지킴이 활동 등)을 활성화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커뮤니티 거점을 마련하며, 지역 SNS 기반의 실시간 안전 알림체계를 구축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특수성’ 영역은 지역 활동 지속성과 시간적 특성에 따라 구분된다. E(Everyday, 지속적 활동)은 24시간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상시 관계 체계를 구축하거나 주민 주도의 시설물 유지관리, 자율방범활동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T(Temporary, 일시적 활동)는 축제나 야시장 등 특정 시간대에 인구가 집중되는 공간을 대상으로, 임시 CCTV를 설치하거나 가로등 밝기 조정, 순찰 강화 등 특정 시간대에 집중된 가변적 대응 전략을 적용한다. 또한 임시 시설물이나 노점 주변에는 사전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고 및 범죄 발생 위험을 예방한다.

[표 1-4] 범죄예방환경 유형 지표(CPTI) 세부항목별 대응전략 및 요소 예시

영역	세부영역	대응전략	전략요소
인구	A 모든 연령층	다양한 세대 구성원의 연령층을 고려한 설계 및 정보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 조명/비상벨 등 방범 시설물 인식 및 활용 기능 강화 - AI 기반 통합모듈 설치(CCTV, 비상벨, 조명, 경광등)
	S 특정 계층	특정 세대, 계층을 고려한 중점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노인 등 계층 맞춤 공간계획 - 청소년 활동공간 확보 - 노인, 여성, 어린이 보호 우선 경로 지정
용도	R 주거 지역	주거지 중심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 주민 보호를 위한 자연감시 강화 - 사각지대 제거 - 공동현관 보안강화 - 방법창 설치
용도	C 상업혼재 지역	상업혼재 지역형 구획 (상업과 주거의 경계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역성 강화 - 주거공간 진입부 색상, 구조, 조명 차별화 • 혼합 지역 중심 방범 인프라 집중 - 상가 골목, 노점 밀집지 • 시간대별 인구 밀도 예측을 통한 탄력 순찰 운영
환경	P 물리적 요인	물리적 취약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 유발 구조물 제거 및 환경정비 • 시야확보 설계 • 조명, CCTV, 비상벨, 안내·경고판 등 배치
	N 비물리적 요인	비물리적 환경 대응 (사회적 관계 회복과 공동체 기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참여형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 마을회관 모임, 골목 회의, 이웃 지킴이 활동 등 • 취약계층 중심 커뮤니티 시설 확보 - 소외계층 대상 커뮤니티 거점 • 심리적 안전감 제공: 지역 SNS 기반 안전 알람 시스템 운영
특수성	T 일시적 활동	일시적 활동 대응 (시간·계절별 안전 취약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벤트·시장 등 일시적 집합 시 CCTV·가시성 일시 강화 - 축제 시 임시 CCTV, 탄력 순찰 - 야시장 개장 시 순찰 배치 및 조명 강화 • 가로등 밝기 조정, 임시 순찰 배치 등 가변적 대응계획 • 임시 무대·노점 주변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E 지속적 활동	지속적 활동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관제 및 대응 • 주민 주도의 가로등 및 시설물 유지 관리 확대 • 지역 공동체 중심의 자율 방법 활동 • 위험·안전 취약지역 접근 통제

16개 유형은 인구구성, 공간용도, 환경적 요인, 활동 특성의 조합에 따라 서로 다른 설계 전략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ARPE 유형과 SCNT 유형은 각각 물리적·사회적 측면에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ARPE 유형(All-Residential-Physical-Everyday)은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주거지역으로, 지속적 생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리적 방법환경의 질적 강화와 상시 관리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가시성 높은 골목 설계, 방범시설의 체계적 배치, 노후 담장과 울타리 개선을 통한 개방감을 확보하는 등 물리적 공간의 안전성 향상이 우선된다. 동시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유지관리 시스템을 통해 안전시설의 지속적 작동과 환경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반면 SCNT 유형(Specific-Commercial-Non-physical-Temporary)은 청소년·여성 등 특정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상업혼재지역으로, 시간대별로 인구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망 강화와 시간대별 탄력적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 지역 상인회, 학교, 자율방범대 등 지역공동체가 협력하여 특정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고, 야시장이나 축제 등이 개최될 시에는 임시 CCTV 및 조명설치를 통해 가시성을 높인다. 또한 지역 SNS나 커뮤니티 플랫폼을 활용해 실시간 안전정보를 공유하고, 여성·청소년 대상의 안전캠페인이나 심리적 안정 프로그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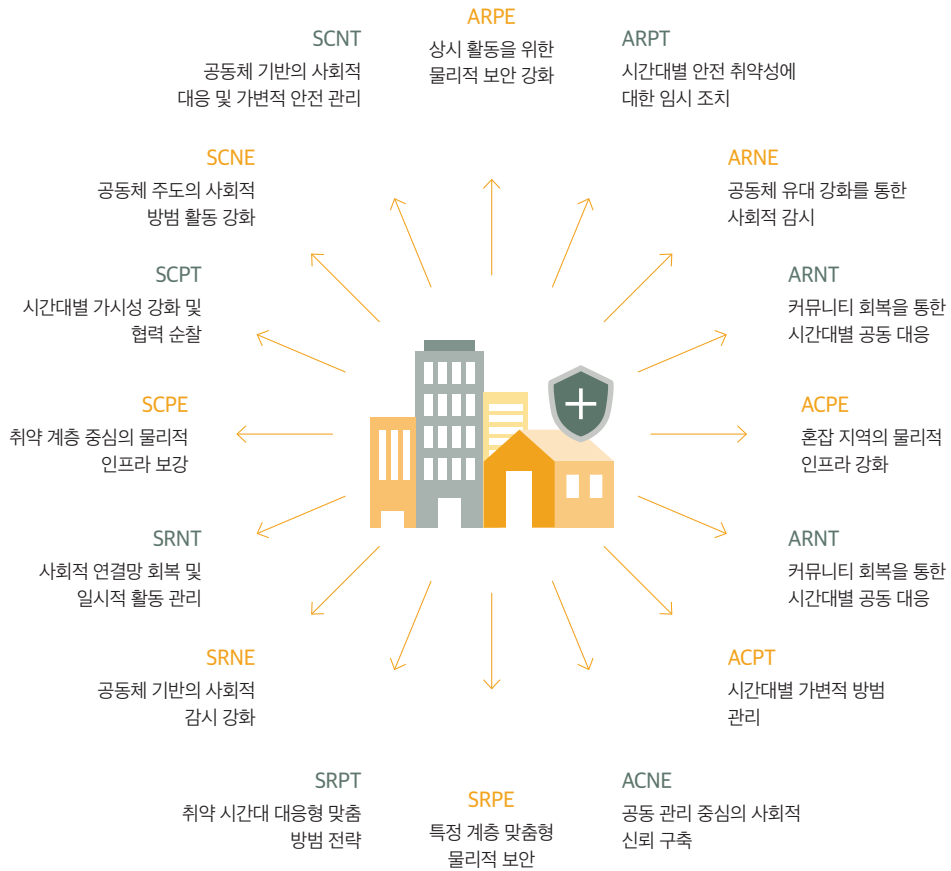
CPTI 유형은 지역의 공간적·사회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범죄 예방 환경설계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기준틀로 기능한다. 각 유형은 지역별 상황에 대응하는 설계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정책 수립과 현장 적용을 연결하는 실무적 가이드로서 의의를 갖는다. 아래 표에는 16개 CPTI 유형별 특성과 함께 유형별 핵심 설계전략 및 주요 적용 요소를 제시하였다.

[표 1-5] CPTI 유형별 특성 및 전략

유형	특성 요약	핵심 설계전략	주요 전략요소
ARPE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주거지역으로 상시 활동이 이루어지는 생활공간	물리적 방법환경 강화 및 지속적 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각지대 제거 및 가시성 확보형 골목 설계 • 가로등, CCTV, 비상벨 등 체계적 배치 • 노후 담장·울타리 개선 • 주민참여형 유지관리 프로그램 • 스마트 관제 및 실시간 모니터링
ARPT	다양한 연령층이 거주하지만 특정 시간대 활동이 집중되는 주거지역	시간대별 안전취약 대응 및 임시 방법조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계절별 조명 밝기 조정 • 이벤트·시장 개설 시 임시 CCTV 운영 • 주민 자율순찰 강화 • 임시 안내·경고판 설치
ARNE	공동체적 유대가 강한 주거지역으로 상시 이용되는 공간 수요가 많음	비물리적 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 감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네트워크 기반 상시 커뮤니케이션 • 공동체 중심의 안전 워크숍 운영 • 이웃지킴이 활동 • 주민 참여형 환경정비 프로그램
ARNT	사회적 관계망이 약한 주거지에서 특정 시간대에 활동 집중	커뮤니티 회복 기반의 시간대별 공동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 커뮤니티 순찰팀 운영 • SNS 기반 실시간 위험 알림체계 • 주민 참여형 임시 방법조명 설치 • 안전교육 및 인식 개선 캠페인
ACPE	다양한 세대가 이용하는 상업혼재지역으로 지속적 활동이 이루어짐	혼잡지역 중심 물리적 방법 인프라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주거 경계 명확화 • 주거 진입부 색상·조명 차별화 • 상시 순찰 및 조명 점검 • 상인회 중심 방법시설 유지관리
ACPT	상업밀집 지역으로 인구가 특정 시간대에 집중	시간대별 가변적 방법관리 및 안전가이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야시장 시 임시 CCTV 및 조명 설치 • 가로등 밝기 조정 • 야간 순찰 강화 및 임시 안전표시
ACNE	상업혼재지역에서 공동체 관계가 활발한 지속적 활동공간에 집중	사회적 신뢰 구축과 공동관리 중심의 방법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인회-주민협력 자율방범 조직 운영 • 커뮤니티 이벤트 통한 사회적 유대 강화 • 지역 안전협약 체결
ACNT	상업혼재지역에서 사회적 관계가 약하고 일시적 활동 집중	공동체 재생 기반의 시간대별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시장 중심 사회적 감시 체계 구축 • 안전 자원봉사단 운영 • SNS 실시간 신고 공유 시스템
SRPE	특정 계층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으로 물리적 안정성과 지속적 관리가 중요	특정 계층 맞춤형 물리적 보안 강화 및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여성·아동 보호 경로 조명 강화 • 노후주택 방법시설 보강 • 커뮤니티 안전감시 시스템 운영

유형	특성 요약	핵심 설계전략	주요 전략요소
SRPT	특정 계층 중심의 주거지로 시간대별 취약성이 존재	취약시간대 대응형 맞춤형 방범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귀가시간 맞춤 조명패턴 조정 야간 여성안심 귀가서비스 단독가구 대상 긴급대응 알림 시스템
SRNE	사회적 유대가 강한 특정계층 중심의 주거지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감시와 자율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커뮤니티 안전리더 운영 주민 참여형 방범시설 관리 공동체 행사와 연계된 범죄예방 교육
SRNT	사회적 유대가 약한 특정계층 주거지에서 일시적 활동 증가	사회적 연결망 회복 및 일시적 활동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노인 대상 안전캠페인 SNS 실시간 커뮤니티 알림 구축 단기 활동공간(임시시장 등) 안전 가이드 마련
SCPE	특정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상업혼재지역으로 상시 이용됨	취약계층 중심의 물리적 인프라 보강과 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안심가로등·CCTV 밀집 설치 상점가 내 안심비상벨 배치 상인·학교 협력 순찰 체계
SCPT	특정 계층이 이용하는 상업혼재지역으로 시간대별 활동 집중	시간대별 가시성 강화 및 협력기반 순찰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간 순찰 강화, 탄력순찰 운영 축제·야시장 시 임시 조명 설치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플랫폼
SCNE	특정 계층 중심의 상업혼재지역으로 사회적 유대가 강한 지속적 공간에 집중	공동체 주도의 사회적 방범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인회·주민 중심 커뮤니티 순찰 특정계층 대상 안전문화 프로그램 사회적 감시 기능 확산(학교, 점포 등)
SCNT	특정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상업혼재지역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약하고 일시적 활동이 집중됨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대응과 시간대별 가변적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여성 대상 안전 캠페인 지역 상인회·학교 협력 순찰체계 구축 축제·야시장 시 임시 CCTV 설치 지역 SNS 실시간 안전 알림 시스템 구축

[그림 1-4] 16개 CPTI 유형별 특성



II.



CPTI를 활용한 범죄취약환경 진단과 결과

-
1. 진단 개요
 2. CPTI 유형 분포 및 지역별 특성
 3. CPTI 항목별 특성

1. 진단 개요

전국 229개 시·군·구의 CPTI 유형 빈도·비율을 산출하고 시·도 단위 막대그래프 시각화해, 지역별 우세 유형과 특성 패턴을 도출했다. 수도권/비수도권, 도시/농산어촌, 인구감소/그 외 지역으로 분류해 유형의 집중·결핍과 위험요인(고령화, 공동체 약화, 물리적 방치 등)의 연관성을 비교·해석한다.


전국 229개 시·군·구 지역주민 6,3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CPTI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범죄예방 환경 특성의 분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로, 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20명씩 유의 할당 방식으로 표집하였다. 총 6,387명이 조사에 참여하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pm 1.23\%p$ 이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기간은 2025년 5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약 1.5주간이며, 조사 수행은 전문 여론조사기관이 전담하였다. 조사결과 분석은 229개 시·군·구 전체의 CPTI 유형 빈도와 비율을 산출하였고, 이를 막대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로 제시함으로써 지역별 CPTI 유형 분포와 특성 패턴을 도출하였다.

또한 오랫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로 언급되는 수도권지역(66곳)과 비수도권지역(163곳), 도시지역(174곳)과 농산어촌지역(55곳)⁶⁾, 그리고 인구감소지역(89곳)⁷⁾과 그 외 지역(140곳)을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⁸⁾, 이를 전국 평균값과 비교하여 비수도권, 비도시지역, 인구감소지역에 특정 유형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거나 결핍되는 경향을 탐색하였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공동체 해체, 고령화, 물리적 방치 현상과

- 6) 인구밀도 상위 75%를 도시(172개 시군구), 하위 25%를 농촌(57개 시군구)으로 정의한 연구(강신우(2022))를 참고하여, 통계청의 '도시지역 인구현황' 통계의 행정구역 인구기준 비율(전체인구 대비 도시인구)이 50% 미만인 행정구역으로 설정함
- 7) 「지방소멸위험지수」 또는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만 별도로 추출(<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 8) 전국 229개 시군구 지역 주민 응답자 수 6,387명에 대한 지역별 응답자 수 분포
 - 수도권지역 응답자수 : 2,032명, 비수도권지역 응답자수 : 4,355명
 - 도시지역 응답자수 : 5,262명, 농산어촌지역 응답자수 : 1,125명
 - 인구감소지역 응답자 수 : 2,058명, 그 외지역 응답자 수 : 4,329명


CPTI 결과의 연관성을 해석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구분별 유형 분석은 지역별 범죄예방 환경 수준에 따른 회복력 강화, 주민 체감안전도 향상, 장기적 환경관리 전략 수립 및 섹테드 적용 방향 설정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며, 향후 관련 법·제도 개선의 실증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림 2-1] 지역별 CPTI 진단 결과 분석 기준




인구감소지역 vs. 그 외 지역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의 CPTI유형과 특성 파악 인구감소지역의 특성(공동체 해체, 고령화, 시설방치 등)과 연계한 대응방안 모색



수도권지역 vs. 비수도권지역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CPTI유형과 특성 파악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특성과 연계한 대응방안 모색 (인구, 가구, 주택, 일자리, 개발 등)



도시지역 vs. 농산어촌지역

도시지역과 농산어촌지역의 CPTI유형과 특성 파악 도시지역과 농산어촌지역 특성과 연계한 대응방안 모색 (인구, 편의 및 기반시설, 방치 및 공동화)

수도권지역	
서울 (25)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광진구, 성동구, 중구, 종로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경기도 (31)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인천 (10)	중구, 동구, 서구, 계양구, 부평구,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 강화군, 옹진군

농산어촌지역	
도시 이외 지역 (55)	서천군, 창녕군, 고성군, 청도군, 함양군, 고성군, 보은군, 금산군, 양양군, 횡성군, 영동군, 영양군, 구례군, 부안군, 무주군, 고창군, 진안군, 강진군, 음성군, 순창군, 해남군, 고흥군, 진도군, 의령군, 화천군, 군위군, 울진군, 청양군, 담양군, 장수군, 인제군, 가평군, 강화군, 고령군, 장성군, 봉화군, 성주군, 남해군, 영덕군, 부여군, 양평군, 곡성군, 신안군, 임실군, 함평군, 합천군, 괴산군, 예천군, 의성군, 하동군, 청송군, 평창군, 산청군, 계룡시, 옹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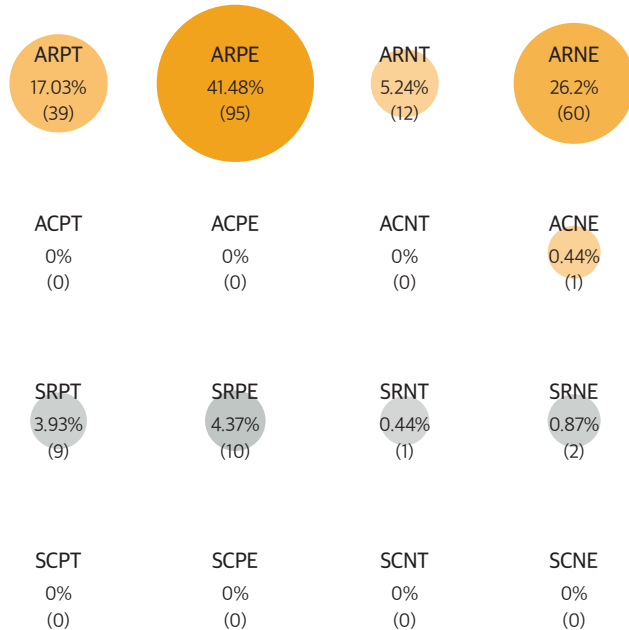
인구감소지역	
부산 (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2)	남구 서구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경기 (2)	가평군 연천군
강원 (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화천군 횡성군
충북 (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2. CPTI 유형 분포 및 지역별 특성

● 전국 CPTI 유형 분포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CPTI 유형은 전체 16개 중 9개의 특정 유형에만 집중된 특징을 보인다. 이 중 ‘ARPE’가 전체의 41.5%(95개)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어서 ‘ARNE’(26.2%, 60개), ‘ARPT’(17.0%, 39개) 순이다. 전반적으로 핵심타겟 인구 특성에서 ‘모든 연령층(A)’ 유형이 ‘특정 연령층(S)’ 대비 크게 높은 수준이며, 주요 용도 특성에서는 ‘주거 지역(R)’ 유형만이 관찰되었다.

[그림 2-2] 전국 CPTI 유형 현황 및 분포



● 권역별 CPTI 유형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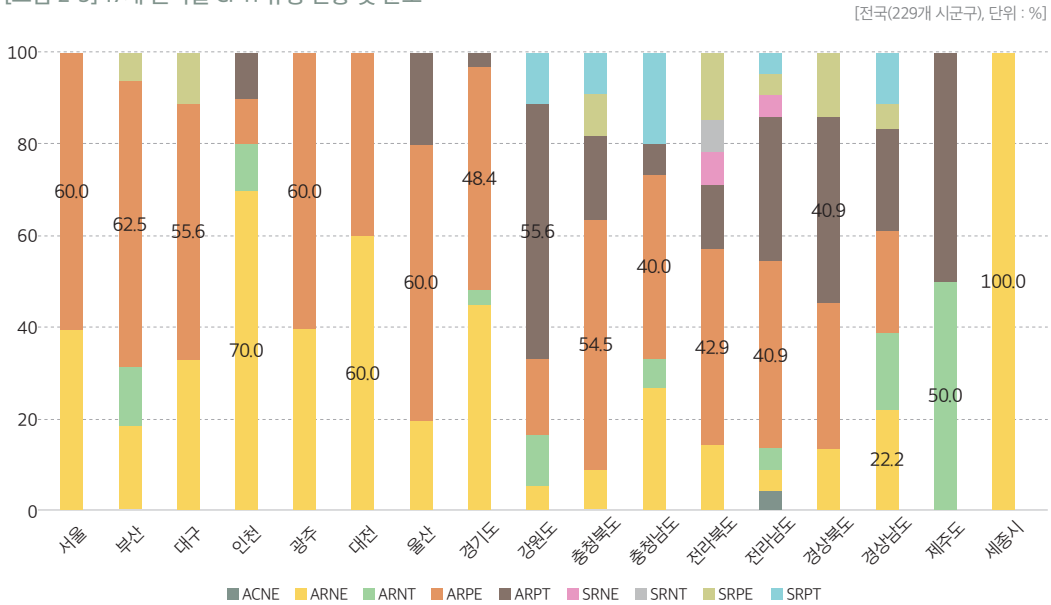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17개 광역시·도별로 구분하여 CPTI 유형 분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ARPE’ 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부산(62.5%), 서울(60.0%), 광주(60.0%), 울산(60.0%) 등 대도시 지역에서 ‘ARPE’ 유형의 비중이 타 지역 대비 뚜렷하게 높게 나타나, 대도시권이 모든 연령층이 거주하는 주거지역(A-R)을 기본 구조로 하면서 물리적 취약요소(P)와 일상적 특성(E)이 결합된 형태의 범죄예방 환경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대도시 지역이 인구밀도와 생활 편의시설 수준은 높지만, 동시에 노후화된 주거지·혼합용도지역 등에서의 물리적 취약요인(P)이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한다. 즉, 생활권 전반이 활발하나 방범시설 관리나 조명·골목 환경 등에서 지역 간 관리 편차가 크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물리적 개선 수요가 높은 지역 구조로 해석된다.

한편, 인천(70.0%)과 대전(60.0%)에서는 ‘ARNE’ 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두 지역 모두 산업·업무·주거가 혼재된 복합도시권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연령층(A)-주거지역(R)-비물리적 요인(N)-일상적 특성(E)’의 조합이 주민 간 교류 부족이나 사회적 단절 등 비물리적 안전취약성이 두드러진 형태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물리적 인프라는 양호하나, 공동체성 약화·야간활동 불균형 등 사회적 요인에 따른 범죄불안 요인이 상대적으로 큰 도시형 특성을 반영한다. 또한, 강원(55.6%)과 경북(40.9%) 지역에서는 ‘ARPT’ 유형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두 지역이 전국 평균 대비 인구감소지역 비중이 높고, 농산어촌 중심의 생활권 구조를 가지고 있어 물리적 취약요소(P)와 일시적 특성(T)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계절별 인구 유입이나 관광형 산업지의 비중이 높고, 상시적 생활권 관리가 미흡한 점이 범죄예방 환경의 주요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하면 대도시권(서울·부산·광주·울산 등)은 ‘ARPE’ 중심의 생활형·물리취약 구조, 중대도시권(인천·대전 등)은 ‘ARNE’ 중심의 사회적 단절형 구조, 비도시권(강원·경북 등)은 ‘ARPT’ 중심의 물리적·계절적 복합취약 구조로 구분된다. 이는 CPTI 유형이 단순히 지역의 물리적 환경 수준뿐 아니라, 인구구조·사회적 연계성·생활양식·지역경제의 특성 등 내부적 요인과 도시화 수준·인구이동·산업구조 변화 등 외부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권역별 셉테드 정책은 대도시권: 노후주거지 및 혼합용도 지역의 물리적 환경개선 중심 전략, 중대도시권: 공동체 회복·사회적 안전망 강화 중심 전략, 비도시권: 계절·일시적 인구 변동에 대응하는 상시 관리체계 구축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고 공통 과제로 지역별 CPTI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효과의 주기적 평가 및 분석이 요구된다.

[그림 2-3] 17개 권역별 CPTI 유형 현황 및 분포



[표 2-1] 17개 권역별 CPTI 유형 현황 및 분포

(단위: %)

구분	시군구 (개)	ARPT	ARPE	ARNT	ARNE	ACPT	ACPE	ACNT	ACNE	SRPT	SRPE	SRNT	SRNE	SCPT	SCPE	SCNT	SCNE
전국	229	17.0	41.5	5.2	26.2	0.0	0.0	0.0	0.4	3.9	4.4	0.4	0.9	0.0	0.0	0.0	0.0
서울	25	0.0	60.0	0.0	4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부산	16	0.0	62.5	12.5	18.8	0.0	0.0	0.0	0.0	0.0	6.3	0.0	0.0	0.0	0.0	0.0	0.0
대구	9	0.0	55.6	0.0	33.3	0.0	0.0	0.0	0.0	0.0	11.1	0.0	0.0	0.0	0.0	0.0	0.0
인천	10	10.0	10.0	10.0	7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광주	5	0.0	60.0	0.0	4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대전	5	0.0	40.0	0.0	6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울산	5	20.0	60.0	0.0	2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경기	31	3.2	48.4	3.2	45.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강원	18	55.6	16.7	11.1	5.6	0.0	0.0	0.0	0.0	11.1	0.0	0.0	0.0	0.0	0.0	0.0	0.0
충북	11	18.2	54.5	0.0	9.1	0.0	0.0	0.0	0.0	9.1	9.1	0.0	0.0	0.0	0.0	0.0	0.0

구분	시군구 (개)	ARPT	ARPE	ARNT	ARNE	ACPT	ACPE	ACNT	ACNE	SRPT	SRPE	SRNT	SRNE	SCPT	SCPE	SCNT	SCNE
충남	15	6.7	40.0	6.7	26.7	0.0	0.0	0.0	0.0	20.0	0.0	0.0	0.0	0.0	0.0	0.0	0.0
전북	14	14.3	42.9	0.0	14.3	0.0	0.0	0.0	0.0	0.0	14.3	7.1	7.1	0.0	0.0	0.0	0.0
전남	22	31.8	40.9	4.5	4.5	0.0	0.0	0.0	4.5	4.5	4.5	0.0	4.5	0.0	0.0	0.0	0.0
경북	22	40.9	31.8	0.0	13.6	0.0	0.0	0.0	0.0	0.0	13.6	0.0	0.0	0.0	0.0	0.0	0.0
경남	18	22.2	22.2	16.7	22.2	0.0	0.0	0.0	0.0	11.1	5.6	0.0	0.0	0.0	0.0	0.0	0.0
제주	2	50.0	0.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세종	1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

“인구감소지역은 물리적 환경 취약성(P), 특정 연령층 중심의 인구 구조(S), 일시적·계절적 변동(T)이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적 취약지역 구조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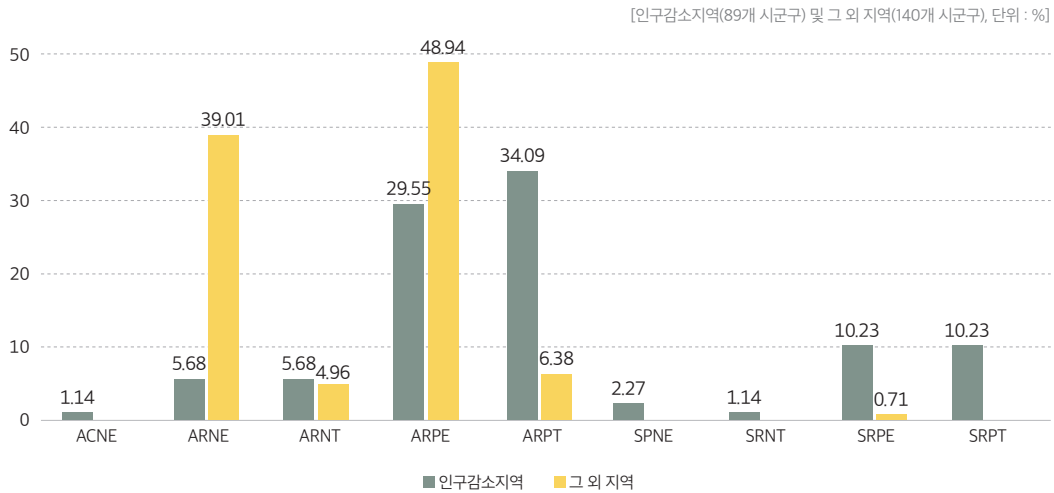
인구감소지역의 CPTI 유형 분포를 분석한 결과, 전체 16개 유형 중 9개 유형이 나타났으며, 그 중 ‘ARPT’ 유형이 33.7%(30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ARPE’(29.2%, 26개), ‘SRPE’(11.2%, 10개), ‘SRPT’(10.1%, 9개) 순으로 나타나, 전체의 약 85%가 네 가지 유형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16개 유형 중 단 4개 유형만이 분포하였는데 ‘ARPE’(49.3%, 69개)와 ‘ARNE’(39.3%, 55개) 두 유형이 대부분(약 90%)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감소지역의 사회·공간적 다양성과 복합적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인구감소지역은 생활권 전반이 ‘모든 연령층이 거주하는 주거지역(A-R)’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물리적 취약요인(P)’과 ‘일시적 특성(T)’ 또는 ‘일상적 특성(E)’이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 내 노후주택, 빈집, 어두운 보행로 등 물리적 환경의 열악함과 더불어 인구 유출, 고령화, 계절적·일시적 인구변동 등 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예측할 수 있다. 특히 ‘ARPT’ 유형이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물리적 환경개선과 동시에 지역의 상시적 안전 체계 확보가 미흡함을 시사한다.

한편,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의 특성별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난다. 첫째, 핵심 타겟 인구 특성에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모든 연령층(A)’뿐만 아니라 ‘특정 연령층(S)’ 유형이 함께 나타나는데, 이는 일부 지역에서 고령자·여성·청년 등 특정 계층에 집중된 인구 구조 불

균형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반면, 그 외 지역은 ‘모든 연령층(A)’으로 평가되어 인구구성이 비교적 균형적임을 보여준다. 둘째, 특수성(Specific) 영역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이 ‘일시적(T)’과 ‘일상적(E)’ 유형이 유사한 비율로 나타난 반면, 그 외지역은 ‘일상적(E)’이 ‘일시적(T)’보다 뚜렷하게 높았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이 계절적 유입 인구나 한시적 거주 인구에 상대적으로 더 의존하는 생활권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4] 인구감소지역·그 외지역 CPTI 유형 현황 및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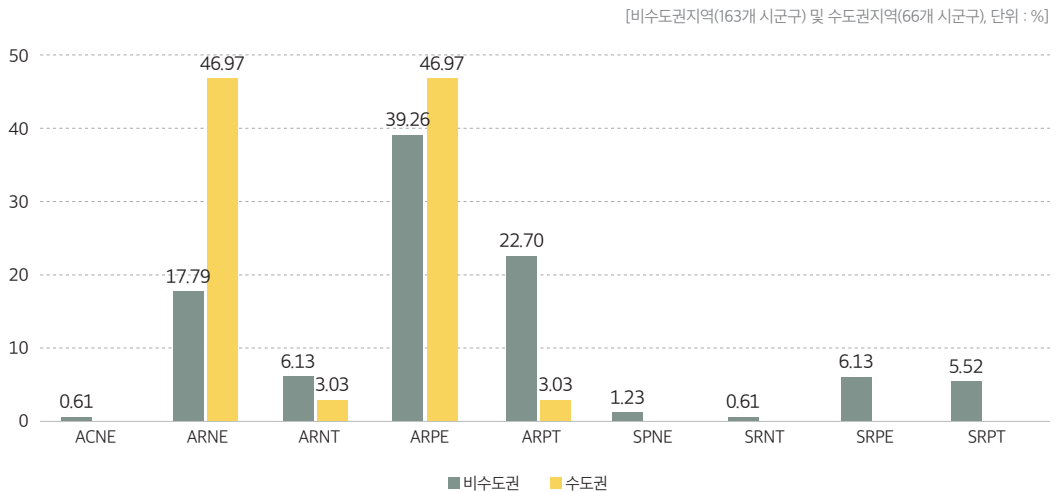
● 비수도권지역과 수도권지역

“비수도권은 ‘생활권 중심의 일상성(E)’과 ‘일시적 인구 이동(T)’이 공존하는 지역 구조 속에서, 물리적 환경 취약성(P)과 인구 구조적 불균형(S)이 범죄예방 환경의 주요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비수도권지역의 CPTI 유형 분포를 분석한 결과, 전체 16개 유형 중 9개 유형이 나타났으며, 이 중 ‘ARPE’ 유형이 39.3%(64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ARPT’(22.7%, 37개), ‘ARNE’(17.8%, 29개), ‘ARNT’(6.1%, 10개), ‘SRPE’(6.1%, 10개) 순으로 나타나, 상위 다섯 유형이 전체의 약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수도권지역에서는 16개 유형 중 4개 유형만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중 ‘ARNE’(47.0%, 31개)와 ‘ARPE’(47.0%, 31개) 두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수도권은 유형 다양성이 낮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일상적인 주거 중심 지역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비수도권지역에서 ‘ARPE’ 유형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대부분의 시군구가 모든 연령층이 거주하는 주거지역(A-R)을 기본 구조로 가지면서도, 물리적 취약요소(P)와 일상적 생활권(E)이 공존하는 지역 특성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즉, 비수도권은 생활 기반은 지역 내부에 존재하지만, 노후화된 주거환경이나 미비한 방범시설 등 물리적 취약요소가 잔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ARPT’ 유형(22.7%)의 높은 비율은, 이들 지역 중 상당수가 관광형 도시나 지역 축제, 계절적 이동 인구 등 일시적 요인(T)을 함께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5] 수도권·비수도권지역 CPTI 유형 현황 및 분포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성별 비교 결과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첫째, 핵심 타겟 인구 특성에서 비수도권에서는 ‘특정 연령층(S)’ 유형이 일부 시군구에서 확인된 반면, 수도권은 전 지역이 ‘모든 연령층(A)’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수도권이 고령층·청년층·여성 등 특정 계층에 편중된 인구구조를 보이며, 지역 간 인구 구성의 불균형이 수도권보다 심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특수성(Specific) 측면에서 비수도권이 ‘일상적(E)’과 ‘일시적(T)’이 함께 나타난 반면, 수도권은 ‘일상적(E)’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는데 비수도권이 상시 거주민 중심의 생활권과 계절적·이벤트성 활동이 혼재된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일시적 방문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범피취약성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 즉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물리적 기반시설 노후화(P)와 인구

구조의 불균형(S), 그리고 일시적 유입 인구에 따른 공간적 불안정성(T)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비수도권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전략은 단순한 시설 보완을 넘어 노후 주거지 개선 및 공공방법 인프라 확충, 고령자·청년층 등 특정 계층 맞춤형 안전 프로그램 운영, 계절·행사기 반 일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농산어촌지역과 도시지역

“농산어촌지역은 노후화된 물리환경(P)과 인구고령화(S), 일시적 인구변동(T)이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적 범죄취약구조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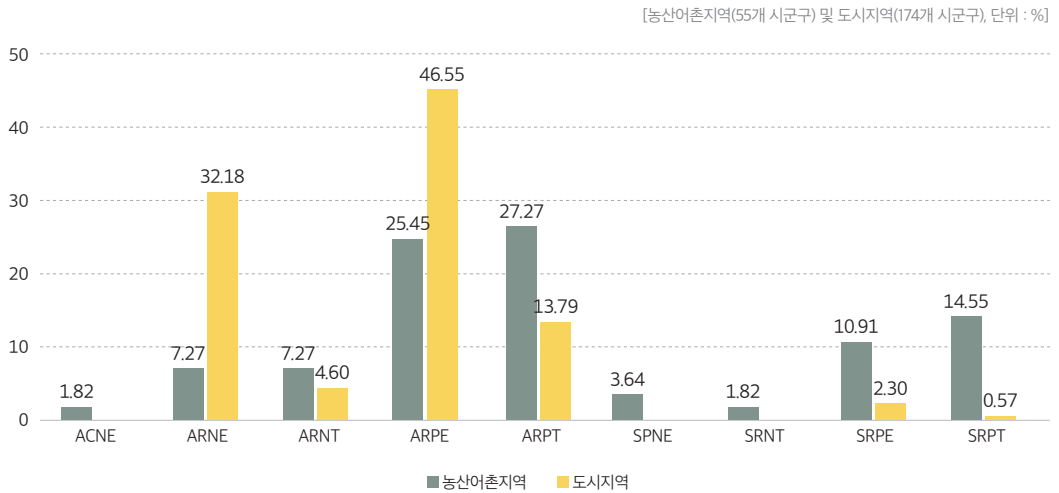
농산어촌지역의 CPTI 유형 분포를 분석한 결과, 전체 16개 유형 중 9개 유형이 나타났으며, 이 중 ‘ARPT’ 유형이 27.3%(15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ARPE’(25.5%, 14개), ‘SRPT’(14.5%, 8개), ‘SRPE’(10.9%, 6개) 순으로 나타나 상위 네 가지 유형이 전체의 약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도시지역에서는 16개 유형 중 6개 유형만이 분포하였으며, 이 중 ‘ARPE’(46.6%, 81개)와 ‘ARNE’(32.2%, 56개) 두 유형이 대부분(약 79%)을 차지하였다. 즉 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집중적이고 안정적인 범죄예방 환경 구조를 갖는 반면, 농산어촌지역은 보다 다양한 유형이 혼재된 복합적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농산어촌지역에서 ‘ARPT’와 ‘ARPE’ 유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들 지역이 대체로 모든 연령층이 거주하는 주거지역(A-R)을 기본 구조로 가지면서 물리적 취약요인(P)과 일시적(T) 또는 일상적(E)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농산어촌지역의 노후 주거지, 빈집, 취약한 조도환경 등 물리적 열약성과 더불어, 농번기·축제·계절근로자 유입 등 일시적 인구 변동이 함께 작용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농산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의 특성별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난다. 첫째, 핵심 타겟 인구 특성에서 농산어촌지역은 ‘특정 연령층(S)’이 관찰되는 반면, 도시지역은 대부분이 ‘모든 연령층(A)’으로 확인된다. 농산어촌지역이 고령층 중심의 인구 구조를 보이며 청년·여성·외국인 근로자 등 일부 계층이 계절적·한시적으로 거주하는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둘째, 특수성(Specific) 측면에서 농산어촌지역은 ‘일시적(T)’과 ‘일상적(E)’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도시지역은 ‘일상적(E)’이 뚜렷한 것으로 보아 농산어촌지역이 일상적인 생활

권 유지와 계절·이벤트 중심의 일시적 활동이 공존하는 이중 구조임을 보여준다. 즉, 평시에는 주민 중심의 조용한 생활권이지만, 농번기, 축제, 관광 등 특정 시기에는 외부인 유입이 급증하며 이에 따른 일시적 범죄·불안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포는 농산어촌지역의 범죄예방 환경이 물리적 취약성(P), 고령화(S), 계절적 이동성(T) 등 내·외부적 요인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농산어촌의 CPTI 특성은 ‘ARPT’ 유형을 중심으로 한 복합 취약 구조이며, 이는 단순 시설 개선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기초생활권 중심의 방법 인프라 확충(가로등·CCTV 등 기초 방법시설), 고령층 대상 안전서비스 강화(응급대응체계, 공동생활형 안전공간 조성), 계절 근로자·관광객 등 일시적 인구 대응체계 마련(지역 순찰·임시방범활동 강화), 주민참여형 셉테드 프로그램 활성화(마을단위 자율방범대, 안전캠페인 등)와 같은 물리적, 비물리적 전략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2-6] 농산어촌지역 CPTI 유형 현황 및 분포



3. CPTI 항목별 특성

지역별 유의미한 항목

전국 대비 각 지역의 CPTI 설문 문항별 평균 점수를 비교한 결과, 1점 이상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문항은 농산어촌지역에서 5개, 인구감소지역에서 1개로 확인되었으며, 비수도권·수도권·도시지역 및 그 외 지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전반적인 지역 간 인식 차이는 크지 않으나, 농산어촌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서 특정 항목에 집중된 구조적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특히 모든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그중에서도 농산어촌지역이 전국 평균 대비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해당 문항은 '연령층 다양성(문항1-1)', '청년 인구(문항2-1)', '청년 인구(문항2-5)', '아파트 비중(문항3-2)', '야간 유동인구(문항4-5)' 이다.

● 농산어촌지역

인구 구성과 관련된 질문으로 '우리 지역은 모든 연령층이 고루고루 거주하고 있다' 문항은 전국 3.73점 대비 2.64점으로 1.09점 낮아,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지 못하고 고령화 및 특정 연령층 집중 현상이 심화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우리 지역은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이 많다' 문항은 전국 3.72점 대비 2.52점으로 1.20점 낮게 나타났는데 최근 대두되는 저출산 등 사회 문제를 고려할 때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 학교 축소 문제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지역은 대학생이나 청년이 많이 생활한다' 문항은 3.18점 대비 2.09점으로 가장 큰 차이(-1.09점)를 보였다. 이는 청년층의 유출 및 지역 내 일자리 부족이 농산어촌의 인구유지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나타낸다. '우리 지역은 대부분이 아파트이다' 문항은 전국 3.97점 대비 2.81점으로, 농산어촌지역 물리적 주거환경이 아파트보다 저층·노후주택이 다수임을 추측할 수 있다. '우리 지역은 야간이나

심야시간대에 사람이 많다' 문항은 전국 3.15점 대비 2.02점으로 1.13점이 낮는데, 야간 유동인구 감소 및 생활 활동의 단조로움으로 인해 범죄예방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농산어촌지역이 청년층 인구 유출, 고령층 집중, 노후 주거지 중심의 저밀도 구조, 야간활동 감소로 인한 방법 취약성이라는 내·외부적 구조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은 '우리 지역은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이 많다' 문항이 전국 3.72점 대비 2.69점으로 1점 이상의 유의미한 격차를 보였다. 이는 인구 감소지역 또한 출생률 저하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심하게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농산어촌지역과 달리 생활권 인식이나 주거유형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수도권지역의 경우 인구 및 생활환경의 균형도가 높아 문항별 편차가 작고, 생활권 안정성과 다양성이 동시에 확보된 구조를 보였다. 비 수도권과 도시지역은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일부 문항에서 물리적 취약요소(P)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시설·환경 개선 수요가 내재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농산어촌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구조의 왜곡과 생활권 축소로 인해 범죄예방 인식 및 공간활동 수준이 낮은 구조적 취약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결과는 CPTI가 단순한 인식조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간 인구·생활·환경의 불균형을 계량적으로 드러내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2-2] 전국 및 지역구분 문항별 점수 비교

(단위: 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질문	전국	인구 감소 지역	그 외 지역	비 수도권	수도권	농산 어촌 지역	도시 지역	
인구 계층	인구 구성		1-1. 우리 지역은 모든 연령층이 고루고루 거주하고 있다	3.73	2.77	4.34	3.43	4.47	2.64	4.08	
			1-2. 우리 지역은 남녀 인구 비율이 비슷하다	4.10	3.54	4.45	3.91	4.57	3.42	4.32	
			1-3. 우리 지역은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의 비율이 높다	5.42	5.69	5.25	5.48	5.26	5.75	5.31	
	모든 계층		1-4. 우리 지역은 지역 내에서 다양한 연령층이 마을 반사회나 행사 참여 등을 통해 교류하고 있다	3.74	3.64	3.81	3.71	3.84	3.72	3.75	
		생활 특성	1-5. 우리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지역 내에서 생활하고 있다	4.57	4.74	4.46	4.65	4.35	4.83	4.48	
			1-6. 우리 지역은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 약국,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이 많다	4.28	3.58	4.71	4.08	4.75	3.44	4.54	
			1-7. 우리 지역은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을 충분히 고려한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4.93	4.88	4.96	4.93	4.93	4.91	4.94	
		니즈 파악		1-8. 우리 지역은 다양한 연령층이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4.93	4.89	4.95	4.91	4.96	4.86	4.95
				1-9. 우리 지역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범죄예방에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5.06	5.05	5.07	5.06	5.06	5.04	5.07
인구 계층	인구 구성		2-1. 우리 지역은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이 많다	3.72	2.69	4.36	3.43	4.43	2.52	4.09	
			2-2. 우리 지역은 여성이 많다	4.10	3.93	4.21	4.05	4.24	3.93	4.16	
			2-3. 우리 지역은 고령자가 많다	5.55	6.17	5.16	5.71	5.15	6.25	5.33	
	생활 특성		2-4. 우리 지역은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한다	4.27	4.26	4.27	4.28	4.22	4.28	4.26	
			2-5. 우리 지역은 대학생이나 청년이 많이 생활한다	3.18	2.32	3.71	2.92	3.80	2.09	3.52	
			2-6. 우리 지역은 외국인 거주자나 근로자가 많다	4.38	4.70	4.19	4.51	4.08	4.71	4.28	
			2-7. 우리 지역은 아동과 청소년 중심의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5.06	4.97	5.12	5.05	5.10	4.93	5.11	
		니즈 파악		2-8. 우리 지역은 고령자 중심의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5.14	5.29	5.05	5.19	5.03	5.32	5.09
				2-9. 우리 지역은 여성이나 1인 가구 중심의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5.05	5.05	5.06	5.06	5.04	5.05	5.06
용도 지역	주거 지역	용도 구성	3-1. 우리 지역은 대부분이 저층 주거지역이다	4.24	4.89	3.84	4.38	3.91	5.06	3.98	
			3-2. 우리 지역은 대부분이 아파트이다	3.97	3.05	4.54	3.78	4.41	2.81	4.33	
			3-3. 우리 지역은 주거지역 주변에 시장과 마트, 상점이 많다	4.12	3.42	4.56	3.96	4.52	3.20	4.4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질문	전국	인구 감소 지역	그 외 지역	비 수도권	수도권	농산 어촌 지역	도시 지역	
주거 지역	입지 특성		3-4. 우리 지역 보행자가 다니기 안전하게 조성, 관리되고 있다	4.29	3.83	4.57	4.18	4.55	3.82	4.43	
			3-5. 우리 지역은 주거 지역 내 공원이나 녹지가 안전하게 조성, 관리되어 있다	4.52	4.18	4.73	4.43	4.74	4.19	4.62	
			3-6. 우리 지역은 주거 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4.53	4.41	4.41	4.41	4.60	4.48	4.55	
			3-7. 우리 지역은 원룸, 다세대주택 등 주거지 중심의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4.78	4.60	4.90	4.74	4.89	4.50	4.88	
		니즈 파악	3-8. 우리 지역은 아파트 주거지 중심의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4.60	4.33	4.77	4.57	4.67	4.20	4.72	
			3-9. 우리 지역은 주거지 인근 시장, 상점 중심의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4.67	4.53	4.75	4.65	4.72	4.50	4.72	
	용도 지역	구성		4-1. 우리 지역은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많다	3.72	3.03	4.15	3.54	4.16	2.89	3.98
				4-2. 우리 지역은 공장 및 제조시설이 많다	3.35	3.00	3.57	3.32	3.42	2.86	3.50
				4-3. 우리 지역은 군부대, 유원지 같은 특수시설이 있다	3.43	3.54	3.37	3.45	3.39	3.50	3.41
	상업 혼재 지역	입지 특성		4-4. 우리 지역은 술집, 노래방 등 유흥시설이 밀집한 구역이 있다	3.87	3.47	4.12	3.80	4.05	3.20	4.08
			4-5. 우리 지역은 야간이나 심야시간대에 사람이 많다	3.15	2.28	3.70	2.92	3.74	2.02	3.51	
		4-6. 우리 지역은 상업, 업무 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4.26	4.14	4.34	4.23	4.34	4.18	4.29		
		4-7. 우리 지역은 상업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4.57	4.40	4.67	4.53	4.66	4.32	4.65		
	니즈 파악	4-8. 우리 지역은 공장 및 제조시설 중심의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4.03	3.99	4.05	4.06	3.94	3.89	4.07		
		4-9. 우리 지역은 야간이나 심야시간대에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4.63	4.36	4.80	4.59	4.73	4.20	4.77		
취약 환경	물리적	위해 요인	5-1. 우리 지역은 빈집이나 외부 침입이 쉬운 노후 주택이 많다	4.62	5.34	4.17	4.82	4.13	5.41	4.37	
			5-2. 우리 지역은 빈 점포 또는 방치되어 있는 땅이 많다	4.41	5.00	4.05	4.64	3.85	5.04	4.22	
			5-3. 우리 지역은 막다른 골목이나 후미진 곳이 많다	4.46	4.91	4.18	4.58	4.15	4.92	4.31	
	기존 시설 및 활용		5-4. 우리 지역은 가로등이 부족하거나 조명이 어두운 차도와 보행로가 많다	4.50	5.03	4.17	4.65	4.12	5.13	4.30	
			5-5. 우리 지역은 공공 CCTV가 별로 없다	4.12	4.54	3.87	4.25	3.81	4.62	3.97	
			5-6. 우리 지역은 자율방범대, 파출소, 치안센터, 지구대와 같은 치안시설이 적다	4.42	4.69	4.25	4.50	4.20	4.79	4.30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질문	전국	인구 감소 지역	그 외 지역	비 수도권	수도권	농산 어촌 지역	도시 지역
물리적	니즈 파악	5-7. 우리 지역은 가로등을 추가하고 어두운 조명은 밝은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5.00	5.23	4.85	5.07	4.81	5.27	4.91	
		5-8. 우리 지역은 빈집 또는 주거 등의 건물에 침입 범죄를 예방하는 시설이 필요하다	4.84	5.15	4.64	4.94	4.59	5.19	4.73	
		5-9. 우리 지역은 자율방범대, 파출소, 치안센터, 지구대와 같은 치안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4.79	4.86	4.74	4.82	4.69	4.87	4.76	
취약 환경	비 물리적	6-1. 우리 지역은 주민들이 자주 모이거나 교류하지 않는다	4.29	4.12	4.40	4.24	4.40	4.04	4.37	
		위해 요인	6-2. 우리 지역은 악물이나 술 취한 행인이나 노숙자들을 빈번하게 볼 수 있다	3.20	3.06	3.29	3.14	3.33	2.93	3.28
		6-3. 우리 지역은 사람들 간의 다툼이 발생하는 편이다	3.32	3.29	3.34	3.30	3.37	3.20	3.36	
	기존 시설 및 활용	6-4. 우리 지역은 자율방범대, 주민순찰대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방법 활동이 적다	4.22	4.19	4.24	4.20	4.26	4.19	4.23	
		6-5. 우리 지역에는 경찰의 순찰이나 범죄예방 등의 경찰 활동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4.31	4.33	4.30	4.33	4.27	4.36	4.30	
		6-6. 우리 지역은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활동 지원이 부족하다	4.48	4.55	4.43	4.51	4.39	4.55	4.45	
		6-7. 우리 지역은 자율방범대 등 주민 자율의 범죄 예방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	4.82	4.86	4.80	4.84	4.77	4.90	4.80	
		니즈 파악	6-8. 우리 지역은 경찰의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을 더 자주 할 필요가 있다	4.92	4.94	4.91	4.93	4.89	4.96	4.91
		6-9. 우리 지역은 주민들이 안전을 주제로 자주 모이고 교류할 수 있는 행사나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다	4.70	4.75	4.66	4.73	4.61	4.78	4.67	
활동 일시적	상시성	7-1. 우리 지역은 휴가철 등 계절에 따라 방문하는 사람이 많다	4.26	4.96	3.82	4.53	3.58	5.03	4.02	
		7-2. 우리 지역은 지역 축제 등 이벤트에 따라 방문하는 사람이 많다	4.56	5.20	4.16	4.79	3.99	5.26	4.34	
		7-3. 우리 지역은 특정 시기에 잠시 거주 또는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3.95	4.25	3.77	4.08	3.65	4.34	3.83	
	7-4. 지역 주민들은 한시적 지역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4.39	4.72	4.18	4.52	4.07	4.80	4.26		
	지역 수용성	7-5. 우리 지역은 한시적 지역 행사에 필요한 시설이나 공간들이 많은 편이다	4.12	4.27	4.03	4.18	3.97	4.29	4.07	
	7-6. 우리 지역은 한시적 지역 행사나 이벤트 때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4.47	4.51	4.45	4.49	4.43	4.55	4.45		
	니즈 파악	7-7. 우리 지역은 한시적인 지역 행사의 범죄예방(범죄안전)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4.69	4.82	4.61	4.74	4.56	4.84	4.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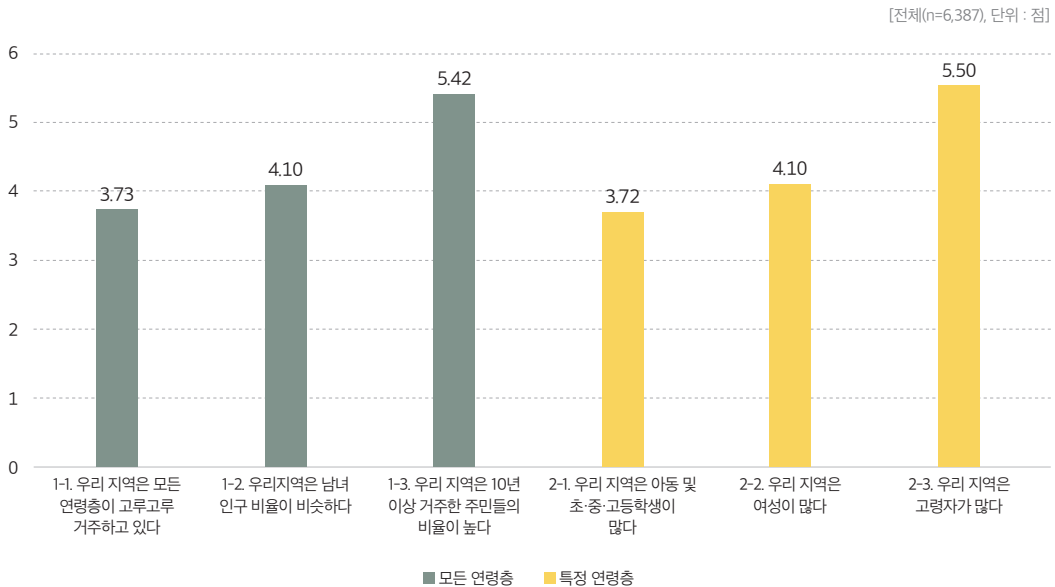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질문	전국	인구 감소 지역	그 외 지역	비 수도권	수도권	농산 어촌 지역	도시 지역
일시적	니즈 파악	7-8. 우리 지역은 계절별로 방문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 범죄예방(범죄안전)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4.67	4.89	4.52	4.76	4.43	4.93	4.58	
		7-9. 우리 지역은 각종 행사나 계절별로 운영되는 범죄예방(범죄안전)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	4.74	4.88	4.65	4.81	4.57	4.92	4.68	
상시성		8-1. 우리 지역은 떠나지 않고 이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거나 거주하고 싶은 주민이 많은 편이다	4.70	4.54	4.79	4.64	4.84	4.61	4.72	
		8-2. 우리 지역은 휴가철이나 이벤트에 따른 관광객이 많이 몰리지 않는 지역이다	4.19	3.73	4.48	4.05	4.56	3.71	4.35	
		8-3. 우리 지역은 신개발 등 급격한 물리적 변화가 적은 지역이다	4.85	5.14	4.67	4.94	4.63	5.18	4.74	
활동		8-4. 우리 지역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범죄예방(범죄안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4.38	4.23	4.47	4.35	4.45	4.21	4.43	
일상적	지역 수용성	8-5. 우리 지역은 범죄예방을 위해 파출소 또는 지역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의 지원과 관심이 있는 편이다	4.31	4.18	4.40	4.28	4.41	4.17	4.36	
		8-6. 우리 지역은 사람이 붐비지 않는 시기에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4.54	4.49	4.57	4.54	4.54	4.55	4.54	
		8-7. 우리 지역은 일상적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율방범대 사무소 등 시설 및 공간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	4.80	4.80	4.80	4.81	4.78	4.80	4.80	
		8-8. 우리 지역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범죄예방 활동을 더욱 지원하여야 한다	4.76	4.79	4.74	4.79	4.70	4.83	4.74	
		8-9. 우리 지역은 일상적 주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상시적 범죄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4.80	4.84	4.78	4.83	4.74	4.84	4.79	

항목별 특성 해석

● 핵심타겟인구1. 인구 구성

‘핵심타겟인구’ 영역 중 ‘인구 구성’에 해당하는 6개 항목의 전국 평균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특정 연령층(S)’에 속하는 ‘우리 지역은 고령자가 많다’ 항목이 5.5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든 연령층(A)’에 속하는 ‘우리 지역은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의 비율이 높다’(5.42점), ‘우리 지역은 남녀 인구 비율이 비슷하다’(4.10점), ‘특정 연령층(S)’에 속하는 ‘우리 지역은 여성이 많다’(4.10점)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전국적으로 장기 거주민 비율이 높고 고령층 인구가 많은 구조적 특징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지역 간 성비 인식은 비교적 비슷한 편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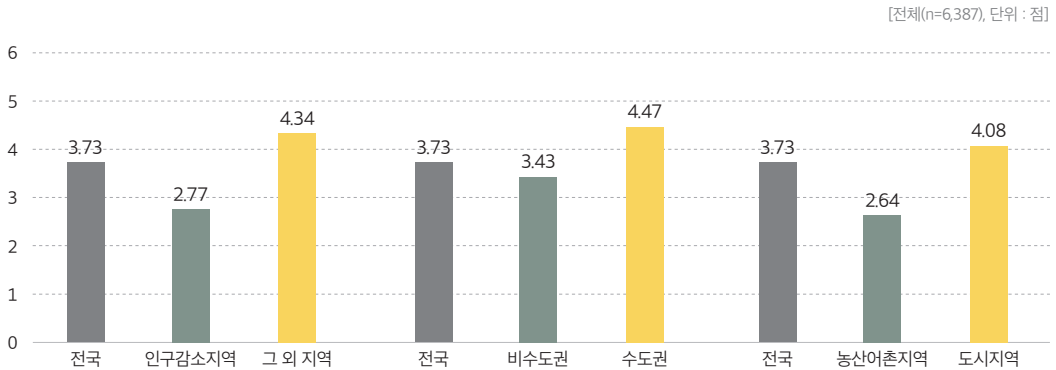
[그림 2-7] 핵심타겟인구: 인구 구성 영역 항목별 결과(전국)



‘우리 지역은 모든 연령층이 고루고루 거주하고 있다(문항1-1)’에 대한 지역별 비교에서는 전국 평균 3.73점 대비 인구감소지역이 2.77점으로 0.97점 낮게, 그 외 지역은 4.34점으로 0.60점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특정 연령층(특히 고령자)에 인구가 편중되어 세대 구성의 불균형이 심화된 반면, 그 외 지역은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권역별로는 비수도권이 3.43점, 수도권이 4.47점으로 나타나 수도권의 연령층 다양성이 비수도권보다 높다. 특히 농산어촌지역은 2.64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1.10점 낮아 가장 큰 격차를 보였으며, 도시

지역은 4.08점으로 0.35점 높게 나타나, 농산어촌지역이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중첩된 지역으로서 연령층 불균형이 가장 두드러지는 지역임을 보여준다(그림 2-8).

[그림 2-8] 지역구분별 점수 비교(문항1-1. 우리 지역은 모든 연령층이 고루고루 거주하고 있다)



‘우리 지역은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이 많다(문항 2-1)’에 대한 지역별 결과에서는 전국 평균 3.72점에 비해 인구감소지역이 2.69점으로 1.03점 낮게, 그 외 지역은 4.36점으로 0.64점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청소년 인구 부족이 뚜렷하게 드러난 결과이다. 비수도권은 3.43점으로 전국 대비 0.29점 낮고, 수도권은 4.43점으로 0.71점 높게 나타나 수도권에 학령인구가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농산어촌지역은 2.52점으로 전국보다 1.19점 낮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도시지역은 4.09점으로 0.38점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곧 농산어촌에서는 학령기 인구의 절대적 부족을 의미하며 그로 인한 학교 통폐합 및 통학거리 증가 등으로 이어져 청년 세대의 생활 기반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그림 2-9).

이와 같은 결과는 인구감소지역과 농산어촌지역이 공통적으로 청년·아동층의 유출과 고령층 집중이라는 구조적 인구 불균형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수도권과 도시지역은 교육·주거·일자리 인프라가 집중되어 세대 혼합도가 높고, 지역 내 다양한 연령층이 공존하는 생활환경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 간 차이는 산업구조, 교육 및 주거 인프라,

교통 접근성 등 내·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⁹⁾

내부적으로는 농산어촌지역의 저층·노후 주거 밀집, 일자리 감소, 야간생활 인프라 부족이 청년층의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대도시권의 교육·보육·의료 집중과 교통 편의성 격차가 인구유출을 구조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향후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은 단순한 물리적 개선을 넘어 세대 혼합을 회복하는 생활환경 기반의 셉테드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①아동·청소년·청년층의 정주여건을 높이는 생활 SOC 및 안전거점 확충, ②고령층 중심 지역에 대한 맞춤형 방범·돌봄 연계, ③학교·마을·커뮤니티를 연결한 세대 통합형 범죄예방 프로그램 운영, ④야간생활 활성화와 안전 확보를 병행하는 지역형 셉테드 모델 구축 등이 향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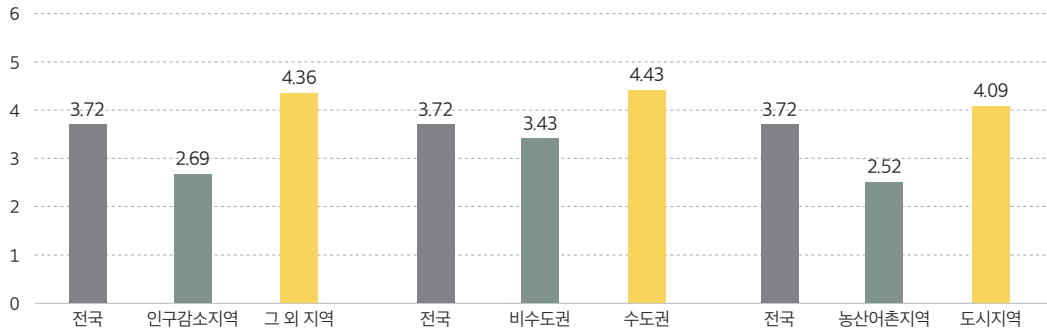
● 핵심타겟인구2. 생활 특성

‘핵심타겟인구’ 영역 중 ‘생활 특성’에 해당하는 6개 항목의 전국 평균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층(A)’에 속하는 ‘우리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지역 내에서 생활하고 있다’ 항목이 4.5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특정 연령층(S)’에 속하는 ‘우리 지역은 외국인 거주자나 근로자가 많다’(4.38점), ‘모든 연령층(A)’에 속하는 ‘우리 지역은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 약국,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이 많다’(4.28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지역 주민이 지역 내에서 일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등 특정 유형의 생활 인구가 일정 부분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생활편의시설 수준이 다소 낮게 인식되어 생활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가 드러나고 있다(그림 2-10).

9) 한국리서치, ‘어른 속 어른’조사(기간: 2021.5.21.~24 대상: 전국 성인남녀 1,000명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지역 간 불균형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고 수도권 인구 집중, 지역 간 불균형의 원인으로는 ‘수도권에만 집중된 양질의 일자리’와 ‘수도권의 편리한 교통 및 기본 생활시설’을 가장 많이 꼽는 등, 일자리, 교통체계, 인프라 등 핵심적인 생활 여건에서의 격차는 지역 간 삶의 만족도 차이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남(출처: 한국리서치, ‘어른 속 어른’, <https://hrcopinon.co.kr/archives/186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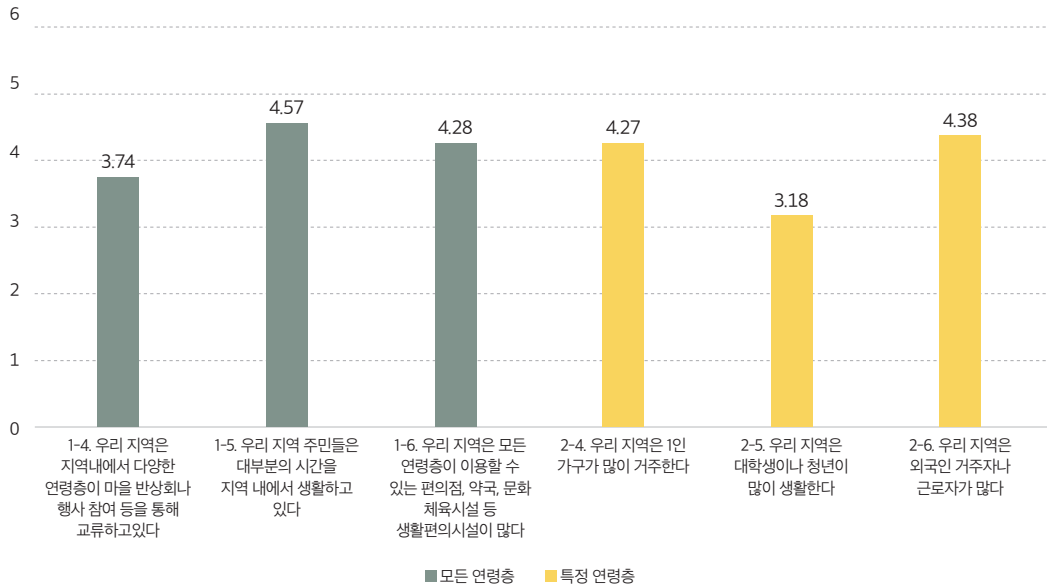
[그림 2-9] 지역구분별 점수 비교(문항2-1. 우리 지역은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이 많다)

[전체(n=6,387),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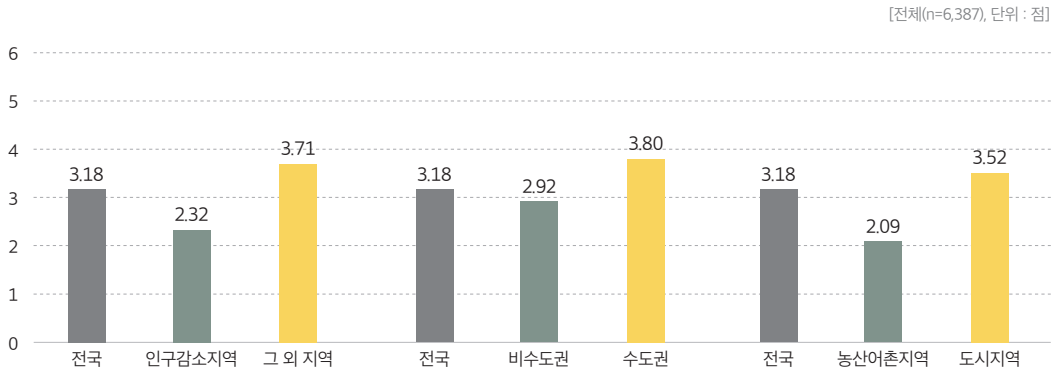


[그림 2-10] 핵심타겟인구: 생활 특성 영역 항목별 결과(전국)

[전체(n=6,387), 단위 : 점]



[그림 2-11] 지역구분별 점수 비교(문항2-5. 우리 지역은 대학생이나 청년이 많이 생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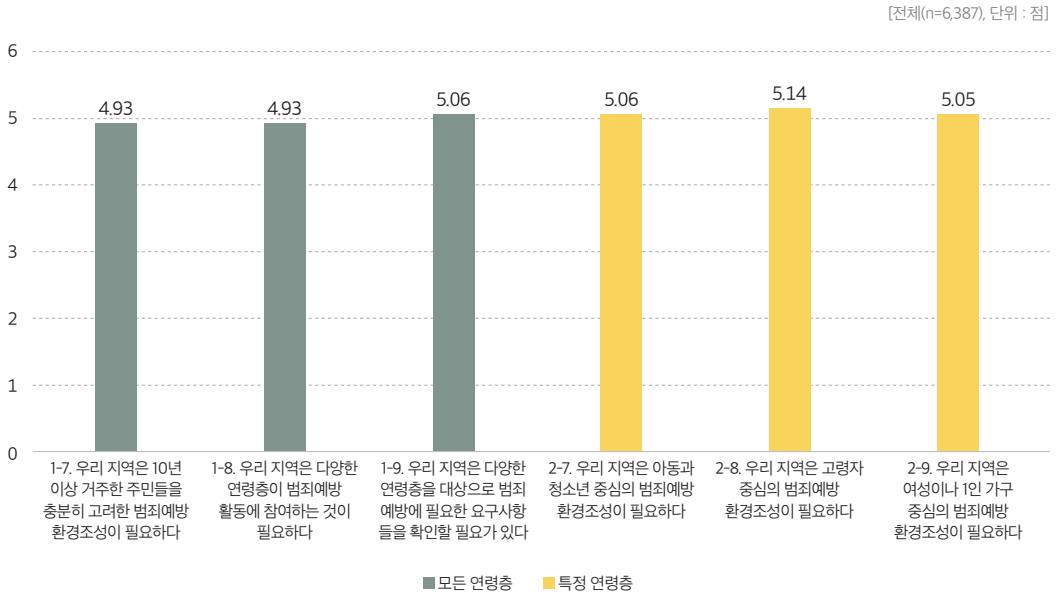
한편, ‘우리 지역은 대학생이나 청년이 많이 생활한다(문항 2-5)’에 대한 지역별 비교 결과를 보면, 전국 평균 3.18점에 비해 인구감소지역은 2.32점으로 0.86점 낮고, 그 외 지역은 3.71점으로 0.53점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청년층의 거주 및 생활 인구가 현저히 부족함을 의미한다. 권역별로는 비수도권이 2.92점, 수도권이 3.80점으로 나타나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집중 및 인구유입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또한 농산어촌지역은 2.09점으로 전국보다 1.09점이 낮아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도시 지역은 3.52점으로 0.34점 높게 나타나 농산어촌의 청년인구 부족이 가장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그림 2-11). 이는 인구감소 및 농산어촌지역이 청년층 인구 유출, 주거 및 고용 기반 취약, 생활편의시설 부족이라는 내·외부적 요인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는 지역 내 교육·문화·여가시설의 부족, 노후화된 생활환경, 야간활동 기반의 미약함이 청년층의 지역 정주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수도권 및 대도시권의 고등교육기관·산업단지·직장 밀집 구조가 청년층의 이주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청년층은 지역 내 공공공간 이용, 야간활동, 자율방범·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적 참여의 중심 세대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의 부재는 곧 지역 공동체의 활력 저하 및 감시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셉테드의 관점에서 생활 인구의 감소는 공간의 ‘자연적 감시’ 기능 저하와 범죄 불안 인식의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정책적으로는 ①청년층의 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 정착 유도, ②생활 SOC(편의시설, 문화·체육시설)와 안전 인프라의 동시 확충, ③야간 활동 공간의 안전성 강화, ④청년 참여

형 지역 방법 및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은 청년층의 유입과 정착을 위한 생활안전형 주거 지원 모델을 마련하고, 소규모 도시나 읍면 단위에서는 문화·여가와 안전을 결합한 복합거점 조성(셉테드 Living Hub)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핵심타겟인구3. 니즈

[그림 2-12] 주요 타겟 인구: 니즈파악 영역 항목별 결과(전국)



‘핵심타겟인구’ 영역 중 ‘니즈파악’에 해당하는 6개 항목의 전국 평균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특정 연령층(S)’에 속하는 ‘우리 지역은 고령자 중심의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항목이 5.1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특정 연령층(S)’에 속하는 ‘우리 지역은 아동과 청소년 중심의 범죄 예방 환경조성이 필요하다’(5.06점), ‘모든 연령층(A)’에 속하는 ‘우리 지역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범죄예방에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5.06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적으로 범죄예방 환경조성의 필요성이 세대별로 폭넓게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와 아동·청소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대응의 중요성이 크게 공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2-12).

전체적으로 6개 항목 모두 전국 평균이 4.9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응답자들은 지역의 범죄예방 정책에 대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매우 강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구 구성’ 및 ‘생활특성’ 항목에서 나타난 인구 불균형이나 생활환경 격차와 달리,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적 범죄예방 수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고령자 중심의 범죄예방 필요성(5.14점)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고령인구 비중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고령층이 느끼는 생활 안전 취약성 및 범죄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높기때문으로 해석되는데,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서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노후화된 주거지가 많다는 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중심의 범죄예방 필요성(5.06점)도 매우 높게 나타나 교육시설 주변, 통학로, 청소년 문화시설 등 생활권 내 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 및 여성 대상 범죄 증가, 온라인·생활 주변의 잠재적 위험요소 확산 등 최근 사회적 변화에 대한 국민적 감수성의 확장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 요구사항 확인 필요성(5.06점) 역시 상위에 위치하면서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특정 집단에 국한된 과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생활 안전 인식 수준을 높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지역 내 연령·계층·생활권의 다양성이 커질수록 범죄예방 환경 설계가 ‘보편적 안전 + 세대별 특화’의 균형을 유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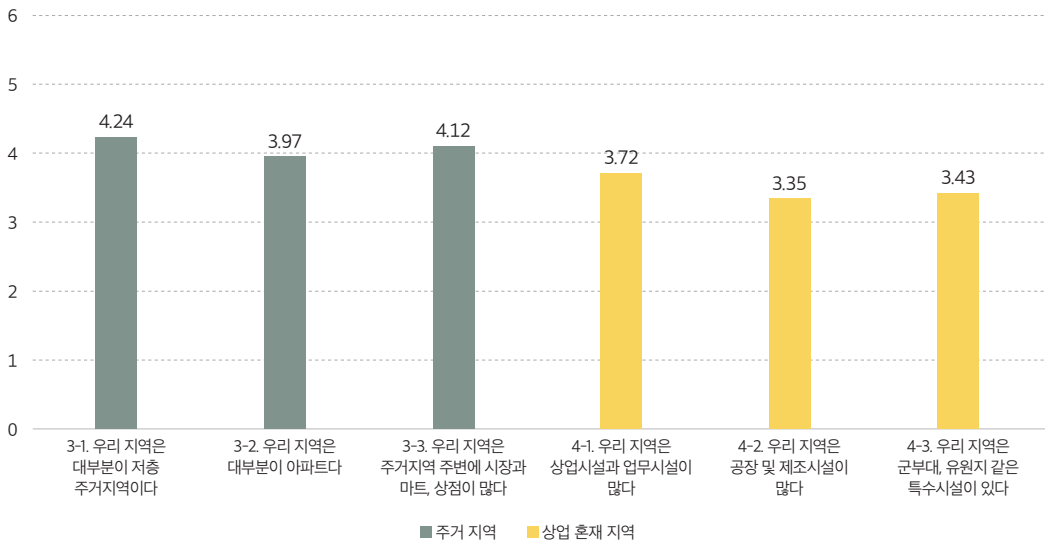
종합하면, ‘니즈파악’ 영역의 응답 결과는 국민이 인식하는 범죄예방의 우선순위가 ①고령층의 생활안전 확보, ②아동·청소년 보호 및 통학환경 개선, ③세대 통합형 범죄예방 전략의 필요성으로 수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셉테드 정책이 단순히 시설 개선에 머물지 않고, 연령별 위험요인과 공간 이용행태를 통합적으로 반영하는 ‘생활안전 복합형’ 전략으로 발전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정책적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고령자 안전 중심의 생활밀착형 셉테드 확대(노인복지시설, 주거단지, 의료시설 주변의 조도 개선, 보행환경 정비, 안전안내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보호 인프라 강화(통학로·놀이시설·문화공간 중심의 방범디자인 및 지역순찰 프로그램 운영), 세대 통합형 범죄예방 모델 확산(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는 범죄예방 캠페인, 공동순찰, 생활안전 교육 확대)이다.

● 주요용도1. 용도 구성

‘주요 용도’ 특성 중 ‘용도 구성’ 영역에 해당하는 6개 항목의 전국 평균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주거지역(R)’에 속하는 항목들이 ‘상업혼재지역(C)’ 항목보다 높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 대부분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생활 중심의 주거지로 인식하고 있으며, 상업이나 업무 기능보다 거주 기능의 비중이 높다고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13] 주요 용도: 용도 구성 영역 항목별 결과(전국)

[전체(n=6,387),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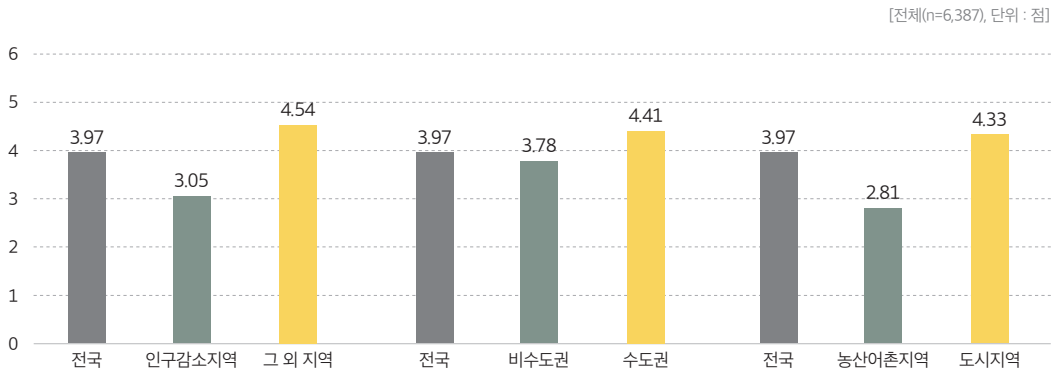


항목별로는 ‘주거지역(R)’에 속하는 ‘우리 지역은 대부분이 저층 주거 지역이다’가 4.2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우리 지역은 주거 지역 주변에 시장과 마트, 상점이 많다’(4.12점), ‘우리 지역은 대부분이 아파트이다’(3.97점) 순으로 확인되었다. 전국적으로 저층 주거와 생활편의시설이 인접한 주거지 형태가 일반적이며, 아파트 비중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2-13).

‘용도 구성’ 영역 중 ‘우리 지역은 대부분이 아파트이다’ 항목의 지역별 결과를 비교해 보면, 전국 평균 3.97점에 비해 인구감소지역은 3.05점으로 0.91점 낮고, 그 외 지역은 4.54점으로 0.57점 높게 나타났다. 즉, 인구감소 지역은 저층 주거지 중심의 주거형태로 인식되는 반면, 그 외 지역은 아파트 중심의 도시형 주거구조로 인식되고 있다. 권역별로는 비수도권이 3.78

점, 수도권이 4.41점으로 나타나 수도권의 아파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비수도권은 여전히 다세대·단독주택 등 저층 주거 형태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농산어촌지역은 2.81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1.15점 낮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도시지역은 4.33점으로 0.36점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농산어촌지역은 아파트보다는 단독·다가구·농가주택 중심의 저밀도 주거 형태가 지배적이며, 도시지역은 중·고층 아파트 중심의 고밀 주거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2-14).

[그림 2-14] 지역구분별 점수 비교(문항3-2. 우리 지역은 대부분이 아파트이다)



특히 농산어촌지역은 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거나 극히 제한되어 있어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현대적 주거 형태에 대한 선택권이 부족하고 청년층의 이탈과 고령화 심화로 이어지는 인구구조 악순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주거형태의 차이를 넘어 주거지 유형이 지역의 인구 유입력과 생활안전 체감에 직결되는 요소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범죄예방 환경조성 측면에서는 ①주거유형별 안전요소 차별화, ②저층·노후주거지의 방범 환경개선, ③고밀 아파트 단지의 공용공간 관리 및 접근통제 강화, ④혼합용도지역 내 상업·주거의 안전 경계 설계 등이 필요하다. 특히 농산어촌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생활권 내 주거 환경의 물리적 개선’과 함께 ‘공동체 중심의 감시·관리 기능 강화’를 결합하는 저층주거지형 셉테드 전략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하면, ‘용도 구성’ 영역은 지역의 도시화 수준과 주거형태의 구조적 차이를 반영하며, 수도권·도시지역은 고밀 아파트형, 농산어촌·인구감소지역은 저층 주거형 중심으로 구분된다. 이는 지역별로 상이한 주거 환경에 맞춘 셉테드 적용 범위와 우선순위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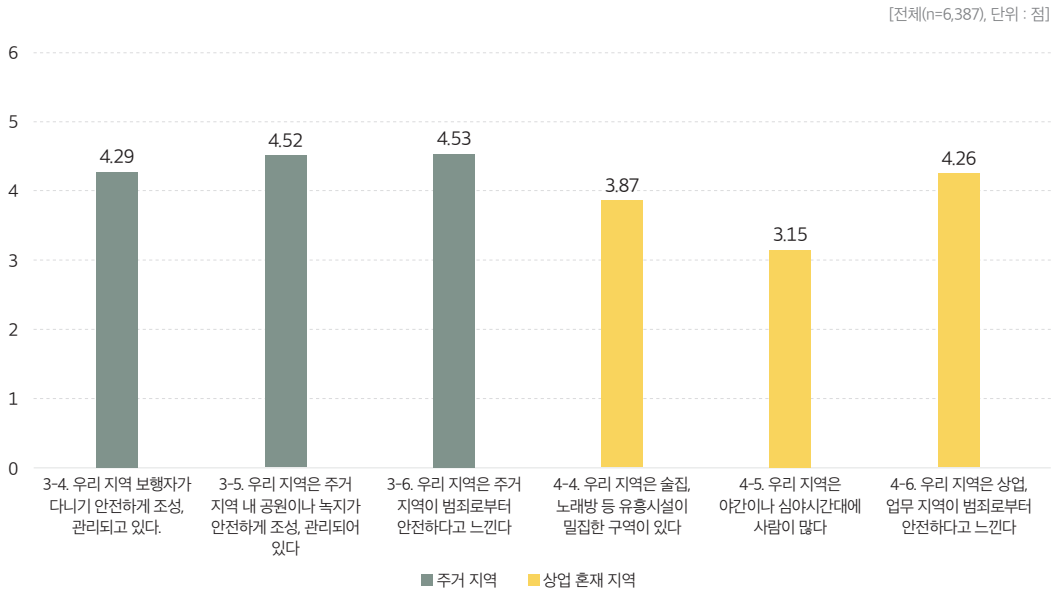
● 주요용도2. 입지 특성

‘입지 특성’ 영역에 해당하는 6개 항목의 전국 평균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주거지역(R)’에 속하는 항목이 ‘상업혼재지역(C)’ 항목보다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응답자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환경과 보행·공원 등 주거 기반의 안전성을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항목별로는 ‘주거지역(R)’에 속하는 ‘우리 지역은 주거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항목이 4.5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우리 지역은 주거지역 내 공원이나 녹지가 안전하게 조성·관리되어 있다’(4.52점), ‘우리 지역 보행자가 다니기 안전하게 조성·관리되고 있다’(4.29점)순이다. 즉, 주거공간의 물리적 안전성과 공공녹지·보행로의 관리상태가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안전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2-15).

반면, ‘상업혼재지역(C)’ 항목들은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상업·업무·유흥시설 밀집 지역에서의 야간 안전에 대한 체감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상업시설의 이용 시간이 늦고, 유동인구가 많지만 안전관리 체계나 조명환경, 경찰·자율방범 활동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입지 특성’ 영역 중 ‘우리 지역은 야간이나 심야시간대에 사람이 많다(문항 4-5)’에 대한 지역별 비교에서는 전국 평균 3.15점 대비 인구감소지역이 2.28점으로 0.87점 낮고, 그 외 지역은 3.70점으로 0.54점 높게 나타났다. 즉, 인구감소지역은 야간 유동인구가 현저히 적고 생활 활동이 제한적인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권역별로는 비수도권이 2.92점, 수도권이 3.74점으로,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야간 활동성과 상업·문화활동의 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산어촌지역은 2.02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1.13점 낮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도시지역은 3.51점으로 0.36점 높게 나타나 농산어촌지역의 야간 유동인구가 가장 적은 수준임이 확인되었다(그림 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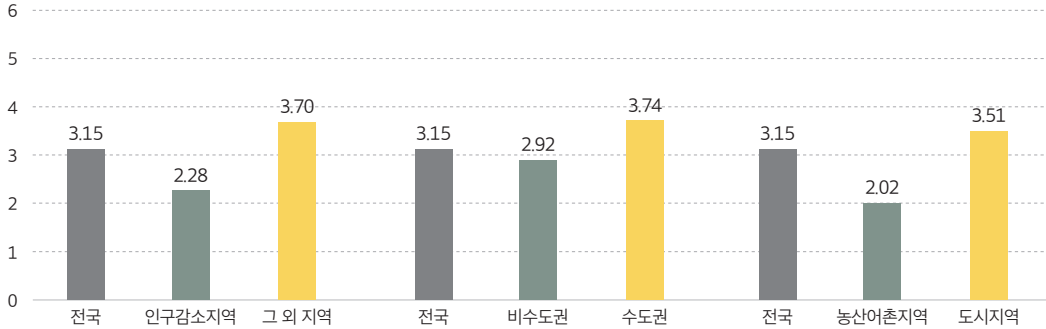
이는 지역의 도시화 수준과 상업·문화기능의 분포, 인구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농산어촌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상업시설 및 공공이용시설의 부족, 노후 기반시설, 고령화로 인해 야간시간대의 활동이 거의 없고, 보행·감시·조명환경의 취약성이 중첩된 구조를 보인다. 반면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은 상업·문화시설이 집중되어 야간 활동이 활발하지만, 그만큼 유흥시설 주변의 범죄·불안요인도 함께 존재하는 이중적 특성을 갖는다. 야간 활동이 지나치게 적은 농산어촌지역은 감시 공백으로 인한 범죄 기회 증가가, 활동이 과도하게 많은 대도시 중심지는 혼잡·음주·무질서 등 사회적 위험 요인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구조다.

[그림 2-15] 주요 용도: 입지 특성 영역 항목별 결과(전국)



[그림 2-16] 지역구분별 점수 비교(문항4-5. 우리 지역은 야간이나 심야시간대에 사람이 많다)

[전체(n=6,387),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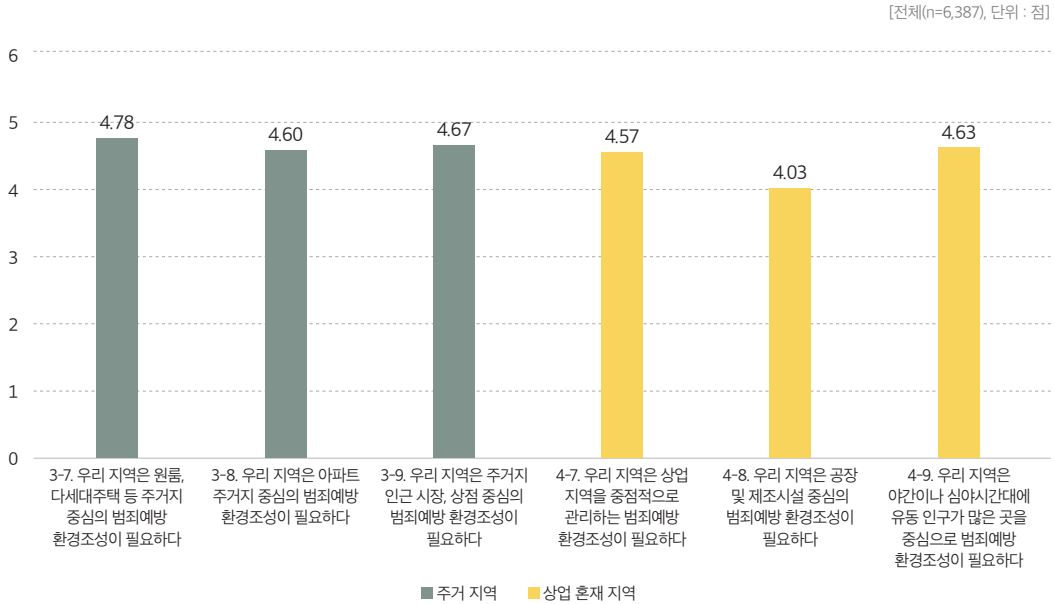


이러한 특성은 셉테드 측면에서, 각 지역이 ‘안전한 활동 활성화(Active Safety)’와 ‘과도한 유동의 질서 관리(Order Management)’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핵심 전략 과제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역 유형별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농산어촌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은 공공조명·CCTV 확충, 자율방범 순찰 강화 등 기본적 물리 환경 개선 중심의 전략과 문화·생활시설의 소규모 야간 개방 및 안전한 활동공간 조성(마을카페, 주민쉼터 등)이 필요하다. 중소도시·비수도권은 생활상권 위주의 야간 보행로·상점가 안전관리 프로그램 확대와 상업·주거 혼합지역의 공공감시 체계 및 민관협력 순찰을 강화하고 수도권·대도시의 경우 유흥밀집지의 조명·출입선별·감시 장치 개선, 공공질서 회복형 셉테드(심야 교통 동선 분리, 안전귀가 서비스, 택시 승하차 공간 정비) 등의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주요용도3. 니즈

‘주요 용도’ 특성 중 ‘니즈파악’ 영역에 해당하는 6개 항목의 전국 평균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주거지역(R)’에 속하는 ‘우리 지역은 원룸, 다세대주택 등 주거지 중심의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항목이 4.7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우리 지역은 주거지 인근 시장, 상점 중심의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필요하다’(4.67점), ‘상업혼재지역(C)’에 속하는 ‘우리 지역은 야간이나 심야시간대에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필요하다’(4.63점)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17).

[그림 2-17] 주요 용도: 니즈파악 영역 항목별 결과(전국)



이러한 결과는 국민이 인식하는 범죄예방 환경조성의 주요 대상이 일상 생활권 내 주거지와 인근 상업공간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즉, 단순히 특정 시설이나 공공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주거지 중심의 생활밀착형 셉테드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공감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원룸·다세대주택 중심의 주거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이들 지역이 인구 밀도는 높지만 관리체계가 미흡한 대표적 생활취약공간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룸·다세대 밀집지역은 외부인 출입이 잦고, 거주자 간 교류가 적으며, CCTV나 가로조명, 출입통제 등 기본적인 방법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민들은 이들 지역의 물리적 개선과 함께 출입 통제, 감시성 확보, 공동체 기반의 자율관리 강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두 번째로 높은 항목인 주거지 인근 시장·상점 중심의 범죄예방 필요성(4.67점) 역시 생활권 내 이동 동선, 특히 주거-상업 공간 간 경계부의 안전 문제가 주민 체감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일상적 생활공간의 연속성’ 속에서 조명·가시성·순찰활동 등 공간 간 연계형 방법 대책의 필요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세 번째로 높은 항목인 야간·심야시간대 유동 인구 중심 범죄예방 필요성(4.63점)은 야간 경계

활동과 심야영업 시설의 증가와 이에 따른 불특정 다수의 활동 공간 확대가 범죄 불안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상업혼재지역(C)은 낮보다 밤의 이용밀도가 높아, 조도·질서·감시의 불균형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기관뿐 아니라 업소·상인·주민이 함께 관리에 참여하는 공동체형 야간 안전 모델이 요구된다.

이상의 결과는 ‘용도 구성’ 및 ‘입지 특성’ 항목에서 나타난 지역별 차이와도 일관성을 보인다. 즉,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은 고밀 아파트 및 상업혼재지의 야간 활동을 중심으로 한 방법 수요가 높고, 비수도권과 농산어촌지역은 저층 주거지와 생활상권 주변의 기본적인 안전 확보가 중점 과제로 인식된다. 따라서 지역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도시·수도권 지역은 상업혼재지역의 야간 활동 집중 구간 관리 강화, 심야 조명·CCTV·순찰 시스템 통합 운영 및 민관협력형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비수도권·농산어촌지역은 원룸·다세대 등 저층 주거지형 방범디자인 표준화, 주거-상업 경계부 안전 동선 정비, 소규모 방범거점(치안센터·자율방범대 사무소 등) 설치가 필요하다. 공통적으로는 주거·상업·문화·교통시설 등 이용행태 기반의 공간 연계형 셉테드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별 활동 시간대별 위험요인 분석을 통한 맞춤형 조명·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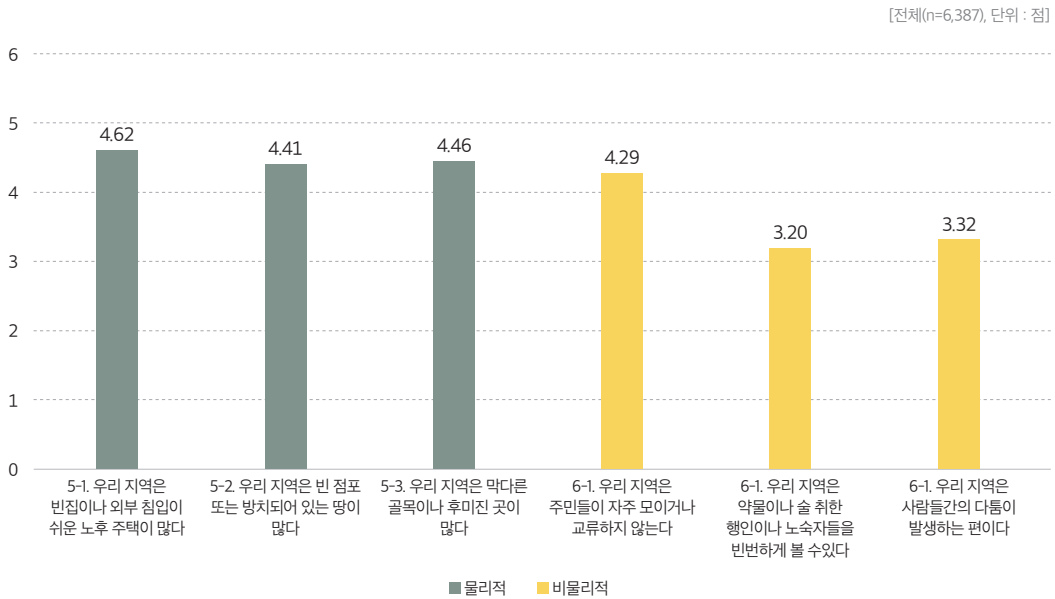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니즈파악’에서는 생활권 중심의 범죄예방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의 핵심은 ‘생활공간의 연속성’과 ‘야간시간대 관리’에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셉테드 정책은 주거·상업·이동 공간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생활권 단위를 중심으로 야간 시간대 등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조성 전략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 범죄취약 환경요인1. 위해 요인

‘범죄취약 환경요인’ 특성 중 ‘위해 요인’ 영역에 해당하는 6개 항목의 전국 평균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물리적(P)’ 항목이 ‘비물리적(N)’ 항목보다 높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들이 인식하는 범죄취약 요인이 주로 눈에 보이는 공간적·물리적 환경 문제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항목별로는 ‘물리적(P)’에 속하는 ‘우리 지역은 빈집이나 외부 침입이 쉬운 노후주택이 많다’ 항목이 4.6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우리 지역은 막다른 골목이나 후미진 곳이 많다’(4.46점), ‘우리 지역은 빈 점포 또는 방치되어 있는 땅이 많다’(4.41점)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18).

이러한 결과는 노후주택, 방치공간, 조도가 낮은 골목 등 지역 내 물리적으로 열악한 요소가 주민의 불안과 범죄취약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구감소지역과 농산어촌지역에서는 빈집·빈 점포의 비율이 높고, 도심과의 거리로 인해 관리가 어려운 공간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들 공간은 침입·절도·은폐형 범죄의 잠재지로 인식되며, 특히 야간 시간대에는 감시 공백지대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비물리적 요인(주민 갈등, 노숙자, 음주자 등)은 물리적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으나, 실제 위험도가 낮다기보다 가시성이 낮아 체감이 어려운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주민들은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범죄취약성을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실제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행태적 요인과의 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2-18] 범죄취약 환경요인: 위해 요인 영역 항목별 결과(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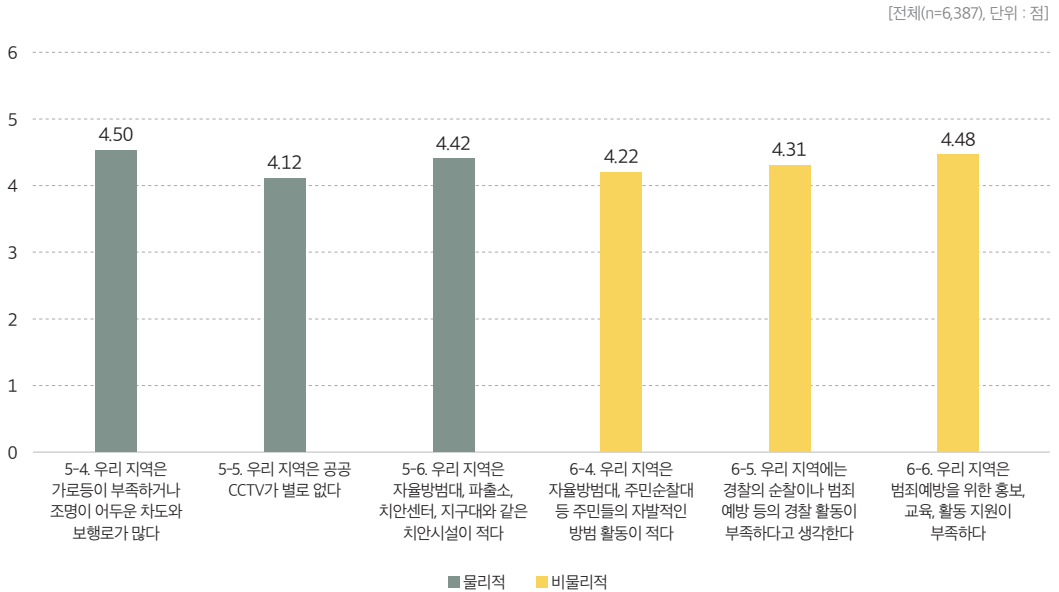
● 범죄취약 환경요인2. 기존시설 및 활용

‘범죄취약 환경요인’ 특성 중 ‘기존시설 및 활용’ 영역에 해당하는 6개 항목의 전국 평균 응답 결과는, ‘물리적(P)’에 속하는 ‘우리 지역은 가로등이 부족하거나 조명이 어두운 차도와 보행로가 많다’ 항목이 4.5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물리적(N)’에 속하는 ‘우리 지역은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활동 지원이 부족하다’(4.48점), ‘물리적(P)’에 속하는

‘우리 지역은 자율방범대, 파출소, 치안센터, 지구대와 같은 치안시설이 적다’(4.42점)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19). 즉, 범죄취약 요인 중에서도 조명 환경과 치안시설의 부족이 가장 직접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조도와 관련된 항목이 상위권을 차지한 것은, 야간 시간대의 가시성 저하가 보행 안전과 범죄 불안 인식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입지 특성’ 영역에서 확인된 농산어촌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의 야간 유동인구 부족과도 맞물려 있으며, 결과적으로 야간 활동이 적은 지역일수록 조명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범죄예방 홍보·교육·활동 지원 부족(4.48점)’ 항목이 높은 점수로 나타난 것은 단순한 시설 확충 외에도 주민 참여형 예방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지역의 방법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①물리적 인프라 확충, ②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제공·교육·참여 프로그램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기존시설 및 활용’ 영역은 단순한 인프라의 부족을 넘어 시설의 가시성과 활용성, 주민 참여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취약점을 보여준다.

[그림 2-19] 범죄취약 환경요인: 기존시설 및 활용 영역 항목별 결과(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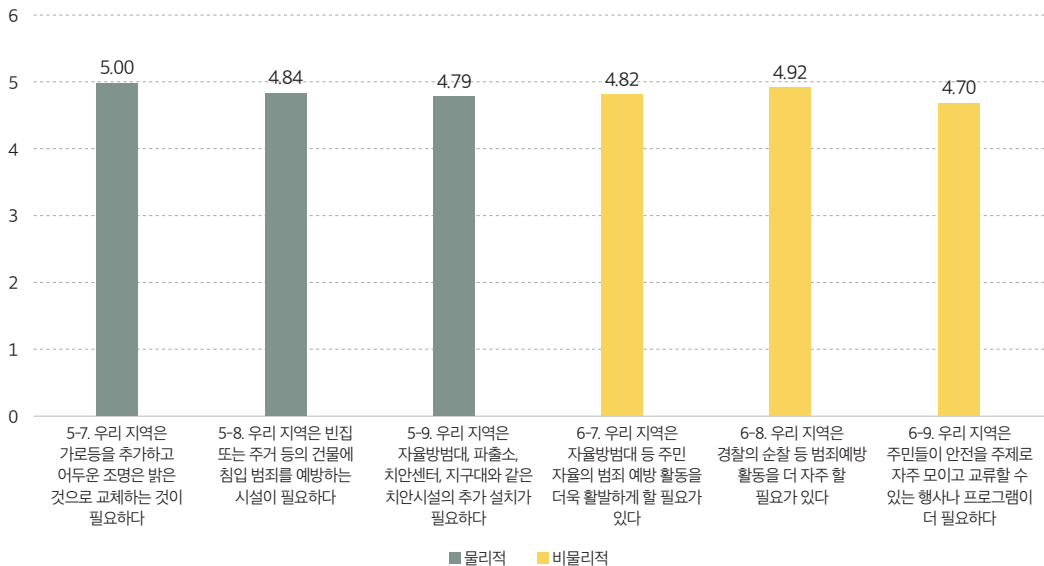


● 범죄취약 환경요인3. 니즈

‘범죄취약 환경요인’에 대한 지역민의 ‘니즈파악’ 결과에 따르면 ‘물리적(P)’에 속하는 ‘우리 지역은 가로등을 추가하고 어두운 조명은 밝은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항목이 5.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물리적(N)’에 속하는 ‘우리 지역은 경찰의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을 더 자주 할 필요가 있다’(4.92점)이며, ‘물리적(P)’에 해당하는 ‘우리 지역은 빈집 또는 주거 등의 건물에 침입 범죄를 예방하는 시설이 필요하다’(4.84 점) 순으로 확인되었다(그림 2-20). 이는 국민이 체감하는 범죄예방의 핵심 수요가 기초적인 물리적 안전환경 개선과 공공의 관리 강화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가로등 추가 및 조명 개선이 전국 평균 5점을 기록한 것은, 조명환경이 범죄예방의 기본이자 주민 체감 안전도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반영한다. 또한, 경찰 순찰 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은 단순 시설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공공기관의 상시적 가시적 활동이 심리적 안정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2-20] 범죄취약 환경요인: 니즈파악 영역 항목별 결과(전국)

[전체(n=6,387),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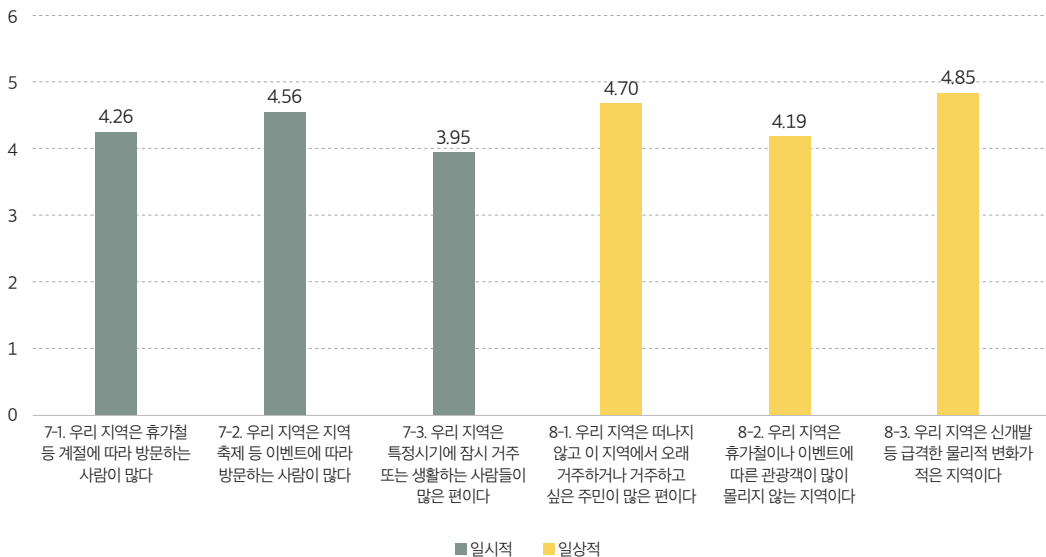


● **특수성1. 상시성**

‘특수성’ 특성 중 ‘상시성’ 영역에 해당하는 6개 항목의 전국 평균 응답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일상적(E)’ 항목이 ‘일시적(T)’ 항목보다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응답자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일상적인 생활 기반 중심의 안정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항목별로는 ‘일상적(E)’에 속하는 ‘우리 지역은 신개발 등 급격한 물리적 변화가 적은 지역이다’ 항목이 4.8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우리 지역은 떠나지 않고 이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거나 거주하고 싶은 주민이 많은 편이다’(4.70점), ‘일시적(T)’에 속하는 ‘우리 지역은 지역 축제 등 이벤트에 따라 방문하는 사람이 많다’(4.56점)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21). 이는 대부분의 지역이 급격한 도시개발이나 인구변동이 크지 않은 안정적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지역에서 물리적·사회적 정체성의 지속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일시적 특성을 반영하는 항목들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것은 대부분의 지역이 오래 거주한 인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축제·관광·계절성 방문 등 비상시적 활동이 한정적임을 의미한다. 또한,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서 ‘급격한 변화가 적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도시개발의 속도와 규모, 인구이동의 차이가 인식 차이를 만들어내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21] 특수성: 상시성 영역 항목별 결과(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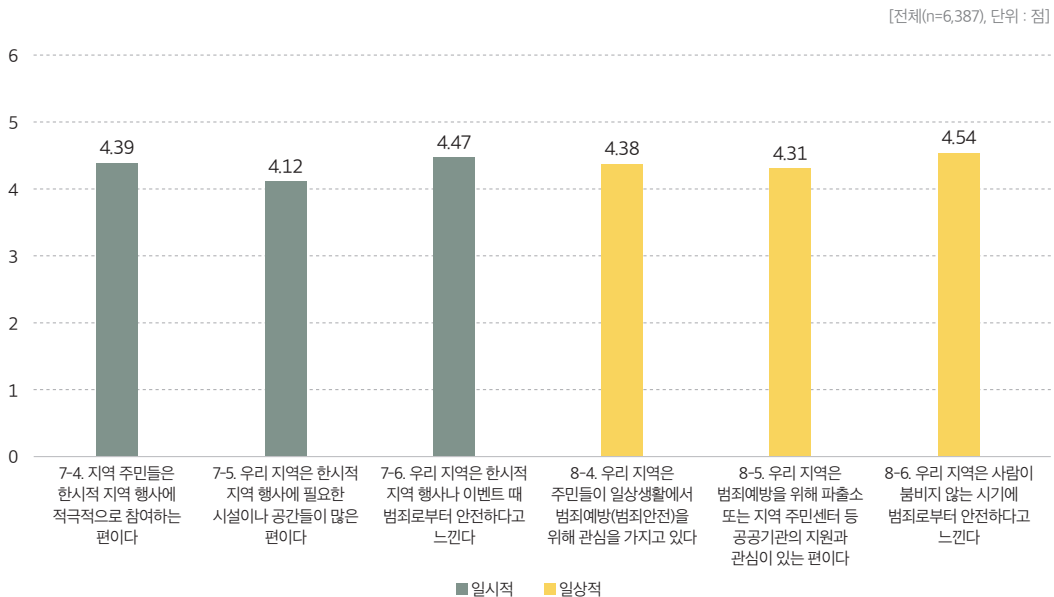
[전체(n=6,387), 단위 : 점]



● 특수성2. 지역수용성

‘지역수용성’에 대한 응답 결과로는, ‘일상적(E)’에 속하는 ‘우리 지역은 사람이 붐비지 않는 시기에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항목이 4.54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일시적(T)’ 항목인 ‘우리 지역은 한시적 지역 행사나 이벤트 때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4.47점), ‘지역 주민들은 한시적 지역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4.39점)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22).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주민이 일상적 시기의 범죄안전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고, 행사나 이벤트 등 일시적 인구 집중 시기도 안전하지만, 일상생활 대비 상대적으로는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또한 지역 축제나 관광 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혼잡·교통 불편·치안 공백 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수용성 측면에서의 범죄예방 전략은 ①일상적 안전관리체계의 유지뿐 아니라, ②행사·축제 등 비상시 인구 집중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안전관리체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기적 이벤트 중심이 아닌, 일상적 관리의 연장선에서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셉테드 운영모델 구축이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2-22] 특수성: 지역수용성 영역 항목별 결과(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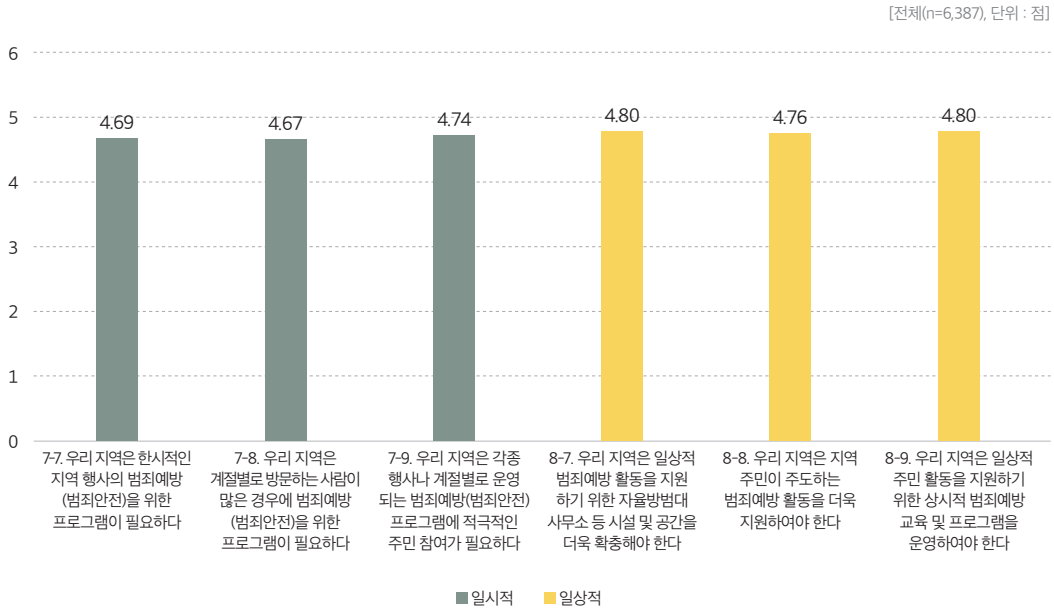


● 특수성3. 니즈

‘특수성’ 항목에 대한 니즈 파악 결과, ‘일상적(E)’ 항목이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우리 지역은 일상적 주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상시적 범죄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항목과 ‘우리 지역은 일상적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율방범대 사무소 등 시설 및 공간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 항목이 모두 4.8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우리 지역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범죄예방 활동을 더욱 지원하여야 한다’(4.76점) 순으로 확인되었다(그림 2-23). 이는 범죄예방 활동이 단발적 행사나 외부 주도형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주민 주도형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국민은 시설·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이를 유지·활용할 수 있는 상시적 운영 기반과 프로그램 지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앞선 ‘상시성’ 및 ‘지역수용성’ 항목과도 일관성을 보이며, 지역의 안전이 일상적 생활 리듬 속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강화되는 구조를 선호함을 의미한다. 특히 자율방범대·주민순찰대 등 지역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생활안전 활동의 제도적 지원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향후 셉테드 정책은 ‘하드웨어 중심’에서 ‘운영·관리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상시적 교육·프로그램 운영체계 구축(지자체·경찰·주민단체 간 연계형 생활안전 교육 모델 개발)과 자율방범대 거점시설 확충(지역별 셉테드 거점센터를 통한 통합 운영 및 정보공유), 주민 주도형 예방활동 지원 강화(커뮤니티 예산, 셉테드 리더 양성, 상시 참여 플랫폼 운영) 등의 전략 설정이 요구된다. 종합하면, ‘특수성’ 영역의 응답은 지역의 안전이 비상시 대응이 아닌, 일상적 관리체계 속에서 유지·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일상적(E) 특성이 강한 지역일수록 주민참여 기반의 지속적 관리가 효과적이며, 이는 셉테드 정책이 공간설계 중심에서 생활운영 중심으로 진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림 2-23] 특수성: 니즈파악 영역 항목별 결과(전국)



응답자 특성별 결과

CPTI 환경요소별 인식조사 결과에서 전국 평균 대비 1점 이상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5개 문항을 중심으로, 응답자의 성별·연령대·거주기간 특성에 따른 인식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는 단순히 지역적 차이뿐 아니라, 인구집단의 사회적 배경이나 생활패턴이 범죄예방 환경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 대상 5개 문항은 ‘우리 지역은 모든 연령층이 고루고루 거주하고 있다’, ‘우리 지역은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이 많다’, ‘우리 지역은 대학생이나 청년이 많이 생활한다’, ‘우리 지역은 대부분이 아파트이다’, ‘우리 지역은 야간이나 심야시간대에 사람이 많다’이다.

● 성별에 따른 인식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CPTI 문항별 점수 분포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문항에서 성별보다는 지역적 요인이 인식 차이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즉, 남성과 여성 모두 지역 유형(인구감소·비수도권·농산어촌 지역 등)에 따라 인식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성별 간 점수 차이는 대부분 0.1~0.3점 수준이다.

우리 지역은 모든 연령층이 고루고루 거주하고 있다

‘핵심타겟인구-인구 구성’ 항목에서, 인구감소지역은 남성 2.83점, 여성 2.81점으로 그 외 지역(남성 4.36점, 여성 4.34점) 대비 약 1.5점 낮게 나타났다. 비수도권은 남성 3.62점, 여성 3.50점으로 수도권(남성 4.54점, 여성 4.46점) 대비 약 0.9점 낮았으며, 농산어촌지역은 남성 2.72점, 여성 2.70점으로 도시지역(남성 4.14점, 여성 4.06점) 대비 약 1.4점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과 무관하게 지역적 인구 불균형이 동일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농산어촌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서 연령층 다양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있다(그림 2-24).

우리 지역은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이 많다

이 문항에서도 성별보다는 지역 차이가 훨씬 뚜렷했다. 인구감소지역은 남성 2.81점, 여성 2.76점으로 그 외 지역(남성 4.36점, 여성 4.40점) 대비 약 1.6점 낮았으며, 농산어촌지역은 남성 2.65점, 여성 2.62점으로 도시지역(남성 4.14점, 여성 4.11점) 대비 약 1.5점 낮았다. 비수도권 역시 남성 3.67점, 여성 3.51점으로 수도권 대비 약 0.8점 낮았다. 이로써 성별보다는 지역의 인구구조(특히 학령인구 비중)가 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그림 2-25).

우리 지역은 대학생이나 청년이 많이 생활한다

‘핵심타겟인구-생활특성’ 항목에서 농산어촌지역은 남성 2.21점, 여성 2.11점으로 도시지역(남성 3.61점, 여성 3.49점) 대비 약 1.4점 낮았다. 인구감소지역은 남성 2.50점, 여성 2.35점으로 그 외 지역 대비 약 1.3점, 비수도권은 수도권 대비 약 0.7점 낮게 나타났다. 모든 지역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0.1-0.2점 높았으나, 성별보다는 지역의 청년 인구 분포와 생활기반 수준이 인식 격차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그림 2-26). 이러한 결과는 농산어촌지역·인구감소지역의 청년층 이탈과 정주 기반 부족, 그리고 수도권 중심의 청년 생활권 집중현상을 반영한다. 즉, 성별보다는 연령층 분포·교육기관 입지·일자리 접근성 등 지역 구조적 요인이 청년 관련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지역은 대부분이 아파트이다

‘주요 용도-용도 구성’ 항목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남녀 모두가 3.2점 대로, 그 외 지역(4.5점대) 대비 약 1.3점 낮았다. 비수도권(3.9점대) 역시 수도권(4.4점대) 대비 약 0.5점이 낮았고, 농산어촌지역(2.9점대)은 도시지역(4.3점대) 대비 약 1.4점 낮았다. 남녀 간 격차는 0.02-0.11점으로 매우 작았는데 이는 지역의 주거유형이 성별 인식 차이를 압도하는 주요 요인임을

우리 지역은 야간이나 심야시간대에 사람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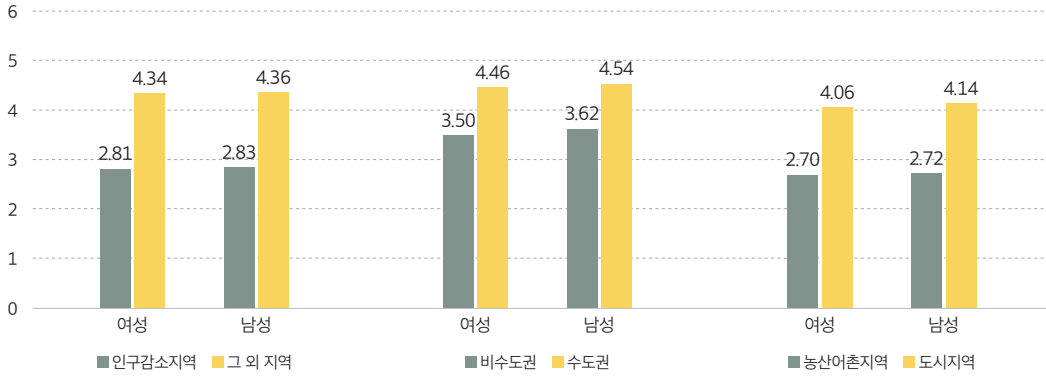
보여준다(그림 2-27). 즉, 여성·남성 모두 동일하게 ‘우리 지역은 저층 주거 중심이다’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지역별 물리적 주거구조와 개발밀도의 차이가 범죄예방 환경인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 용도-입지특성’ 항목에서는 성별 간 점수 차이가 다소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지역 차이가 더 컸다. 농산어촌지역은 남성 2.25점, 여성 2.01점으로 도시지역(남성 3.64점, 여성 3.44점) 대비 약 1.4점 낮았으며, 인구감소지역은 그 외 지역 대비 약 1.3점, 비수도권은 수도권 대비 약 0.6점 낮았다. 이 문항은 남녀 간 격차(0.2~0.3점)가 다른 항목보다 크지만, 야간 활동성과 관련된 지역 환경 차이가 여전히 더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그림 2-28). 이를 통해, 여성은 남성보다 다소 낮은 안전감과 활동성을 인식하지만, 그 차이는 개인의 성별보다는 해당 지역의 인프라·조명·유동인구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야간 활동 기반이 적은 농산어촌지역’과 ‘야간 상권이 집중된 대도시’의 환경적 격차가 성별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성별에 따른 CPTI 인식 차이는 대부분 0.1~0.3점 수준의 미미한 차이에 불과하며, 지역 유형(인구감소, 농산어촌, 수도권/비수도권 등)에 따른 차이는 1점 이상으로 훨씬 크다. 이는 셉테드 정책 수립 시 성별보다는 지역 환경요인에 기반한 맞춤형 전략 수립이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다만, 여성 응답자들이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야간시간대 안전과 인구활동 관련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 점은 공공조명, 귀가 동선, 심야교통, 공공공간의 개방성 등 젠더 관점의 범죄예방 디자인 강화를 위한 정책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결과적으로, 성별 간 인식 차이는 미미하지만, 여성의 야간 안전감 저하는 여전히 유효한 정책 이슈이며, 셉테드의 핵심은 ‘성별의 차이보다 지역의 구조적 격차를 줄이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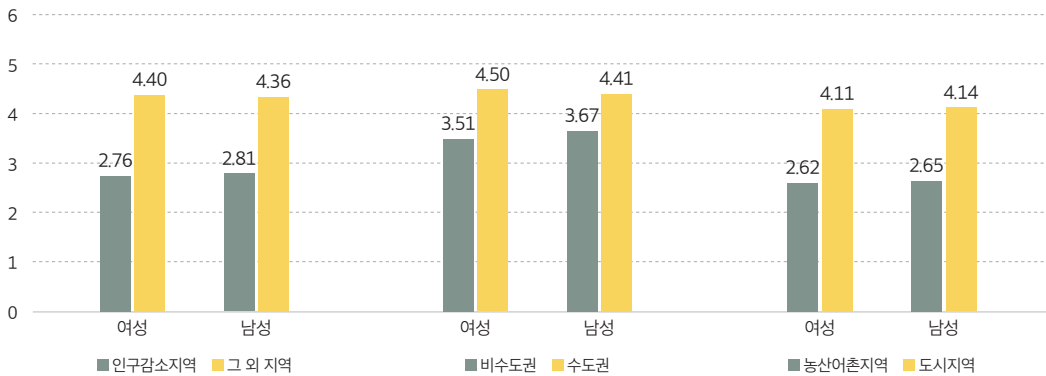
[그림 2-24] 응답자 성별에 따른 점수 비교(문항1-1. 우리 지역은 모든 연령층이 고루고루 거주하고 있다)

[전체(n=6,387),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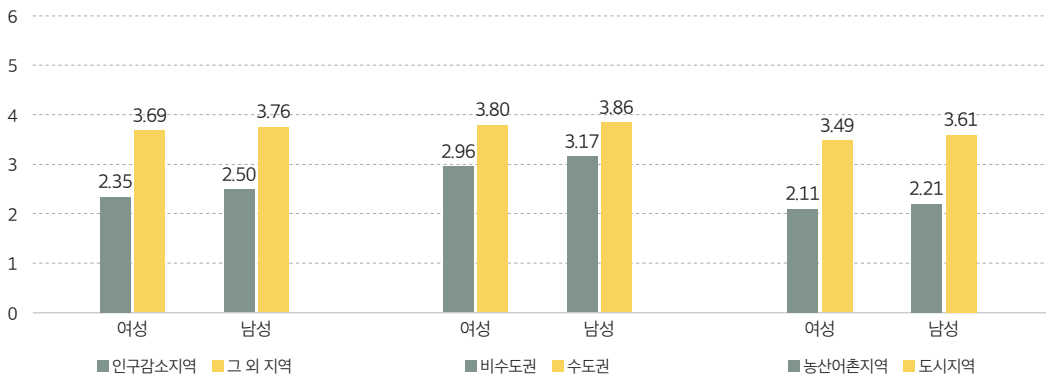
[그림 2-25] 응답자 성별에 따른 점수 비교(문항2-1. 우리 지역은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이 많다)

[전체(n=6,387),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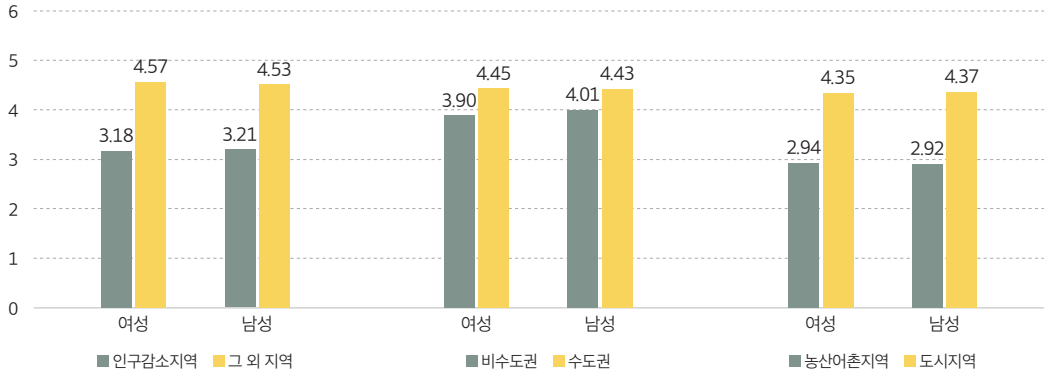
[그림 2-26] 응답자 성별에 따른 점수 비교(문항2-5. 우리 지역은 대학생이나 청년이 많이 생활한다)

[전체(n=6,387),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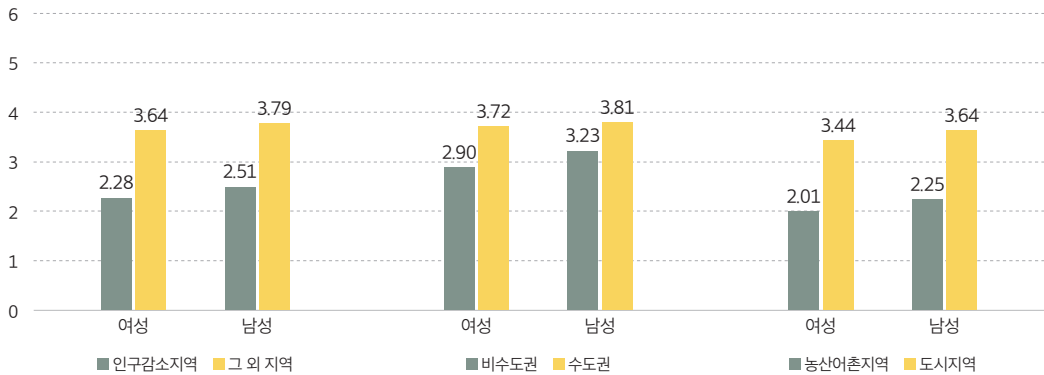
[그림 2-27] 응답자 성별에 따른 점수 비교(문항3-2. 우리 지역은 대부분이 아파트이다)

[전체(n=6,387), 단위 : 점]



[그림 2-28] 응답자 성별에 따른 점수 비교(문항4-5. 우리 지역은 야간이나 심야시간대에 사람이 많다)

[전체(n=6,387),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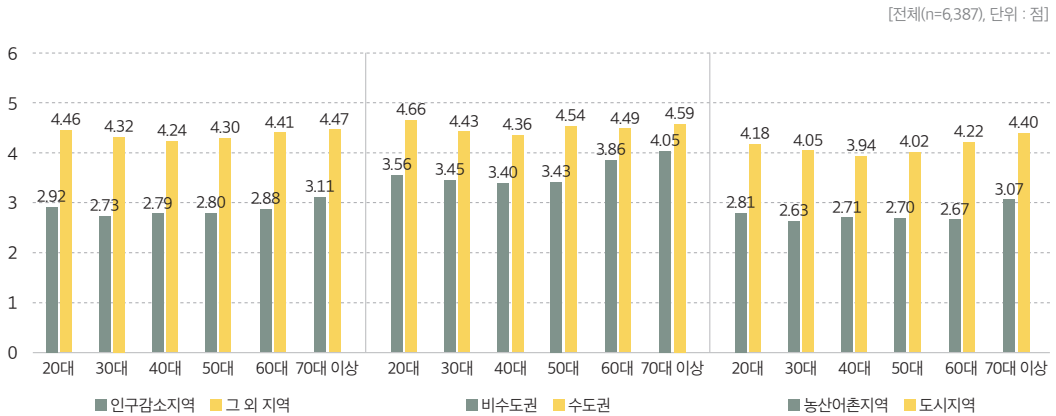
● 연령대에 따른 인식

응답자 연령대별 CPTI 문항별 점수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지역적 요인에 따른 인식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30~60대 중장년층에서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경제활동 및 자녀 양육 등으로 지역 환경에 대한 체감도가 높은 세대일수록 범죄예방환경의 질적 차이를 더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7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지역 간 인식 차이가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우리 지역은 모든
연령층이 고루고루
거주하고 있다**

‘핵심타겟인구-인구 구성’ 항목에서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은 모든 연령대에서 평균 1.50점의 격차를 보였다. 특히 30대에서 최대 1.59점, 70대 이상에서 최소 1.36점의 차이를 보여 연령에 관계 없이 일관된 인식 격차가 존재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은 평균 0.89점 차이로, 50대에서 최대 1.11점, 70대 이상에서 최소 0.54점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농산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은 평균 1.37점 차이를 보여 인구감소지역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60대(1.55점)에서 격차가 가장 컸다(그림 2-29). 즉, 연령층을 막론하고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지역의 연령 불균형과 특정 세대 편중 현상이 뚜렷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고령층일수록 지역 인구구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다소 완화되는 것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현실을 ‘주어진 환경’으로 받아들이는 적응형 인식 구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29] 응답자 연령대에 따른 점수 비교(문항1-1. 우리 지역은 모든 연령층이 고루고루 거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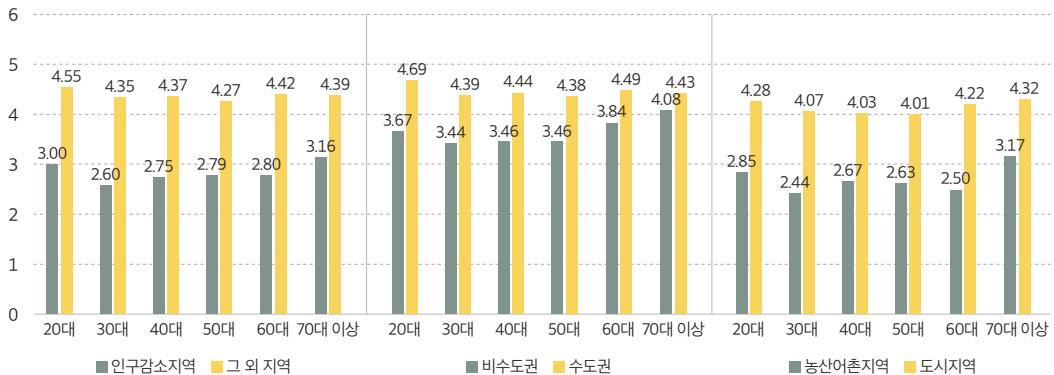


우리 지역은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이 많다

본 문항은 연령별 인식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항목으로,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 간 평균 1.54점의 격차를 보였다. 특히 30대에서 1.75점으로 최대, 70대 이상에서 1.23점으로 최소로 나타났으며, 중장년층(30~50대)에서 격차가 가장 두드러졌다. 비수도권과 수도권은 평균 0.81점 차이로, 20대에서 최대 1.02점, 70대 이상에서 최소 0.35점으로 나타나 젊은 세대일수록 지역 간 인식 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농산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은 평균 1.45점 차이로, 60대에서 최대 1.72점, 70대 이상에서 최소 1.15점으로 나타나 특히 중장년층의 아동·청소년 인구 부족 체감도가 가장 높았다(그림 2-30). 이러한 결과는 30~60대 응답자들이 자녀 세대의 거주·교육 환경에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는 시기임을 반영하며, 결국 인구감소지역과 농산어촌지역의 교육 기반 부족과 학령인구 감소가 실질적 생활 불안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30] 응답자 연령대에 따른 점수 비교(문항2-1. 우리 지역은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이 많다)

[전체(n=6,387),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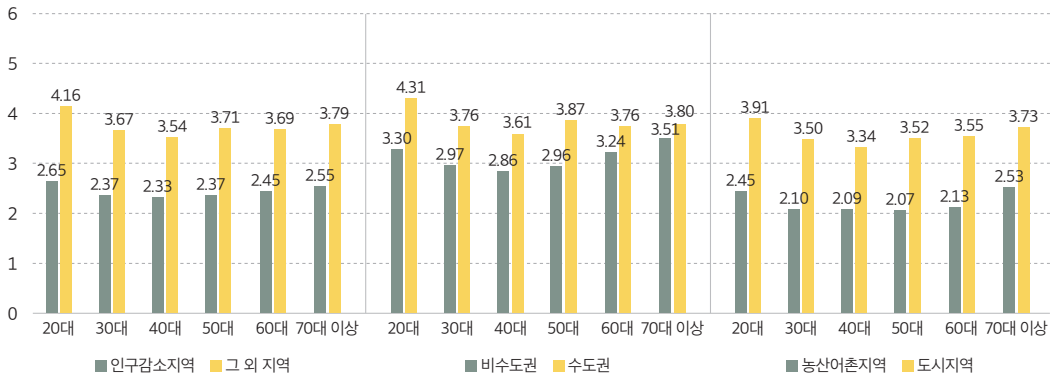


**우리 지역은
대학생이나 청년이
많이 생활한다**

‘생활특성’ 항목에서는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 간 평균 1.31점의 차이를 보였으며, 20대에서 최대 1.51점, 40대에서 최소 1.21점으로 비교적 일정한 차이를 유지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은 평균 0.71점 차이로, 20대(1.01점)에서 격차가 가장 크고, 70대 이상(0.29점)에서 가장 작았다. 농산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은 평균 1.36점 차이로, 20대에서 최대 1.46점, 70대 이상에서 최소 1.20점으로 나타나 모든 연령대에서 일관된 인식 차이를 보였다(그림 2-31). 이는 청년층 본인뿐 아니라 전 세대가 청년층의 지역 내 부족을 체감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젊은 세대가 수도권 중심으로 이동하는 사회 구조적 현상이 지역 인식 차로 명확히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즉, 20~30대는 생활 기반 부족으로 인한 기회 불균형을, 중·장년층은 청년층 이탈에 따른 지역 활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31] 응답자 연령대에 따른 점수 비교(문항2-5. 우리 지역은 대학생이나 청년이 많이 생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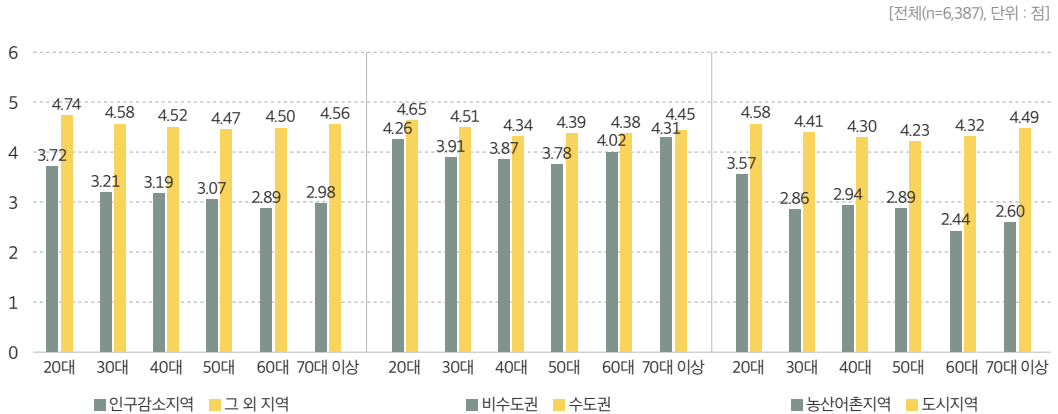
[전체(n=6,387), 단위: 점]



우리 지역은 대부분이 아파트이다

‘주요 용도-용도 구성’ 항목에서는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 간 평균 1.38점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60대에서 최대 1.61점, 20대에서 최소 1.02점으로 고령층에서 인식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비수도권과 수도권은 평균 0.43점 차이로, 50대에서 최대 0.61점, 70대 이상에서 최소 0.14점으로 5개 문항 중 격차가 가장 작았다. 반면, 농산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은 평균 1.51점 차이로 가장 큰 지역 간 격차를 보였으며, 특히 70대 이상(1.89점)에서 차이가 가장 두드러졌다(그림 2-32). 즉,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거유형의 차이를 공간적 안전 수준의 차이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고령층은 아파트의 보안성과 관리체계를 ‘안전한 주거’의 대표적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산어촌지역 등 저층 주거 중심 지역의 취약성이 더욱 부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2-32] 응답자 연령대에 따른 점수 비교(문항3-2. 우리 지역은 대부분이 아파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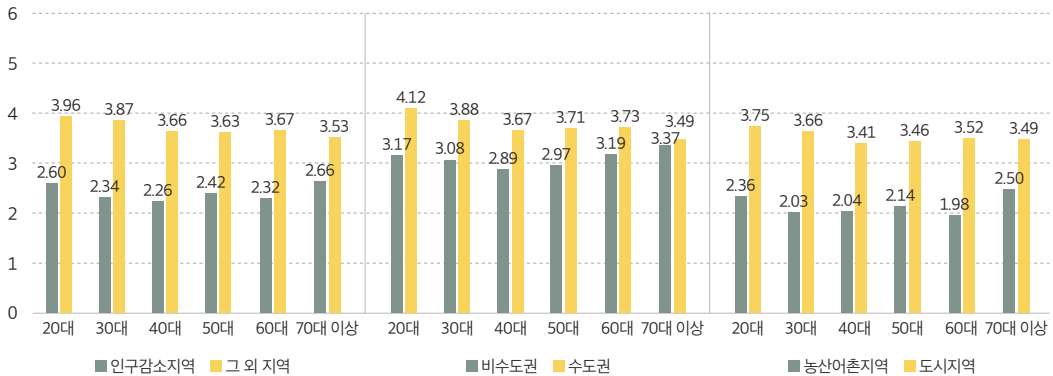
우리 지역은 야간이나 심야시간대에 사람이 많다

‘입지특성’ 항목에서는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 간 평균 1.29점 차이를 보였으며, 30대에서 최대 1.53점, 70대 이상에서 최소 0.87점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과 수도권은 평균 0.65점 차이로, 20대(0.95점)에서 가장 크고, 70대 이상(0.12점)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농산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은 평균 1.37점 차이로, 30대(1.63점)에서 최대, 70대 이상(0.99점)에서 최소로 나타났다(그림 2-33). 본 결과는 야간활동 빈도와 생활리듬이 연령에 따라 다르며, 젊은 층일수록 지역 간 생활환경의 차이를 민감하게 체감함을 보여준다. 특히 농산어촌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젊은 세대의 외출·여가활동 공간이 부족하고, 야간 조도·유동인구·치안체계의 미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청년층이 느끼는 지역의 야간 시간대 안전도가 크게 떨어지는 환경으로 해석된다.

연령대별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모든 항목에서 지역 간 격차가 연령별 차이보다 훨씬 크며, 특히 30~60대 중장년층에서 그 인식 격차가 가장 뚜렷했다. 이는 중장년층이 지역 내 생활 기반, 자녀 교육, 야간활동 환경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범죄예방 환경의 질적 차이를 직접 체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70대 이상 고령층은 지역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이동 빈도와 외부활동이 적고, 생활반경이 좁은 고령층의 주관적 안전감과 환경 적응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생활활동 중심의 환경요소(학교, 청년 공간, 야간활동)’에 대한 인식 격차가 크고, 연령이 높을수록 ‘정주·주거 안정성’과 관련된 항목의 격차가 두드러진다. 이는 셉테드 정책이 연령대별 생활패턴에 맞춘 맞춤형 전략으로 세분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33] 응답자 연령대에 따른 점수 비교(문항4-5. 우리 지역은 야간이나 심야시간대에 사람이 많다)

[전체(n=6,387), 단위 : 점]



● 거주기간에 따른 인식

응답자의 거주기간별 CPTI 문항별 점수 분포를 비교한 결과, 대체로 거주기간이 길수록 지역 환경을 더 명확히 인식하고, 단기 거주자는 지역 간 차이를 덜 체감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지역에 오래 거주할수록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체험적 이해가 축적되기 때문이며,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농산어촌지역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우리 지역은 모든 연령층이 고루고루 거주하고 있다

‘핵심타겟인구-인구 구성’ 항목에서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 간 평균 1.47점의 격차가 나타났다. 특히 5년~10년 미만 거주자에서 1.87점으로 최대, 1년 미만 거주자에서 0.74점으로 최소를 기록하여 거주기간이 짧을 수록 지역 간 인식 차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비수도권과 수도권은 평균 0.91점 차이로, 15년~20년 미만(1.13점)에서 최대, 1년 미만(0.40점)에서 최소를 보여 신규 전입자는 지역 간 차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농산어촌지역과 도시지역도 평균 1.32점 차이를 보였으며 5년~10년 미만(1.68점)에서 최대, 1년 미만(0.82점)에서 최소로 나타났다(그림 2-34). 이러한 결과는 지역 정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인구구성의 불균형이나 세대 편중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즉, 장기 거주자는 지역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세대 불균형 문제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반면, 단기 거주자는 지역의 특성을 아직 충분히 체험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지역은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이 많다

이 항목은 거주기간별 인식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문항이다.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 간 평균 1.55점 차이를 보였으며, 5년~10년 미만(1.87점)에서 최대, 1년 미만(1.11점)에서 최소로, 중기 거주자층에서 인식 격차가 가장 두드러졌다. 비수도권과 수도권은 평균 0.86점 차이를 보였는데, 25년~30년 미만(1.22점)에서 최대, 10년~15년 미만(0.60점)에서 최소로 나타났다. 농산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은 평균 1.43점이 차이 났고, 20년~25년 미만(1.74점)에서 최대, 1년 미만(0.94점)에서 최소로 나타나 장기 거주자일 수록 지역 간 인식 격차가 뚜렷해졌다(그림 2-35). 이 또한 오랜 기간 지역에 머무른 주민일수록 아동·청소년 인구 감소에 따른 생활환경 변화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장기 거주자는 학교 통폐합, 학령인구 감소, 지역 커뮤니티 위축 등을 경험하며 지역 쇠퇴 문제를 현실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지역은 대학생이나 청년이 많이 생활한다

‘생활특성’ 항목에서는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 간 평균 1.30점 차이를 보였으며, 5년~10년 미만(1.55점)에서 최대, 1년 미만(1.04점)에서 최소로, 모든 거주기간 구간에서 일관된 격차가 유지되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은 평균 0.75점 차이로, 3년~5년 미만(1.02점)에서 최대, 1년 미만(0.59점)에서 최소로 나타나 단기 거주자일수록 지역 간 인식 차가 작음이 확인되었다. 농산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은 평균 1.38점이 차이가 났으며 1년~3년 미만(1.87

점)에서 최대, 35년~40년 미만(1.16점)에서 최소를 보여 단기 거주자층에서 지역 인식 격차가 가장 크다는 특징을 보였다(그림 2-36). 해당 결과는 청년층 활동 기반과 관련된 인식이 거주 경험 기간보다는 생활권 접근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농산어촌지역 단기 거주자들은 지역 내 청년활동이나 여가공간의 부족을 더 크게 체감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지역 적응 이전에 겪는 생활 불편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지역은 대부분이 아파트이다

‘주요 용도-용도 구성’ 항목에서는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 간 평균 1.35점 차이가 나타났으며, 5년~10년 미만(1.75점)에서 최대, 40년 이상(0.96점)에서 최소로, 초장기 거주자일수록 격차가 감소하는 경향이 보였다. 비수도권과 수도권은 평균 0.46점 차이로, 3년~5년 미만(0.87점)에서 최대, 35년~40년 미만(0.21점)에서 최소로, 거주기간이 길수록 지역 간 주거유형 인식 차가 거의 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농산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은 평균 1.39점 차이로, 1년~3년 미만(1.73점)에서 최대, 25년~30년 미만(1.02점)에서 최소로 단기 거주자에서 인식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그림 2-37). 이러한 결과는 장기 거주자가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상대적으로 ‘익숙한 일상’으로 인식하게 되어 객관적 차이를 덜 느끼는 반면, 단기 거주자는 외부 비교 관점에서 지역의 물리적 한계(노후 주택, 낮은 아파트 비중 등)를 더 선명하게 체감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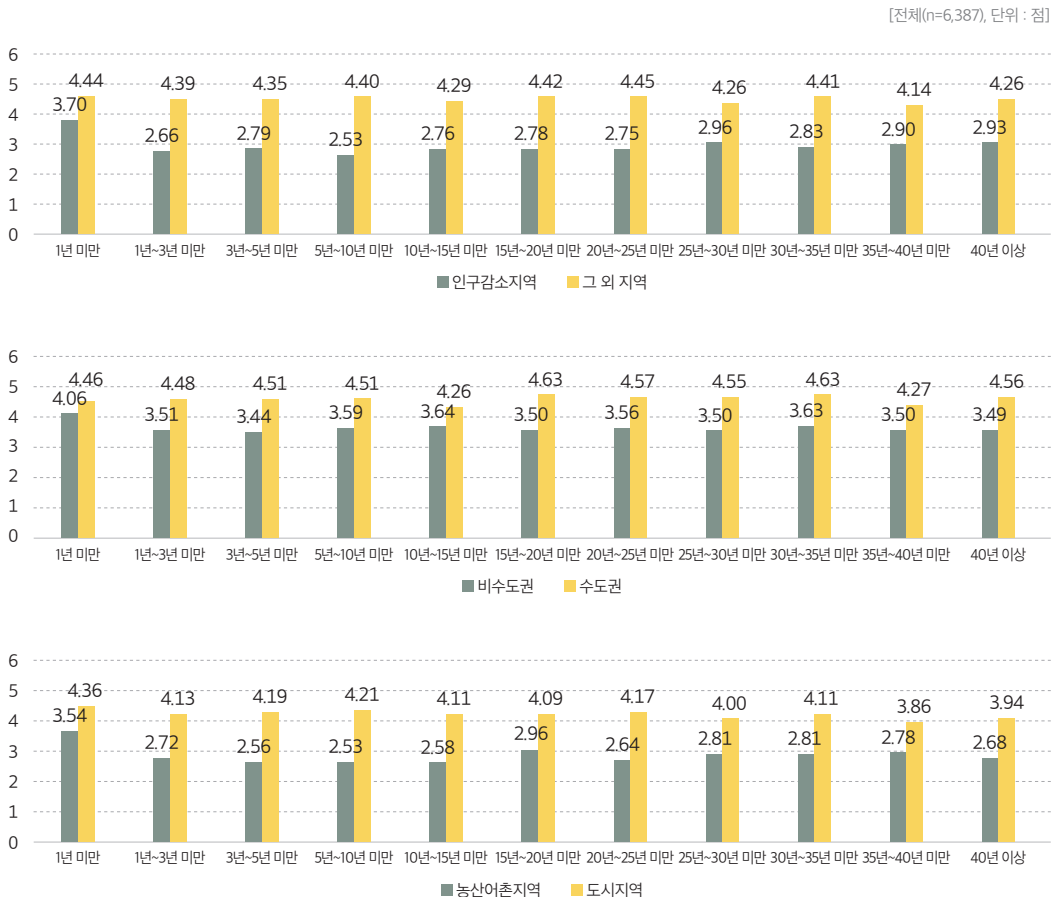
우리 지역은 야간이나 심야시간대에 사람이 많다

‘입지특성’ 항목에서는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 간 평균 1.34점 차이로, 5년~10년 미만(1.60점)에서 최대, 25년~30년 미만(1.11점)에서 최소로 나타나 중기 거주자에서 인식 격차가 가장 컸다. 비수도권과 수도권은 평균 0.70점 차이로, 3년~5년 미만(0.97점)에서 최대, 1년 미만(0.36점)에서 최소를 보여 신규 전입자는 야간 유동인구 관련 인식 차가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 농산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은 평균 1.42점 차이로, 1년~3년 미만(1.88점)에서 최대, 25년~30년 미만(1.11점)에서 최소로 단기 거주자에서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그림 2-38). 이는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야간활동과 관련된 지역적 인프라 차이를 더 직접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단기 거주자는 비교 대상(이전 거주지)이 명확하기 때문에 야간 조도·상권 밀도·안전도의 차이를 즉각적으로 느끼며, 반면 장기 거주자는 익숙함에 따른 인식 둔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모든 문항에서 인구감소지역·농산어촌지역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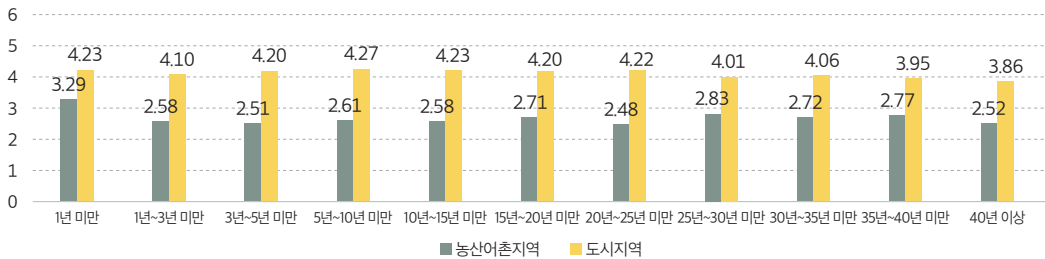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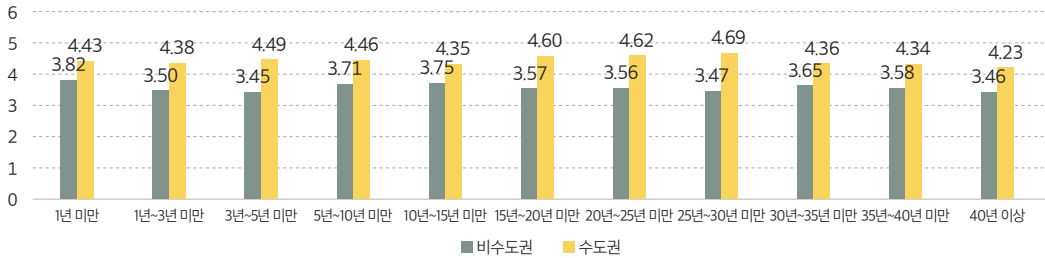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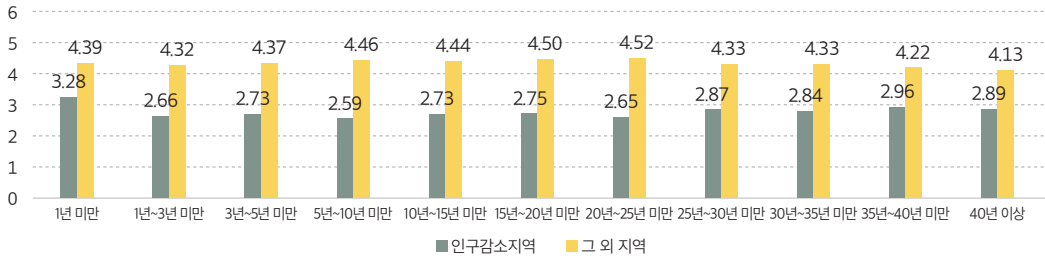
그 외 지역 간 인식 격차는 1점 이상으로 뚜렷했으며,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지역 간 격차가 감소하고 중·장기 거주자에서는 지역 특성에 대한 인식이 명확히 형성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셉테드 정책 수립 시, 신규 전입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 적응형 안전교육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 장기 거주자를 중심으로 지역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즉, 단기 거주자는 지역 환경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외부 시각’을 제공하고, 장기 거주자는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 관리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CPTI 결과는 거주기간에 따라 ①인식 형성 단계(1~5년 미만) → ②체감 및 참여 단계(5~20년) → ③관리·안정 단계(20년 이상)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단계에 맞춘 차등형 범죄예방 프로그램 및 주민참여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34] 응답자 거주기간에 따른 점수 비교(문항1-1. 우리 지역은 모든 연령층이 고루고루 거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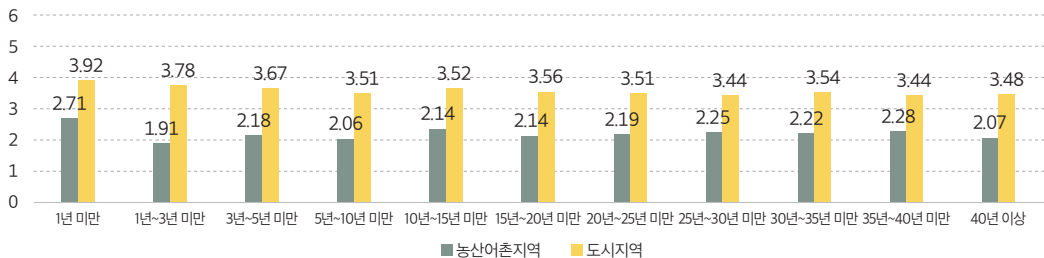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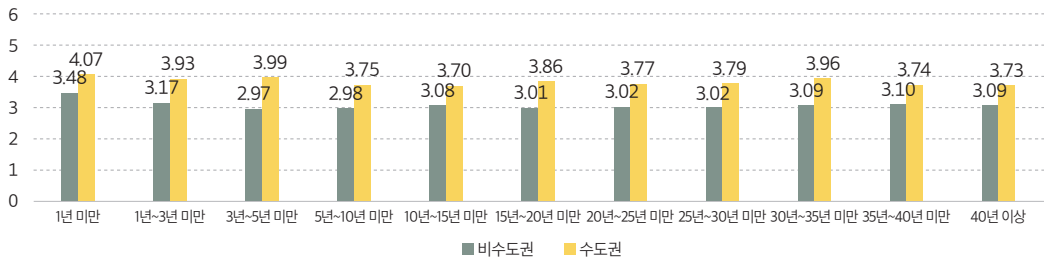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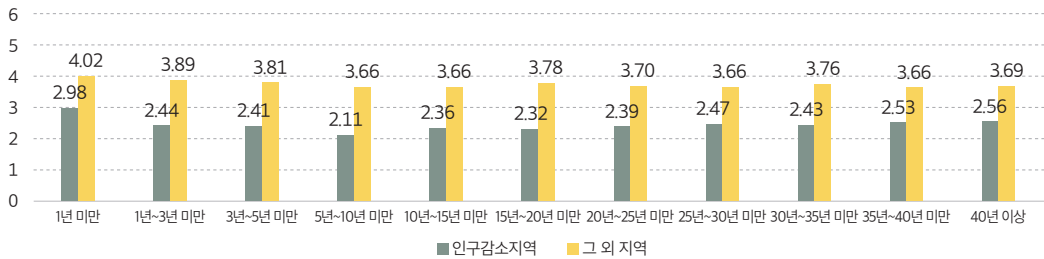
[그림 2-35] 응답자 거주기간에 따른 점수 비교(문항2-1. 우리 지역은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이 많다)

[전체(n=6,387),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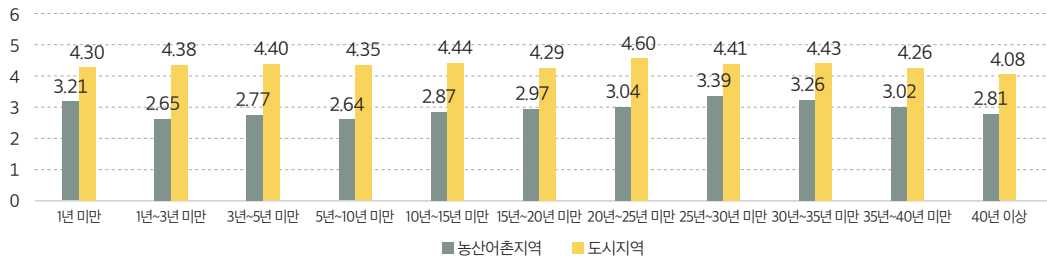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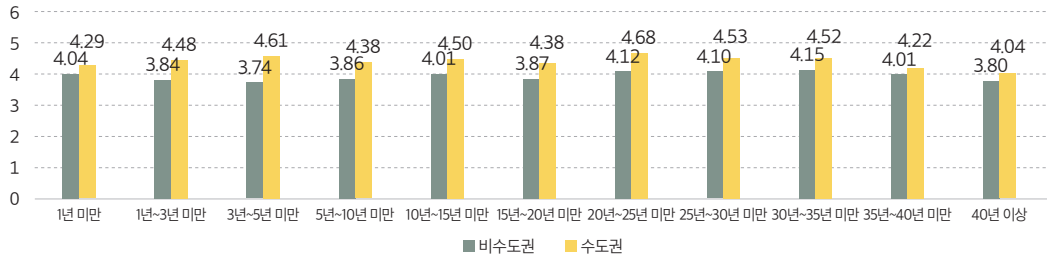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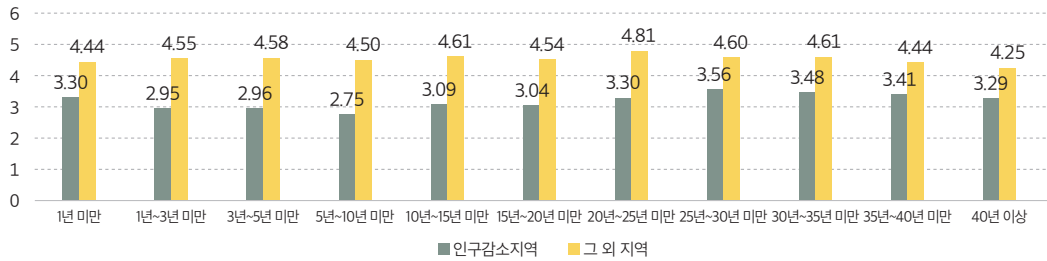
[그림 2-36] 응답자 거주기간에 따른 점수 비교(문항2-5. 우리 지역은 대학생이나 청년이 많이 생활한다)

[전체(n=6,387),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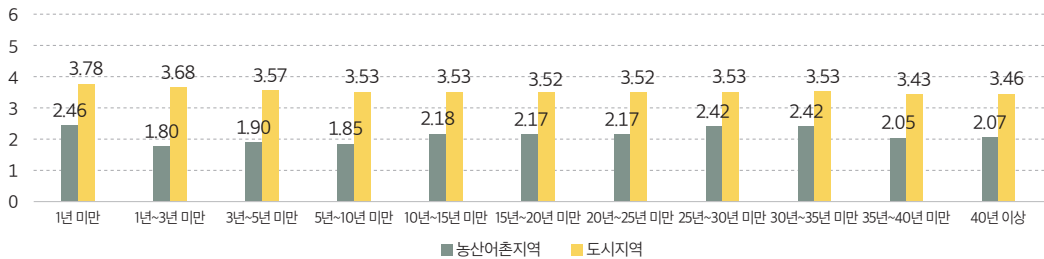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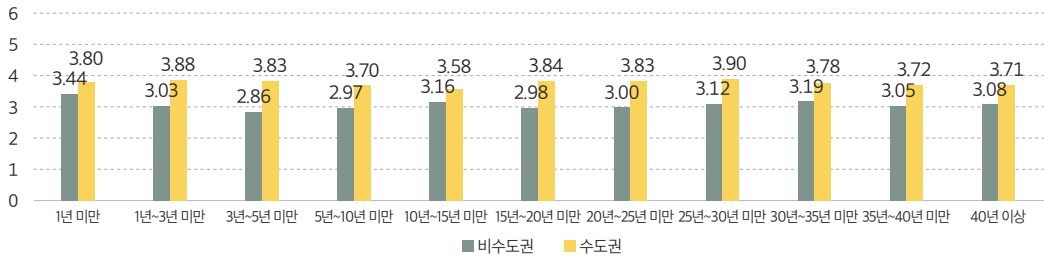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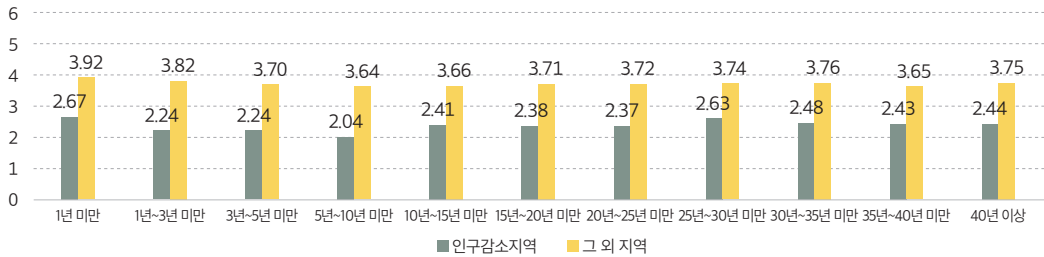
[그림 2-37] 응답자 거주기간에 따른 점수 비교(문항3-2. 우리 지역은 대부분이 아파트이다)

[전체(n=6,387), 단위 : 점]



[그림 2-38] 응답자 거주기간에 따른 점수 비교(문항4-5. 우리 지역은 야간이나 심야시간대에 사람이 많다)

[전체(n=6,387), 단위: 점]





CPTI 기반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 방향

-
1. 진단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2. CPTI 기반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 방향

1. 진단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CPTI 진단 결과는 지역의 범죄취약 요인을 물리적 환경, 인구 구조, 사회적 활동 특성 등 다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전국 229개 지자체 주민 6,3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는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먼저, 전국적으로 ‘ARPE(모든 연령층-주거지역-물리적 요인-지속적 활동)’ 유형이 우세하게 나타나, 우리나라 전반의 범죄예방 환경이 일정 수준의 활동성과 시인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ARPT’와 ‘ARNE’ 유형의 비중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미루어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물리적 인프라 부족과 관리 미흡이 병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전국 평균 기준으로 도시의 활동성과 자연적 감시 여건은 확보되어 있으나, 동시에 지역 간 불균형과 환경관리의 격차가 여전한함을 의미한다.

반면, 인구감소지역·농산어촌지역에서는 ‘ARPT’ 유형이 집중되어 있으나 동시에 ‘SRPT’ 등 특정 시간대 취약형·특정계층 중심형 유형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간 안전환경 격차가 물리적 시설의 유무보다 사회적 연결망, 활동 밀도, 주민참여 수준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준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비도시지역 간의 CPTI 유형 분포 차이는 현행 범죄예방 사업이 여전히 물리환경 개선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반증한다. 지역의 생활양식·시간대별 활동·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시설물 설치 중심의 셉테드가 실질적 체감 안전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역 유형별 결과 비교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지역, 농산어촌지역 등은 공통적으로 물리적·환경적 취약성이 높고, 수도권 및 도시지역은 사회적 연결의 약화와 심리적 불안 요인이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의 인구 구조, 공간 특성, 경제·사회적 여건이 복합

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범죄예방 환경정책은 지역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ARPT’ 등 물리적·환경적 취약 유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공공공간의 관리 미흡, 방법인프라 부족, 노후주거 밀집 등이 주요 문제로 확인되었다. 이는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의 지속성이 약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인구가 안정적인 지역은 ‘ARPE’나 ‘ARNE’ 유형 비중이 높아, 사회적 감시와 활동성이 상대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감소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 약화와 공공공간의 방치가 범죄예방 환경 전반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국 단위 평균과 비교했을 때, 수도권은 ARPE 유형 비중이 높아 관찰성과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반면, 비수도권은 ARNE 및 ARPT 유형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아 환경적 관리 부족과 물리적 노후화가 주요 문제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수도권이 물리적 방법인프라 측면에서는 비교우위를 가지지만, 사회적 단절과 익명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준다. 반면 비수도권은 물리적 인프라가 미비하고 방법시설 접근성이 낮아 기초적 안전환경이 부족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도시지역과 농산어촌지역 간의 비교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도시지역은 인구나 기능이 밀집되어 활동성은 높지만, 1인가구 증가와 사회적 단절로 인해 심리적 불안이 크고, 생활밀착형 범죄(절도, 성범죄 등)에 대한 체감 위험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은 기존의 물리적 방법인프라에 더해 사회적 신뢰와 커뮤니티 복원을 중점으로 한 셉테드 전략이 필요하다. 반면 농산어촌지역은 저밀도, 고령화, 빈집 증가 등으로 인한 물리적 취약성이 두드러졌으며, 방법시설 접근성 또한 제한적이다. 따라서 마을단위의 참여형 셉테드, 이동형 치안서비스, 생활거점 중심의 공공공간 재생 등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안전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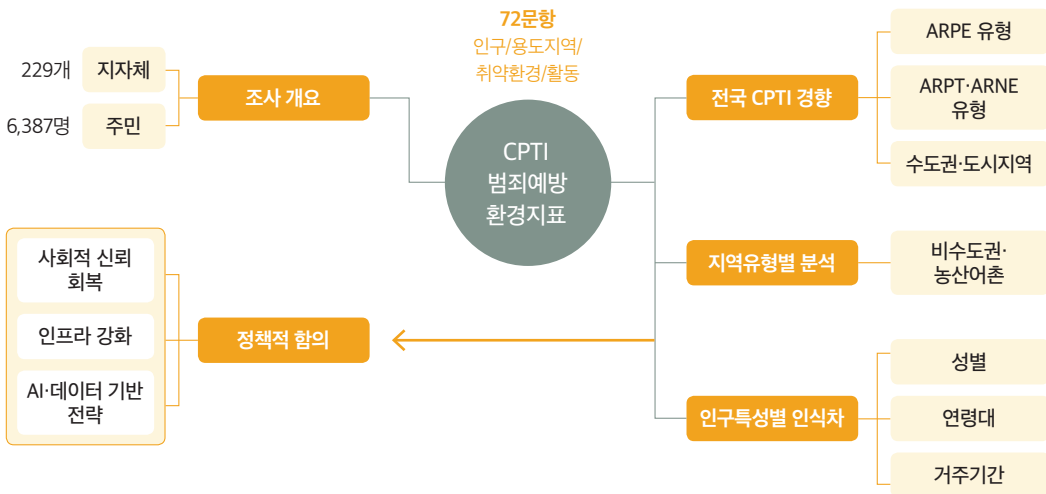
인구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CPTI 인식차가 뚜렷했다. 여성 응답자는 ‘안전시설 인식도’와 ‘야간 보행 불안감’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사회적 감시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다. 이는 여성의 체감 불안이 주로 공공공간의 조도, 시야 확보, 비상벨 등 물리적 요인과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여성 친화형 셉테드 전략으로, 조명환경 개선, 방법시설의 접근성 향상, 공공화장실·골목길 등 취약공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설 관리 미흡’과 ‘공공질서’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보여, 환경의 유지관리 및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개선 요구가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의 경우 생활권 내 범죄 불안감이 높으나 지역 공동체에 대한 참여 의식은 낮았고, 60대 이상은 물리적 환경보다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을 주요 불안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청년층은 주거불안, 야간 활동 증가 등 생활패턴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셉테드가 필요하며, 고령층은 교류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형 셉테드가 효과적이다.

거주기간별로는 5년 이하의 단기 거주자는 지역에 대한 신뢰도와 안전 만족도가 낮고,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는 지역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보다 공동체 유지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지역에 대한 사회적 유대가 형성되어 인식상의 안정감을 제공하는 반면, 신규 거주자의 경우 지역 정착 과정에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역 내 신규 거주자 대상의 초기 정착형 셉테드 프로그램(지역 안전안내 서비스, 주민참여형 마을안전지도 제작 등)을 운영하고, 장기 거주자 중심의 주민협력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지역 내 사회적 방법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림 3-1] CPTI 진단을 통한 정책적 함의



[표 3-1] CPTI 진단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구분	주요 내용	정책적 의미 및 시사점
조사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229개 지자체, 주민 6,387명 대상 CPTI(범죄예방 환경유형지표) 조사 실시 • 물리적 환경, 인구 구조, 사회적 활동 특성 등 다층적 요인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TI는 지역의 범죄취약 요인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로, 향후 맞춤형 CPTED 정책 수립의 기반 제공
전국 CPTI 결과 경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적으로 'ARPE(모든 연령층-주거지역-물리적 요인-지속적 활동)' 유형이 우세 • 'ARPT'와 'ARNE' 유형도 높은 비중 → 일부 지역은 물리적 인프라 부족·관리 미흡 병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평균 수준에서는 활동성과 시인성 확보되었으나, 지역 간 불균형과 환경관리 격차 여전 → 물리적 개선과 더불어 사회적 관리 강화 필요
지역유형별 CPTI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도시지역: ARPE 비중 높음, 관찰성·활동성 양호하지만 사회적 단절과 심리적 불안 높음 • 비수도권·농산어촌·인구감소지역: ARPT·ARNE 유형 집중, 물리적 취약성 높고 방법인프라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도시지역: 사회적 연결 회복형 CPTED(커뮤니티 거점 조성) • 비수도권·농산어촌: 기초 인프라 강화형 CPTED(조명·CCTV·비상벨 확충) • 도시재생뉴딜·생활SOC 등 중앙정부 공모사업과 CPTED 연계 필요
인구특성별 CPTI 인식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여성 불안감 높음(야간보행, 조도, 시야 등), 남성은 공공질서·시설관리 불 • 연령대: 20~30대 불안 높고 공동체 참여 낮음 / 60대 이상은 관계망 단절 불안 • 거주기간: 단기거주자는 안전신뢰도 낮고, 장기거주자는 공동체 유지 관심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여성안심형 CPTED(조명, 비상벨, 공공공간 개선) • 청년: 생활권 기반 스마트 CPTED • 고령층: 커뮤니티 중심 사회적 감시체계 • 단기거주자: 초기 정착형 CPTED(안전안내·마을지도) • 장기거주자: 주민협력 네트워크 운영
종합 정책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은 사회적 신뢰 회복형 CPTED, 농산어촌은 인프라 강화형 CPTED 필요 • 지역 간 안전환경 격차는 물리적 시설보다 사회적 연결망·활동 밀도·참여 수준에 의해 결정 • 설치 중심의 단기형 CPTED에서 AI·데이터 기반 전략형으로 전환 필요 • 도시재생·생활SOC 등 중앙정부 공모사업과의 연계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TED의 패러다임을 '물리적 개선 중심 → 데이터·AI 기반 통합형 → 주민참여 및 도시재생 연계형'으로 전환해야 함

2. CPTI 기반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 방향

CPTI를 통한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향후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은 공간적 안전성, 사회적 연결성, 제도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형 정책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다음의 네 가지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지역균형 기반의 차등형 셉테드 전략 확립

수도권과 도시지역은 ‘ARPE’ 중심의 활동적 환경을 유지하되,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커뮤니티 기반 셉테드를 강화해야 한다. 비수도권, 인구 감소지역, 농산어촌지역은 ‘ARPT’, ‘ARNE’ 유형이 높게 나타나므로 방법 시설 확충·공공공간 재생·생활거점 조성을 중심으로 한 기초 인프라 강화형 셉테드를 추진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CPTI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별 유형과 수준에 따라 사업 지원 기준을 차등화하고, 균형있는 재정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인구특성 기반 생활권 맞춤형 셉테드 추진

여성의 체감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여성안심형 셉테드’를 제도화하고, 공공장소 조명·비상벨·시야확보 등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청년층을 위한 스마트 방법 기반 생활권 셉테드(IoT 연계 안전 센서, 골목길 감시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청년주거지·학교 주변을 우선 개선 대상으로 지정한다. 고령층이 많은 지역에는 마을회관, 복지관 등 교류 공간 중심의 사회적 감시망형 셉테드를 도입한다. 또한 단기 거주자 대상 지역 안전 안내 및 초기 정착 프로그램, 장기 거주자 중심의 주민 참여형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방법력의 지속성을 확보한다.

CPTI 기반 데이터 연계 및 AI 활용 정책관리체계 구축

CPTI를 정기적 진단 지표로 제도화하여, 지역별 변화추세와 정책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CPTI 결과를 범죄통계·인구통계·도시환경 데이터와 연계한 범죄예방 환경지도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정책 근거 시스템으로 발전시킨다. CPTI 결과를 정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지역 쉼테드 사업의 성과관리와 투자 우선 순위를 객관화한다. 또한 구축된 자료는 AI를 활용하여 위험요인 예측 및 공간 진단 자동화를 고도화한다.

주민 참여형 관리 체계 및 지속 가능한 정책 운영

쉼테드 사업의 유지관리 단계에 주민참여를 제도화하여, 시설물 점검과 환경 관리를 지역 공동체와 함께 수행하도록 한다. 경찰청·법무부·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도시재생·공공디자인·생활SOC 사업과 연계되도록 통합 관리한다. 또한 쉼테드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종료 후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예산을 의무화하고, 지역별 쉼테드 지원센터를 통해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CPTI의 활용은 기존의 물리적 방법 중심 정책을 데이터 기반의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공간 진단에서 출발해, ‘유형별 전략 → 정책 설계 → 주민참여 → 성과평가’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쉼테드 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한다. 향후 CPTI는 ①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생활SOC 등 다른 정책 분야와 연계되어 복합형 안전정책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②누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안전지수 및 쉼테드 성과평가 체계로 그 활용을 확장할 수 있다. 또한 주민 인식 데이터와 공간 데이터를 결합한 ③AI 기반 예측형 안전정책 모델 개발에도 적용 가능하다. 결국 CPTI는 ‘진단에 기반한 정책, 정책의 체계적 실행’을 이어주는 범죄예방 환경조성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전략적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표 3-2] CPTI 진단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 방향

구분	주요 정책 방향	세부 실행과제	기대효과
지역 여건·균형을 고려한 셉테드 추진체계 확립	지역유형별 CPTI 결과에 기반한 차별화된 셉테드 전략 수립 및 중앙정부 공모사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도시지역: 사회적 연결 회복형 셉테드(커뮤니티 거점, 생활권 안전거점 조성) 비수도권·인구감소·농산어촌지역: 기초 인프라 강화형 셉테드(조명·CCTV·비상벨 등 기본시설 확충) 도시재생뉴딜, 생활SOC, 공공디자인 등 중앙정부 공모사업과 셉테드 요소 통합 CPTI 기반 지역별 차등 지원 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간 안전 격차 완화 도시재생과 셉테드의 상호 보완적 추진 공모사업 연계를 통한 예산 효율성 제고
인구특성 기반 생활권 맞춤형 셉테드	성별·연령·거주기간별 CPTI 인식차를 반영한 생활권 중심 셉테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여성안심형 셉테드(조명, 시야, 비상벨 개선) 청년층: 스마트 방법 기반 생활권 셉테드, 야간활동 안전공간 디자인 고령층: 교류공간 중심의 사회적 감시체계 강화 단기거주자: 초기 정착형 셉테드(안전안내·마을안전지도) 장기거주자: 주민협력 네트워크 및 자율방범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권별 체감안전 향상 세대·성별 간 안전 격차 해소 주민참여형 방법 체계 확립
CPTI 기반 데이터·AI 활용 정책관리체계 구축	데이터 기반 진단과 AI 예측분석을 통한 셉테드 전략 다변화 및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CPTI 정기조사 및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범죄통계·인구·공간정보 연계한 'AI 기반 범죄위험지도' 개발 AI를 활용한 고위험지역 예측·우선순위 선정 알고리즘 적용 셉테드 정책효과 분석 및 자동화 보고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거 기반 정책 의사결정 강화 셉테드 전략의 다양화·정밀화 정책 집행의 효율성 제고
주민참여형 관리체계 및 지속가능한 운영	셉테드 사업의 유지·관리 단계에 주민과 민간의 참여 제도화, 타 부처사업과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셉테드 유지관리 주민 참여 제도 도입 셉테드 전문지원센터 설치 및 인력 양성 경찰청·법무부·국토부 등 협업체계 구축 도시재생·스마트시티·공공디자인사업 등과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 연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셉테드의 지속가능성 강화 정책 실행력 및 현장 대응력 제고 법정부적 안전정책 통합 추진

CPTI로 읽는 범죄예방 환경

지역별 범죄취약환경 진단 및 예방 전략

맺음말

범죄예방 환경설계는 더 이상 단순히 물리적 시설을 배치하거나 방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술적 디자인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공간을 통해 지역의 삶을 읽고 사람들의 일상과 관계를 이해하며, 사회적 맥락 속에서 안전을 다시 설계하는 통합적 공공 디자인이자 사회적 설계 행위로 확장되고 있다. 이번에 제시한 CPTI는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에서 공간에 대한 구조화된 질문과 정량적 진단을 통해 지역의 범죄예방 환경 특성을 입체적으로 해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천적 도구로서 개발 되었다.

CPTI는 물리적 요인뿐 아니라 인구 구조, 사회적 활동, 공동체 역량 등 다층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시각화함으로써 지역별 안전에 있어 생활 환경의 강점과 취약성을 한눈에 보여준다.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진단 결과, 우리나라 전반의 CPTI 유형은 ‘ARPE(활동적·관찰 중심형)’이 우세하여 일정 수준의 활동성과 시인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ARPT’나 ‘ARNE’와 같이 물리적 인프라 부족, 관리 미흡, 사회적 단절이 병존하는 유형도 다수 존재했는데 이는 단순한 도시·비도시의 격차가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과 주민참여 수준이 지역의 안전환경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준다.

도시지역은 활동성이 높지만 사회적 신뢰가 약화되어 심리적 불안이 두드러졌고,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은 물리적 인프라의 부족과 공공공간 관리 미흡이 주요 취약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셉테드가 더 이상 ‘시설의 설치’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의 구조적 여건과 사회적 관계망을 함께 설계하는 정책적 접근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 성별·연령·거주기간별로 상이한 인식의 차이 역시, 안전이 보편적 기준으로만 측정될 수 없

으며, 다양한 삶의 맥락에 맞춘 세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CPTI는 범죄예방 정책을 기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단기 개선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 회복체계로 전환하는 정책의 인터페이스로 기능해야 한다. 향후 CPTI 기반의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첫째, 지자체별 CPTI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기 갱신체계를 마련하여, 변화하는 지역 환경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정책결정에 활용해야 한다. 둘째, CPTI 결과를 예산편성·사업평가의 핵심 지표로 제도화하여, 객관적 진단이 정책과 재정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셉테드를 도시재생, 공공디자인, 생활SOC, 복지, 교육 등 중앙정부 공모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안전이 지역활성화의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AI와 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한 셉테드 전략의 다변화 및 효율화가 필요하다. AI 기반 위험예측, 공간패턴 분석, 시뮬레이션 도구를 활용하여 지역별 맞춤형 안전디자인을 과학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주민참여형 CPTI 진단과 피드백 체계를 구축해, 주민의 인식과 생활경험이 지역의 공간전략으로 환류되는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안전한가? 라는 질문은 단순한 불안의 표현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첫 번째 질문이다. 이제 우리는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삶의 안전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CPTI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한 과학적 진단도구이자 사회적 상상력을 현실로 바꾸는 설계의 언어다. 이 책이 제안하는 CPTI 기반 접근이 각 지역의 다른 현실을 존중하고 지역의 다양성과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되어, ‘안전한 도시’를 넘어 ‘신뢰할 수 있는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이끄는 실질적 변화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 도시지역 인구현황 시군구 데이터, <https://kosis.kr/index/index.do>
2. 강신우, 오지은, 이환희, 김호(2022), 온도 지표에 따른 도시와 농촌의 열사망 위험도 격차, 한국기후변화학회, Vol. 13, No. 6, pp. 729~739
3. 박성남, 최가윤, 류수연, 장민영(2023), 맞춤형 공간전략 도출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진단체계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4. 박성남, 김성준, 채정은(2024), '지역 Space-MBT'를 활용한 인구감소지역 특성 진단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5. 한국리서치, 여론 속 여론, <https://hrcopinion.co.kr/archives/18681>
6.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인구감소지역 지정 <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7. Cozens, P. M. (2008).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in Western Australia: Planning for sustainable urban fu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lanning*, 3(3)
8. Minton, A. (2009). *Ground Control: Fear and happiness in the twenty-first-century city*. Penguin.; Im, S., & Lee, S. (2017).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A Critical Review of the Korean Application. *Journal of Urban Design*, 22(5)
9. Saville, G., & Cleveland, G. (2007). 2nd Generation CPTED: An Antidote to the Social Y2K Virus of Urban Design. 17th International CPTED Association Conference Proceedings.

부록

-
1. CPTI 설문지
 2. 표본 할당

1. CPTI 설문지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				
----	---	--	--	--	--

범죄예방 환경 유형 지표(CPTI)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건축공간연구원(AURI)은 국무조정실 산하의 건축·도시 분야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역의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적인 분석에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의견을 가진 분이 몇 퍼센트"와 같은 형태로만 활용되며, 개별 정보는 외부에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시면 지역사회의 안전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본 조사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건축공간연구원 김영준 연구원(☎ 044-417-9662), 김은희 연구위원(☎ 044-417-9622)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건축공간연구원

SQ. 응답자 선정 질문

SQ1.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시/도 지도 선택]

- | | | | | |
|------|------|------|------|------|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⑤ 광주 |
| ⑥ 대전 | ⑦ 울산 | ⑧ 경기 | ⑨ 강원 | ⑩ 충북 |
| ⑪ 충남 | ⑫ 전북 | ⑬ 전남 | ⑭ 경북 | ⑮ 경남 |
| ⑯ 제주 | ⑰ 세종 | | | |

SQ1-1. (SQ1)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229개 시/군/구 지도 선택]

SQ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SQ3.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출생연도: _____) → 20세 미만 조사 중단

- | | | | |
|-------|----------|-------|-------|
| ① 20대 | ② 30대 | ③ 40대 | ④ 50대 |
| ⑤ 60대 | ⑥ 70대 이상 | | |

A. 지역 특성 진단

지금부터 '(SQ1-1)'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귀하의 응답을 토대로 범죄예방을 위한 '(SQ1-1)'의 지역 환경 유형을 진단하고, 설문을 마치면 그 결과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항을 끝까지 읽고, 각 문항에 대한 귀하의 솔직한 생각을 응답해 주십시오.

※ 범죄예방 환경조성 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란?

▶ 물리적인 환경을 계획·설계·관리·활용하는 방식으로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략입니다.

**모든 문항이 같은 보기(척도)로 제시됩니다.
반드시 각 문항을 서로 비교해 가며 평가해 주십시오.**

A1-1. 다음 각 내용에 대해 현재 살고 계신 '(SQ1-1)'이(가) **얼마나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동의하시는 정도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제시]**

지역에 대한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1-1	우리 지역은 모든 연령층이 고루고루 거주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1-2	우리지역은 남녀 인구 비율이 비슷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1-3	우리 지역은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의 비율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1-4	우리 지역은 지역 내에서 다양한 연령층이 마을 반상회나 행사 참여 등을 통해 교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1-5	우리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지역 내에서 생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1-6	우리 지역은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 약국,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A1-2. **방금 응답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SQ1-1)'은(는) 다음과 같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정도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제시]**

범죄예방 환경 필요성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7	1-7	우리 지역은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을 충분히 고려한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1-8	우리 지역은 다양한 연령층이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1-9	우리 지역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범죄예방에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A2-1. 다음 각 내용에 대해 현재 살고 계신 '(SQ1-1)'이(가) **얼마나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동의하시는 정도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제시]**

지역에 대한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	2-1	우리 지역은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2-2	우리 지역은 여성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2-3	우리 지역은 고령자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2-4	우리 지역은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2-5	우리 지역은 대학생이나 청년이 많이 생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2-6	우리 지역은 외국인 거주자나 근로자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A2-2. **방금 응답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SQ1-1)'은(는) 다음과 같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정도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제시]**

범죄예방 환경 필요성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2-7	우리 지역은 아동과 청소년 중심의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2-8	우리 지역은 고령자 중심의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2-9	우리 지역은 여성이나 1인 가구 중심의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A3. 우리 지역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추진 시, **어떤 점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업 추진 중요도의 합이 100%가 되도록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 지역 범죄예방 환경 조성 방향	중요도
우리 지역은 모든 연령층을 두루 고려하는 범죄예방 환경 이 필요하다	_____ %
우리 지역은 특정 연령층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범죄예방 환경 이 필요하다	_____ %
합계	=100%

B1-1. 다음 각 내용에 대해 현재 살고 계신 '(SQ1-1)'이(가) **얼마나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동의하시는 정도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제시]**

지역에 대한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9	3-1	우리 지역은 대부분이 저층 주거지역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3-2	우리 지역은 대부분이 아파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	3-3	우리 지역은 주거지역 주변에 시장과 마트, 상점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3-4	우리 지역 보행자가 다니기 안전하게 조성, 관리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3-5	우리 지역은 주거 지역 내 공원이나 녹지가 안전하게 조성, 관리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4	3-6	우리 지역은 주거 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B1-2. **방금 응답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SQ1-1)'은(는) **다음과 같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정도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제시]**

범죄예방 환경 필요성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5	3-7	우리 지역은 원룸, 다세대주택 등 주거지 중심의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6	3-8	우리 지역은 아파트 주거지 중심의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7	3-9	우리 지역은 주거지 인근 시장, 상점 중심의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B2-1. 다음 각 내용에 대해 현재 살고 계신 '(SQ1-1)'이(가) **얼마나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동의하시는 정도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제시]**

지역에 대한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8	4-1	우리 지역은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9	4-2	우리 지역은 공장 및 제조시설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0	4-3	우리 지역은 군부대, 유원지 같은 특수시설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1	4-4	우리 지역은 술집, 노래방 등 유흥시설이 밀집한 구역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2	4-5	우리 지역은 야간이나 심야시간대에 사람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3	4-6	우리 지역은 상업, 업무 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B2-2. **방금 응답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SQ1-1)'은(는) **다음과 같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정도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제시]**

범죄예방 환경 필요성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4	4-7	우리 지역은 상업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5	4-8	우리 지역은 공장 및 제조시설 중심의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6	4-9	우리 지역은 야간이나 심야시간대에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B3. 우리 지역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추진 시, **어떤 점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업 추진 중요도의 합이 100%가 되도록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 지역 범죄예방 환경 조성 방향	중요도
우리 지역은 주거지에 중점을 둔 범죄예방 환경조성 이 필요하다	_____%
우리 지역은 상업시설 등이 혼재된 장소에 중점을 둔 범죄예방 환경조성 이 필요하다	_____%
합계	=100%

C1-1. 다음 각 내용에 대해 현재 살고 계신 '(SQ1-1)'이(가) **얼마나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동의하시는 정도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제시]**

지역에 대한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7	5-1	우리 지역은 빈집이나 외부 침입이 쉬운 노후 주택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8	5-2	우리 지역은 빈 점포 또는 방치되어 있는 땅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9	5-3	우리 지역은 막다른 골목이나 후미진 곳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0	5-4	우리 지역은 가로등이 부족하거나 조명이 어두운 차도와 보행로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1	5-5	우리 지역은 공공 CCTV가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2	5-6	우리 지역은 자율방범대, 파출소, 치안센터, 지구대와 같은 치안시설이 적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C1-2. **방금 응답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SQ1-1)'은(는) 다음과 같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정도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제시]**

범죄예방 환경 필요성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3	5-7	우리 지역은 가로등을 추가하고 어두운 조명은 밝은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4	5-8	우리 지역은 빈집 또는 주거 등의 건물에 침입 범죄를 예방하는 시설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5	5-9	우리 지역은 자율방범대, 파출소, 치안센터, 지구대와 같은 치안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C2-1. 다음 각 내용에 대해 현재 살고 계신 '(SQ1-1)'이(가) **얼마나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정도를 선택** 해 주십시오. 동의하시는 정도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제시]**

지역에 대한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6	6-1	우리 지역은 주민들이 자주 모이거나 교류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7	6-2	우리 지역은 악물이나 술 취한 행인이나 노숙자들을 빈번하게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8	6-3	우리 지역은 사람들 간의 다툼이 발생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9	6-4	우리 지역은 자율방범대, 주민순찰대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방범 활동이 적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0	6-5	우리 지역에는 경찰의 순찰이나 범죄예방 등의 경찰 활동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1	6-6	우리 지역은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활동 지원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C2-2. **방금 응답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SQ1-1)'은(는) 다음과 같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정도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제시]**

범죄예방 환경 필요성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2	6-7	우리 지역은 자율방범대 등 주민 자율의 범죄 예방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3	6-8	우리 지역은 경찰의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을 더 자주 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4	6-9	우리 지역은 주민들이 안전을 주제로 자주 모이고 교류할 수 있는 행사나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C3. 우리 지역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추진 시, **어떤 점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업 추진 중요도의 합이 100%가 되도록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 지역 범죄예방 환경 조성 방향	중요도
우리 지역은 물리적 범죄 취약 환경 요인(공공공간, 건축물, 시설물 등에 대한 대응전략) 이 필요하다	____%
우리 지역은 비물리적 범죄 취약 환경 요인(순찰, 교류 등에 대한 대응전략) 이 필요하다	____%
합계	=100%

D1-1. 다음 각 내용에 대해 현재 살고 계신 '(SQ1-1)'이(가) **얼마나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동의하시는 정도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제시]**

지역에 대한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5	7-1	우리 지역은 휴가철 등 계절에 따라 방문하는 사람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6	7-2	우리 지역은 지역 축제 등 이벤트에 따라 방문하는 사람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7	7-3	우리 지역은 특정 시기에 잠시 거주 또는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8	7-4	지역 주민들은 한시적 지역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9	7-5	우리 지역은 한시적 지역 행사에 필요한 시설이나 공간들이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0	7-6	우리 지역은 한시적 지역 행사나 이벤트 때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D1-2. **방금 응답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SQ1-1)'은(는) 다음과 같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정도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제시]**

범죄예방 환경 필요성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1	7-7	우리 지역은 한시적인 지역 행사의 범죄예방(범죄안전)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2	7-8	우리 지역은 계절별로 방문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 범죄예방(범죄안전)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3	7-9	우리 지역은 각종 행사나 계절별로 운영되는 범죄예방(범죄안전)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D2-1. 다음 각 내용에 대해 현재 살고 계신 '(SQ1-1)'이(가) **얼마나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동의하시는 정도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제시]**

지역에 대한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4	8-1	우리 지역은 떠나지 않고 이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거나 거주하고 싶은 주민이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5	8-2	우리 지역은 휴가철이나 이벤트에 따른 관광객이 많이 몰리지 않는 지역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6	8-3	우리 지역은 신개발 등 급격한 물리적 변화가 적은 지역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7	8-4	우리 지역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범죄예방(범죄안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8	8-5	우리 지역은 범죄예방을 위해 파출소 또는 지역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의 지원과 관심이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9	8-6	우리 지역은 사람이 범비지 않는 시기에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D2-2. **방금 응답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SQ1-1)'은(는) **다음과 같은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정도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제시]**

범죄예방 환경 필요성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70	8-7	우리 지역은 일상적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율방범대 사무소 등 시설 및 공간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1	8-8	우리 지역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범죄예방 활동을 더욱 지원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2	8-9	우리 지역은 일상적 주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상시적 범죄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D3. 우리 지역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추진 시, **어떤 점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업 추진 중요도의 합이 100%가 되도록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 지역 범죄예방 환경 조성 방향	중요도
우리 지역은 특정 시기에 집중이 필요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프로그램 이 필요하다	_____%
우리 지역은 일상적인 지역 활동에 필요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프로그램 이 필요하다	_____%
합계	=100%

지역 CPTI 평가 결과

귀하의 응답을 토대로 진단한 '(SQ1-1)'의
범죄예방환경 유형 특성은 "○○○○"입니다.
특성 유형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SQ1-1)' 범죄예방 환경 지역 특성

- * 산출방법 : A/B/C/D 파트별 7~9문항의 평균값이 큰 영역의 이니셜로 지역특성 정의
- * 유형별 설명은 아래 표에서 해당하는 영역의 내용만 제시

특성	특성 설명	
핵심 타겟 인구	A1 All generation (모든 연령층)	해당 지역은 모든 연령층을 두루 고려하는 범죄예방 환경이 요구됩니다.
	A2 Specific Age (특성 연령층)	해당 지역은 특정 연령층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범죄예방 환경이 요구됩니다.
주요 용도	B1 Residential (주거지역)	해당 지역은 주거지역 중점의 맞춤형 특화 범죄예방 환경이 요구됩니다.
	B2 Commercial (상업혼재지역)	해당 지역은 상업혼재지역 중점의 맞춤형 특화 범죄예방 환경이 요구됩니다.
범죄 취약 환경 요인	C1 Physical (물리적)	해당 지역은 물리적 범죄 취약 환경 요인에 대한 특화 대응형 범죄예방 환경이 요구됩니다.
	C2 Non-physical (비물리적)	해당 지역은 비물리적 범죄 취약 환경 요인에 대한 특화 대응형 범죄예방 환경이 요구됩니다.
특수성	D1 Temporary (일시적)	해당 지역은 특정 시기에 집중이 필요한 범죄예방 환경 프로그램이 요구됩니다.
	D2 Everyday (일상적)	해당 지역은 일상적인 지역 활동에 필요한 범죄예방 환경 프로그램이 요구됩니다.

DQ. 응답자 특성

DQ1. 귀하께서 (SQ1-1)에서 거주하신 지는 대략 얼마나 되셨습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3년 미만 ③ 3년~5년 미만
- ④ 5년~10년 미만 ⑤ 10년~15년 미만 ⑥ 15년~20년 미만
- ⑦ 20년~25년 미만 ⑧ 25년~30년 미만 ⑨ 30년~35년 미만
- ⑩ 35년~40년 미만 ⑪ 40년 이상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

2. 표본 할당

본 조사는 229개 지역별 20표본씩 조사를 목표로 표본 할당을 진행하였으며, 실제 조사 완료된 표본은 다음과 같다.

[표 1-] 229개 지역별 표본 할당

(단위 : 명)

구분	표본 할당	조사 완료	구분	표본 할당	조사 완료	구분	표본 할당	조사 완료
서울 강북구	20	30	부산 사하구	20	30	대전 유성구	20	30
서울 광진구	20	30	부산 서구	20	30	대전 중구	20	30
서울 노원구	20	30	부산 수영구	20	33	울산 남구	20	30
서울 도봉구	20	32	부산 연제구	20	31	울산 동구	20	30
서울 동대문구	20	32	부산 영도구	20	31	울산 북구	20	30
서울 성동구	20	36	부산 중구	20	30	울산 울주군	20	30
서울 성북구	20	30	부산 해운대구	20	30	울산 중구	20	31
서울 종랑구	20	30	대구 남구	20	30	경기 가평군	20	32
서울 마포구	20	30	대구 달서구	20	30	경기 고양시	20	30
서울 서대문구	20	34	대구 달성군	20	30	경기 과천시	20	33
서울 은평구	20	36	대구 동구	20	30	경기 광명시	20	30
서울 용산구	20	30	대구 북구	20	30	경기 광주시	20	33
서울 종로구	20	31	대구 서구	20	30	경기 구리시	20	30
서울 중구	20	34	대구 수성구	20	30	경기 군포시	20	30
서울 강남구	20	30	대구 중구	20	30	경기 김포시	20	30
서울 강동구	20	30	대구 군위군	20	5	경기 남양주시	20	31
서울 서초구	20	30	인천 강화군	20	30	경기 동두천시	20	39
서울 송파구	20	30	인천 계양구	20	32	경기 부천시	20	30
서울 강서구	20	30	인천 남동구	20	30	경기 성남시	20	30
서울 관악구	20	30	인천 동구	20	30	경기 수원시	20	30
서울 구로구	20	34	인천 부평구	20	30	경기 시흥시	20	31
서울 금천구	20	33	인천 서구	20	30	경기 안산시	20	39
서울 동작구	20	30	인천 연수구	20	30	경기 안성시	20	33
서울 양천구	20	31	인천 옹진군	20	8	경기 안양시	20	32
서울 영등포구	20	31	인천 중구	20	31	경기 양주시	20	34
부산 강서구	20	31	인천 미추홀구	20	30	경기 양평군	20	31
부산 금정구	20	31	광주 동구	20	30	경기 여주시	20	30
부산 기장군	20	32	광주 서구	20	30	경기 연천군	20	24
부산 남구	20	31	광주 남구	20	30	경기 오산시	20	34
부산 동구	20	30	광주 북구	20	30	경기 용인시	20	30
부산 동래구	20	33	광주 광산구	20	30	경기 의왕시	20	30
부산 부산진구	20	30	대전 대덕구	20	30	경기 의정부시	20	31
부산 북구	20	30	대전 동구	20	30	경기 이천시	20	30
부산 사상구	20	34	대전 서구	20	31	경기 파주시	20	30

구분	표본 할당	조사 완료
경기 평택시	20	30
경기 포천시	20	30
경기 하남시	20	30
경기 화성시	20	30
강원 강릉시	20	30
강원 고성군	20	23
강원 동해시	20	30
강원 삼척시	20	31
강원 속초시	20	30
강원 양구군	20	18
강원 양양군	20	25
강원 영월군	20	29
강원 원주시	20	30
강원 인제군	20	25
강원 정선군	20	17
강원 철원군	20	30
강원 춘천시	20	30
강원 태백시	20	31
강원 평창군	20	29
강원 홍천군	20	30
강원 화천군	20	19
강원 횡성군	20	30
충북 괴산군	20	16
충북 단양군	20	24
충북 보은군	20	19
충북 영동군	20	30
충북 옥천군	20	30
충북 음성군	20	32
충북 제천시	20	30
충북 증평군	20	31
충북 진천군	20	35
충북 청주시	20	31
충북 충주시	20	31
충남 계룡시	20	30
충남 공주시	20	32
충남 금산군	20	28
충남 논산시	20	32
충남 당진시	20	32
충남 보령시	20	34
충남 부여군	20	30
충남 서산시	20	30
충남 서천군	20	30
충남 아산시	20	30

구분	표본 할당	조사 완료
충남 예산군	20	31
충남 천안시	20	30
충남 청양군	20	12
충남 태안군	20	30
충남 홍성군	20	36
전북 고창군	20	27
전북 군산시	20	30
전북 김제시	20	30
전북 남원시	20	38
전북 무주군	20	11
전북 부안군	20	25
전북 순창군	20	15
전북 완주군	20	30
전북 익산시	20	31
전북 임실군	20	11
전북 장수군	20	18
전북 전주시	20	30
전북 정읍시	20	30
전북 진안군	20	9
전남 강진군	20	17
전남 고흥군	20	27
전남 곡성군	20	15
전남 광양시	20	30
전남 구례군	20	15
전남 나주시	20	30
전남 담양군	20	16
전남 목포시	20	30
전남 무안군	20	34
전남 보성군	20	19
전남 순천시	20	30
전남 신안군	20	6
전남 여수시	20	33
전남 영광군	20	23
전남 영광군	20	28
전남 완도군	20	17
전남 장성군	20	18
전남 장흥군	20	22
전남 진도군	20	16
전남 함평군	20	13
전남 해남군	20	28
전남 화순군	20	30
경북 경산시	20	30
경북 경주시	20	30

구분	표본 할당	조사 완료
경북 고령군	20	18
경북 구미시	20	30
경북 김천시	20	32
경북 문경시	20	30
경북 봉화군	20	13
경북 상주시	20	30
경북 성주군	20	25
경북 안동시	20	31
경북 영덕군	20	15
경북 영양군	20	4
경북 영주시	20	30
경북 영천시	20	30
경북 예천군	20	30
경북 울진군	20	30
경북 의성군	20	15
경북 청도군	20	20
경북 청송군	20	10
경북 칠곡군	20	30
경북 포항시	20	30
경북 울릉군	20	3
경남 거제시	20	30
경남 거창군	20	30
경남 고성군	20	25
경남 김해시	20	31
경남 남해군	20	27
경남 밀양시	20	31
경남 사천시	20	31
경남 산청군	20	16
경남 양산시	20	30
경남 의령군	20	16
경남 진주시	20	32
경남 창녕군	20	25
경남 창원시	20	30
경남 통영시	20	30
경남 하동군	20	22
경남 함안군	20	30
경남 함양군	20	28
경남 함천군	20	15
제주 제주시	20	31
제주 서귀포시	20	30
세종시	20	30

CPTI로 읽는 범죄예방 환경

지역별 범죄취약환경 진단 및 예방 전략

지은이	김은희, 박성남
발행인	박환용
발행처	건축공간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8층
인쇄일	2025년 12월 26일
발행일	2025년 12월 31일
출판등록	제2015-41호 (등록일 '08. 02. 18.)
전화/팩스	044-417-9600/044-417-9608
홈페이지	www.auri.re.kr
도움주신 분들	설준호 (주)엠브레인퍼블릭 부장 이하늘 카이스트 연구원
디자인	세일포커스(주)
ISBN	979-11-5659-520-5
비매품	

